

# 역사와 융합

제4호 2019. 6. 30

## 연구논문

하왕조 강역과 우공구주 고찰 / 정암 · 최원태

‘昔有桓國(謂帝釋也)’의 가필 가능성 연구 / 박정학

나주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 실체에 관한 연구 / 박동

이회영의 독립운동 방략과 독립국가 건설 구상 / 김병기

## 서 평

개성상인의 장부에서 배우는 자본주의 미래 / 이계웅

-허성관, 『개성상인의 탄생- 세계 최고(最古)의 복식부기를 만든 사람들』, 만권당, 2018.

ISSN 2586-2774

# 역사와 융합

제4호 2019.6.30.

바른역사학술원



## 차 례

### [연구논문]

하왕조 강역과 우공구주 고찰 / 정암 · 최원태

‘昔有桓國(謂帝釋也)’의 가필 가능성 연구 / 박정학

나주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 실체에 관한 연구 / 박동

이회영의 독립운동 방략과 독립국가 건설 구상 / 김병기

### [서 평]

개성상인의 장부에서 배우는 자본주의 미래 / 이계웅

—허성관, 『개성상인의 탄생— 세계 최고(最古)의 복식부기를 만든 사람들』,  
만권당, 2018.



## 부 록

-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 『역사와 융합』 편집위원회 규정
- 『역사와 융합』 투고 및 심사 규정
- 연구 윤리 규정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신청서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서
- 『역사와 융합』 게재판정 기준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의견서
- 알림



『역사와융합』 제4집(2019. 6)

## 하왕조 강역과 우공구주 고찰

정 암(협성대학교) · 최 원 태(고대사 연구가)

### 차 례

1. 서론
2. 하나라의 실재성과 하상주단대공정
  - 1) 유적지로 본 실재성
  - 2) 하상주단대공정
3. 우공구주의 허구성과 하나라의 실제 강역
  - 1) 우공구주의 허구성
  - 2) 하나라의 실제 강역
4. 결론

### 【국문초록】

최근 중국 역사학계의 성과에 따르면 하왕조는 실존하는 역사다. 하상주단대 공정에서는 그 연대를 서기전 2070년에서 서기전 1600년까지라고 특정하기까지 했다. 『서경』이나 『사기』 등의 고대 문헌에는 하왕조의 시조인 우(禹)가 중국 천하에 9주를 개척하여 변방의 이민족들에게 조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우공구주(禹公九州) 이야기는 우가 황하 유역뿐만 아니라 장강·회수 등을 다스리고, 견산·기산·형산 등 9산을 개발해 소통시켰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



공구주의 강역은 중국의 최초 통일제국인 진(秦)나라 강역보다 크고, 나아가전한 때의 무제(武帝)가 넓힌 그것에 버금가고 있다. 고대 사서에 우공구주의 강역이 이렇게 넓게 묘사된 것은 먼 옛날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우공구주 강역을 후대의 선현이나 사가들이 왜곡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리두 유적에 의거하고, 또 우공구주에 나타난 지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하나라의 강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하나라의 세력권은 이리두 문화가 존재하는 일대, 즉 황하를 중심으로 한 하남성 북부와 산서성 남부 일대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하상주단대공정, 우, 우공구주, 이리두 유적, 이리두 문화

## 1. 서론

중국사에서 하나라는 오랫동안 전설적 시대로 일컬어져 왔다. 부사년(傅斯年)<sup>1)</sup>의 『이하동서설(夷夏東西說)』에 실린 글은 그런 사실을 잘 말해준다.

“우(禹)의 자취에 관한 전설은 없는 곳이 없다. 북으로는 흉노, 남으로는 백월(百越)이 모두 우(禹)의 후예이며, 용문(龍門)과 회계(會稽)에 있는 우(禹)의 흔적은 더욱 유명하다. 설사 고대에 문산(汶山) 일대의 외곽에 떨어져 있어 중국과 왕래하지 않았던 촉인(蜀人)들에게도 치수 전설은 보편적으로 존재했으며, 비록 동방 계통인 상인(商人)들이라 해도 역시 ‘예지(叡智)에 찬 상족(商族),

1) 부사년, (정재서 역주), 『이하동서설(夷夏東西說)』, 우리역사연구재단, 2011, 125-126쪽. 책 이름의 이하동서설은 1933년 중국의 역사학자 부사년이 제창한 것으로 현재 중국의 시원적인 화하족과 동이족은 기원이 같다는 이론이다.

상서로움 길이길이 드러내리. 그 옛날 큰물이 가없이 넘칠 때, 우임금이 온 땅을 다스렸지<sup>2)</sup>라고 했으니 이는 분명히 우(禹)를 고대의 위대한 신으로 여긴 것이다. 다만 춘추 이전의 책에서 우(禹)는 그냥 우(禹)로만 칭할 뿐 하우(夏禹)로 칭하지 않았는데, 이는 직(稷)을 직(稷)이라고만 칭할 뿐 하직(夏稷)이니 혹은 주직(周稷)이니 하고 칭한 예가 없음과 같다. 계(啓) 이후부터 비로소 하후(夏后)로 일컬어졌으니 ‘계(啓)’라는 글자에는 대개 시조(始祖)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나라 때는 경제(景帝)의 휘(諱)를 피하느라 ‘개(開)’로 고쳤으니 이는 ‘계(啓)’의 훈고적 의미를 방증해준다. 계(啓)의 모계는 도산씨(塗山氏)에게서 나오지만, 그 윗세대 전승자로서의 우(禹)는 흡사 허구적 인물로 보이는데, 대개 우(禹)는 신적인 인물로서 곧 중국의 오시리스<sup>3)</sup>다.”

위 인용문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禹)는 전설과 신화의 인물이다.’ 그러나 중국은 1950년대부터 하왕조의 도읍인 하허(夏墟)를 찾는 작업을 추진해 하남성 언사현(偃師縣)에서 이리두(二里頭) 유적을 발굴했다. 그 결과 우공구주는 실제 역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왕조의 실재가 인정되자 그 시기를 획정하는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이 중국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나라가 실재했다면 우(禹)가 9주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그리고 사실이라면 그 영역은 어디까지 이르렀을까? 이런 이야기는 『사기』, 『서경』, 『한서』, 『여씨춘추』 등 중국 고대 사서에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사기 하본기』 등에 나타난 우공구주 영역은 상나라와 주나라는 물론 진시황제가 통일한 진(秦) 제국보다 큰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그 신빙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서에 나타난 우공구주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우공

2) 시경(詩經), 상송(商頌), 장발(長發)의 시구(濬哲維商, 長發其祥, 洪水茫茫, 禹敷下土方)

3) 이집트 신화에서 죽은 자의 신으로 숭배된 남신(男神)

구주 이야기는 모순이 많은 허황된 것이며, 하나라의 실제 강역은 황하 중류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류 중에서도 하류 일대의 하남성 북부 일부와 산서성 남부 일대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 2. 하나라의 실재성과 하상주단대공정

### 1) 유적지로 본 실재성

하왕조 시대에 우임금이 9주를 개척한 이야기는 『한서 지리지』, 『서경 우공』, 『한서 지리지』 등의 문헌에 보인다. 『사기 하본기』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임금 때의 일이다. 나라에 큰 홍수가 나자 치수할 사람을 찾았다. 사악(四嶽)이 권하므로 곤(鯀)에게 맡겨 9년 동안 치수사업을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순임금이 치수에 실패한 곤을 우산(羽山)으로 귀양 보내고, 곤의 아들 우(禹)를 등용하여 치수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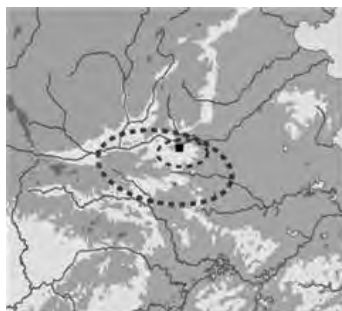
『서경 오제본기』에는 우의 공로가 묘사되어 있다. 그것에 따르면 “9개 산맥을 개통하고, 9개 호수를 다스리고, 9개 큰 하천을 소통시켜 9주의 경계를 확장했다. 그리하여 이민족들에게 지방 각지의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게 함으로써 험한 공을 세웠고, 순임금은 우(禹)를 하늘에 천거하여 천자의 자리를 이어받아 하 나라를 건국했다.”

실제로 고대 중국에서는 황하가 범람했을 가능성이 많다. 황하는 중위도의 황토지대를 흐르고 있으며, 황토는 물에 쉽게 휩쓸리는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황토는 비옥하므로 황하 주변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컸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나 군주 등 지도자에게 치수사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 당면과제를 우가 맡게 되었고, 우는 13년 동안이나 치수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과 인력 등을 감안할 때 그 일은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치수사업이 문자가 없던 시대에 전설이 되어 오늘날과 같은 광대한 중국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전승되었고,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문헌상에서 확대·재생산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먼저 이리두 유적지 등을 통해 하왕조의 성격을 살펴보자.<sup>4)</sup>



〈그림1〉 이리두 문화 범위

출처 : <https://ja.wikipedia.org>

중국 학계에서는 하왕조의 실재성을 찾기 위해 관련 유적지와 유물 발굴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그 성과가 이리두 유적지에서 처음 발굴되었다. 이리두 유적은 1959년에 서옥생(徐旭生)에 의해 하남성 언사현에서 발견된 이래 현재까지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의 이리두공작대에 의해 계속 조사·발굴되고 있다.

먼저 이리두 유적의 시기와 출토품에 대해 살펴보자.

이리두 유적은 조기(早期)와 만기(晩期)로 크게 구분된다. 조기는 다시 1기와 2기, 만기는 3기와 4기로 나누어진다. 1기는 서기전 1900여 년 전후이고, 2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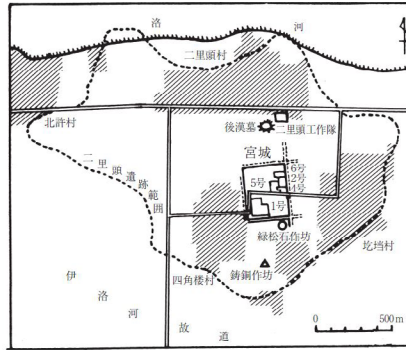
4) 유정희, 『하왕조, 신화의 장막을 걷고 역사의 무대로』, 아이네아스, 2016, 48-79쪽.

서기전 1800년이다. 3기는 서기전 1700년에서 서기전 1600년이고, 4기는 서기전 1600년에서 1500년이다.

이리두 초기에는 마석기(磨石器)류인 대패 · 자귀 · 칼 · 낫 · 끌이 출토되었고, 뼈로 만든 송곳 · 칼 등도 발견되었다. 이 도구들은 목축이나 농경,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 초기 문화에서 동(銅)으로 만들어진 송곳과 칼의 발견은 중국 동기시대(銅期時代)의 상한을 끌어올리는 중국 고고학의 성과로 일컬어진다. 또한 과상하게 생긴 짐승 모양의 동패식(銅牌飾)에 연녹색 석(石)이 상감된 동기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이외에 도기 거푸집과 녹물찌꺼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중국 역사학자 안금괴(1921-2001)는 그곳을 청동기 주조 작업장이라 추측했는데, 당시의 청동기는 특권층이 사용하던 물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그곳은 상당한 정치세력의 거점 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도기도 발견되었는데, 사흑도(砂黑陶)와 니질흑도(泥質黑陶)가 주류를 이루었고 일부 회도(灰陶)도 출토되었다. 그리고 도기인 작(爵)의 출현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한다. 작(爵)은 주대(周代)에 천자가 지방의 제후에게 하사한 권위 있는 청동예기(靑銅禮器)였기 때문이다.

이리두 만기에 이루어진 가장 획기적인 발굴은 궁궐터다. 그것은 3기 유적지로 동서 108m, 남북 100m에 이르는 정방형이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웅장한 규모였다. 이 궁궐터에서 서남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서 1970년대 말쯤 또 하나의 장방형 유적지가 발굴되었다. 이외에도 청동기 · 도기 · 골기 등을 주조했을 것으로 보이는 수공업장 유적지가 발굴되었다. 수공업장의 중요성이 매우 컸던 점으로 미루어 이리두 만기의 지배세력이 이곳에서 장기간 거주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이리두 만기에서 발견된 청동기로는 도(刀) · 작(爵) · 월(鉞) 등이 있다. 이 청동기들은 당시 특권층의 기물이었을 것이다,



〈그림2〉 이리두 유적

출처 : 江村治樹, 23쪽.

그러면 이리두 유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그 내용은 최근의 연구에 잘 담겨 있다. 에무라 하루키(江村治樹)는 지도와 함께 구체적인 모습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유적의 분포범위는 서쪽으로는 북허촌(北許村) 동부, 북쪽으로는 이리두촌(二里頭村), 동쪽으로는 을당촌(圪塔村), 남쪽으로는 사각루촌(四角樓村)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서 24km, 남북 1.9km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유경주(劉慶柱)의 정리에 따르면, 유적의 중심구역은 유적 남동부에서 중부 일대에 위치하는데, 거기에 궁전구역, 청동제작구역, 옥석기제작구역, 제사활동구역, 귀족거주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적 동남부의 궁전구역에는 다수의 중소규모의 판축건축기초가 분포하고 있고, 만기에는 방형의 궁성이 축조되었으며, 그 바깥둘레에는 직각으로 교차하는 큰길이 둘러싸고 있었다. 궁성 남부에는 규모가 큰 녹송석을 제작하는 장소가 있고, 궁성 주위에는 다수의 중소규모 판축건축기초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귀족거주구역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중규모의 중감 규모의 묘지가 분포하고 있다. 궁전구역 남쪽 200m에 1만㎡의 동기유조(銅器鑄造) 유적이 있으며, 도랑이 둘러쳐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사활동구역은 궁전구역 북쪽에 있으며, 그 범위 동서 2~300m 내에는 주거지나 묘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적지 내의 서부와 북부에는 일반거주 활동구역이 있고, 동부와 서부에는 각각 골기(骨器)와 도기의 제작 장소가 있었다.<sup>5)</sup>

요컨대 이상에서 살펴본 이리두 유적은 하왕조 존재의 진위를 가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에서 우리는 이리두 1기의 연대가 서기전 2100년경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이리두 2기는 서기전 1800~1750년경까지 올라가고 있음을 살폈다. 이는 하상주단대공정에서 획정한 하나라의 존속 연대를 서기전 2070~서기전 1600년이라고 밝힌 시간적 범위에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유적에서 발굴된 출토품은 청동기 시대의 것이고, 또 출토품에서 나온 작(爵)은 주대(周代)에 천자가 지방의 제후에게 하사한 권위 있는 청동예기(靑銅禮器)였던 것이다.

또한 이리두 유적은 오래 전에 은나라 초대 왕이었던 탕왕의 수도인 다박(多亳) 중 하나라는 전승이 있었는데, 그 전승은 탕왕이 하조를 멸망시키고 이곳을 부도(副都), 혹은 임시 수도의 하나로 사용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sup>6)</sup> 하지만 중국 역사학계의 새로운 연구 성과에 의하면, 한때는 탕도서박설(湯都西亳說)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도짐심설(夏都斟鄩說)이 일반적이고, 태강(太康)부터 걸(桀)까지의 하왕조 중만기 도성으로 간주되고 있다.<sup>7)</sup> 이에 더해 에무라 하루키(江村治樹)는 이리두 유적의 규모나 기능지역별 구역까지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5) 江村治樹, “夏南龍山・二里頭・殷周都市の特質: 2011年中國古代都市遺跡調查報告,”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58, 2012, 22쪽.

6) 유정희, 앞책, 79쪽.

7) 江村治樹, 앞논문, 24쪽. 江村治樹의 논평은 李麗娜, “中原地區虞夏時期城址的比較研究,” 『中原文物』 2009-4, 41쪽과 秦文, “舜都于淮陽平糧臺龍山文化古城考,” 『中原文物』 1991-4, 45쪽에 근거하고 있다.

## 2) 하상주단대공정

하상주단대공정은 중국에서 기록이 존재하기 이전 시대인 서주(西周)부터 하왕조 성립 이전까지의 연대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공정은 ‘하상주 연대구축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 청화대학(淸華大學) 역사학과 이학근(李學勤) 교수가 총 책임자가 되어 1996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00년 9월까지 총 20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고대사를 재편하는 작업이다.<sup>8)</sup>

기존 문헌이 남아있는 중국의 역사시대는 주나라 원년인 서기전 841년이 상한이었다. 중국은 존속 연대가 불명확한 하상주의 설립과 멸망 연대를 확정하기 위해 국가 기획으로 하상주단대공정을 시작한 것이다. 이 하상주단대공정의 결과에 의하면 3대의 존속 연대는 아래와 같다. 『북경만보(北京晚報)』 2003년 10월 2일 자에 최종적으로 발표된 하상주연표(夏商周年表)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다. 하상주단대공정을 통해 공식 입장이 된 3대의 존속 연대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하(夏)는 서기전 2070~서기전 1600년이다.

둘째 상(商)은 서기전 1600~서기전 1046년이다.<sup>9)</sup>

셋째 주(周)는 서기전 1046~서기전 771년이다.

“하나라 존속 연대의 공식화는 중국 역사 시대를 무려 1229년이나 끌어올린 것이다”라고 했다.<sup>10)</sup>

심재훈<sup>11)</sup>에 의하면 하상주단대공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치적인 것과 학술

8) 조용준, “중국 고대사 서술 현황 고찰: 하상주 연대구축 프로젝트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008, 93쪽.

9) 상나라 19대 반경왕(盤庚王)이 도읍을 은(殷)으로 옮긴 것은 서기전 1300년이고, 은(殷)으로 도읍을 옮긴 후를 흔히 상(商)과 구별하여 은(殷)이라고 한다.

10) 우실하, 『동북공정 넘어 요하문명론』, 소나무, 2014, 36~37쪽.

11) 심재훈, “하상주단대공정과 信古 경향 고대사 서술”, 『韓國史學史學報』, 16호, 단국대학교, 2007.



적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치적 배경으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기에 따른 민족부흥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단대공정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민족의 뿌리 찾기가 문화적 일체성과 정신적 통일을 가져다주어 중국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이나 중화문명탐원공정 등 다른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단대공정에 뒤이은 것을 보면 이러한 일련의 국책사업들은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공정들은 1990년대 이후 중국에 불어닥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열풍에 동승하여 중국의 소수민족과 다양한 계층을 일체화시키려는 기대감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학술적 배경으로는 『사기』 출간 이래 유흠(劉歆; 서기전 ?-서기전 23)이나 황보밀(皇甫謐; 215-282) 같은 당대의 석학들이 하상주 3대의 연대 추정을 시도했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2천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학술 현안을 들 수 있다. 19세기 말 갑골문 발견은 중국 고대 기년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었고, 고대 기년에 관한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종래의 문헌에 상나라 후기의 일식과 월식 등 천문학 자료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갑골문 연구에 자극받아 역일(曆日)을 담고 있는 많은 서주 청동기 금문(金文)도 활용함으로써 20세기 학자들은 훨씬 좋은 여건에서 기년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하나라의 연대 확정도 중국 학계에서 하(夏)의 후기 도움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리두 유적지에서 얻은 과학적 연대측정이 더해져 더욱 탄력을 받았다.

이런 점으로 보아 중국의 하상주단대공정은 학술연구 프로젝트라는 목적에 더하여 중국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 하는 정치적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 3. 우공구주(禹貢九州)의 허구성과 하나라의 실제 강역

#### 1) 우공구주의 허구성

우공구주의 내용이 담긴 중국 문헌은 『사기 하본기』, 『서경 우공』, 『한서 지리지』, 『여씨춘추 유시람』, 『주례 직방』 등에 나온다. 이 문헌들에 의하면 우(禹)가 개척했다는 9주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동쪽의 동해에서 서쪽의 감숙성 일대, 남쪽의 양자강 이남에서 북쪽의 내몽골 지역까지 이른다.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인 진시황의 진(秦) 제국보다 더 넓었다. 중국은 고대부터 황하에서 발생하는 홍수로 인해 수많은 도시와 마을이 휩쓸리는 경우가 있었던 점들을 고려하면 농작물이나 가옥은 물론, 많은 인명 피해도 매우 컸을 것이다. 따라서 왕이나 군주들에게 치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였을 것이다.

『사기 하본기』에 의하면 요임금 때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어 백성들이 큰 시름에 잠기게 되자 물을 다스릴 사람을 찾고자 했다. 여러 신하들이 곤(鯀)을 추천했으나 요임금은 백성들을 교화하라는 명을 거역하고 우리 가문을 어지럽혔으니 등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신하들이 곤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시험 삼아 치수를 맡겼더니 9년이 지나도록 범람하는 홍수를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 요는 후임자로 순에게 선양하여 순이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자 순은 치수에 실패한 곤을 우산(羽山)으로 귀양 보내고 곤의 아들 우(禹)를 등용하여 아버지가 못다 한 치수사업을 완수하게 했다. 우는 13년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여 9주의 땅을 개척하고 9주의 수로를 뚫으며, 9개의 큰 호수를 만들고 9개의 산을 개통했다.

그러면 『사기 하본기』<sup>12)</sup>에 나타난 우(禹)의 치수 사업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라 도읍이 있는 기주(冀州)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호구산(壺口山)

12) 박일봉 역저, 『사기본기』, 육문사, 2012, 55-64쪽.

을 다스린 다음 양산(梁山)과 기산(岐山)을 다스렸다. 그리고 태원 지구를 다스린 다음 태악산(太岳山) 남쪽 기슭 일대까지 다스렸다. 담회(覃懷) 지방을 다스린 다음 장수(漳水)가 황하로 흘러드는 곳까지 다스렸다. 상수(常水)와 위수(衛水)를 소통시키자 대륙호(大陸湖)가 완전히 다스려졌다. 이에 조이족(鳥夷族)은 가죽옷을 공물로 바쳤다. 기주 동북쪽의 공물들은 배에 실려 발해에서 갈석산을 오른쪽으로 끼고돌아 황하로 들어와 운송되었다.

둘째는 연주(沈州)다. 제수(濟水)와 황하 사이의 땅이다. 우는 연주 일대에 수로 아홉 개를 터 주었고, 뇌하(雷夏)를 호수로 만들어 웅수(雍水)와 저수(沮水)를 이곳으로 흘러들게 했다. …… 그곳의 공물들은 제수(濟水)와 탐수(漯水)를 거쳐 황하로 들어와 도읍으로 운송되었다.

셋째는 청주(靑州)다. 태산에서 동쪽 바다에 이르는 땅이다. 우는 먼저 우이(隅夷)를 다스리고 다시 유수(濰水)와 치수(淄水)의 수로를 잘 소통시켰다. …… 이 밖에 태산 계곡에서는 명주실, 모시, 납, 소나무 및 희귀한 돌을 바쳤다. 래이족(萊夷族)으로 하여금 방목하게 하니 여러 가지 축산물을 바쳐왔다.

넷째는 서주(徐州)다. 태산에서 남쪽의 회수(淮水)와 바다 서쪽에 이르는 땅이다. 우는 회수와 기수(沂水)를 다스리고 몽산(蒙山)과 우산(羽山)을 개척하게 되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대야(大野)의 호수를 잘 막아 놓으니 동원(東原) 지구가 안정을 되찾고 번영하게 되었다. …… 또 회수(淮水)가에 모여 사는 회이족(淮夷族)은 진주와 물고기를 바쳐왔다. 서주 사람들이 공물을 바칠 때는 회수와 사수(泗水)에서 배에 실어 황하를 통해 도읍으로 운송되었다.

다섯째는 양주(揚州)다. 회수 남쪽과 바다 서쪽에 이르는 땅이다. 우가 팽려호(彭蠡湖)를 막아 놓으니 기러기가 몰려와 살게 되었고, 세 강물이 소통되어 바다로 흘러들게 되자 진택(震澤) 지구가 안정을 되찾았다. …… 섬에 사는 오랑캐들이 풀로 만든 옷을 바쳤다.

여섯째는 형주(荊州)다. 북쪽의 형산(荊山)부터 남쪽의 형산(衡山) 기슭에 이

르는 땅이다. 우가 장강(長江)과 한수(漢水)의 물을 이곳에서 바다로 흘러들게 했다. 이렇게 되자 9개 지류(九江)가 장강(長江) 중류로 흘러들게 되었다. 또 타수(沱水)와 잠수(涪水)의 수로를 잘 터서 원활하게 소통시키자 운택(雲澤)과 몽택(夢澤)이 잘 다스려지게 되었다.

일곱째는 예주(豫州)다. 형산(荊山) 북쪽부터 황하 남쪽에 이르는 땅이다. 우는 이수(伊水), 낙수(洛水), 전수(澗水), 간수(澗水)의 수로를 소통시켜 모두 황하로 흘러들게 했으며, 형파(滎播)에 큰 호수를 이루게 하고 또한 하택(河澤)과 맹저호(孟豬湖)의 물길을 내어 원활히 소통시켰다.

여덟째는 양주(梁州)다. 화산(華山) 남쪽 기슭에서 흑수(黑水)에 이르는 땅이다. 민산(岷山)과 파총산(岷冢山) 일대는 이미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타수(沱水)와 잠수(涪水)가 이미 소통되어서 채산(蔡山)과 몽산(蒙山) 지방도 잘 다스려지게 되었다. 그 덕분에 화이(和夷) 지방에도 수익이 생기게 되었다.

아홉째는 웅주(雍州)다. 흑수에서 서하(西河) 서쪽에 이르는 땅이다. 약수(弱水)를 서쪽으로 소통시키고 경수(涇水)를 위수로 흘러들게 하자 칠수(漆水)와 저수(沮水)가 순조롭게 위수(渭水)로 흘러들었다. 형산(荊山)과 기산(岐山)을 다스리고 여제(旅祭)를 지냈다. 그리고 종남산(終南山)과 둔물산(敦物山)을 거쳐 조서산(鳥鼠山)에 이르는 지방을 다스렸다. 지대가 높은 곳 낮은 곳 할 것이 없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저야호(豬野湖)까지도 그 혜택이 미쳤다. 그리하여 삼위산(三危山) 지방이 안정을 되찾게 되자 삼묘족(三苗族) 등이 질서를 준수하게 되었다. …… 그 가운데 곤륜(崑崙), 석지(析支), 거수(渠搜)에서는 짐승의 털가죽으로 만든 용단을 보내왔다. 이처럼 곤륜, 석지, 거수 부락에 모여 살던 서융까지 우(禹)의 공에 힘입어 조공을 바치며 귀의해왔던 것이다.

우(禹)는 아홉 산맥을 다스리고 개발했다. 건산(汧山)과 기산(岐山)을 다스리고 형산(荊山)을 다스렸다. 그리고 황하를 건너 호구산(壺口山)과 뇌수산(雷首山)을 거쳐 태악산(太岳山)에 이르렀다. 또 지주산(砥柱山)과 석성산(析城山)을

거쳐 왕옥산(王屋山)에 이르렀다. 태행산(太行山)과 상산(常山)을 거쳐 갈석산(碣石山)에 이르렀고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다. 다시 서경산(西傾山), 주어산(朱圉山), 조서산(鳥鼠山)을 거쳐 화산(華山)에 이르렀다. 또 웅이산(熊耳山), 외방산(外方山), 동백산(桐栢山)을 거쳐 부미산(負尾山)에 이르렀다.

우는 다시 파충산(蟠冢山) 일대를 다스리고 난 다음 형산(衡山)에 다다르고, 내방산(內方山)을 거쳐 대별산(大別山)에 이르렀다. 문산(汶山)의 남쪽 일대를 다스리고 난 다음 형산(衡山)에 이르렀고, 형산과 여산(廬山) 사이의 구강(九江) 일대를 다스렸으며, 마침내는 구강(九江)을 지나 부천원(敷淺原)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우(禹)는 또 아홉 강의 흐름을 원활히 소통시켰다. 약수(弱水)가 원활히 흐르도록 하기 위해 합려산(合黎山) 기슭에 물길을 냈다. 그리하여 수량이 줄고 물살이 약해진 나머지 강물은 유사택(流沙澤)으로 흘러들게 했다. 다음에는 흑수(黑水)의 물꼬를 터서 삼위(三危)를 거쳐 남쪽 바다로 유입하게 했다. 그후 황하의 물길을 내어 적석산(積石山)부터 다스리기 시작하여 용문산(龍門山)에 이르렀다. 남쪽으로는 화산(華山) 북쪽으로 흐르게 했고, 동쪽으로는 지주산(砥柱山) 기슭으로 흐르게 했다. 동쪽으로 맹진(孟津)에 이르고 다시 동쪽으로 낙수(洛水)에 합류하여 대비산(大邳山) 기슭으로 흐르게 했다. 다시 북쪽으로 아홉 가닥의 지류로 나뉘어 흐르게 한 뒤 역하(逆河) 부근의 하류에 이르러 다시 합류하게 하여 바다로 흘러들게 했다.

또 파충산(蟠冢山)부터 시작하여 양수(潒水)의 물꼬를 터서 원활히 소통시켜 동쪽으로 흐르게 하니, 이것이 한수(漢水)를 이루었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가 창랑수(滄浪水)를 이루게 되었다. 다시 삼서수(三潒水)를 지나 대별산(大別山)에 이르게 하고, 남쪽 장강으로 흘러들게 했으며, 팽려호(彭蠡湖)와 합류하게 했다. 또 동쪽으로 흐르는 북상(北江)은 곧장 바다로 흘러들게 했다.

장강(長江)은 민산(岷山)에서 발원했다. 동쪽으로 나뉘어 흐르는 지류는 타수

(沱水)를 이루었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 예수(澧水)를 이루었다. 구강을 지나 동릉(東陵)에 이르러 그곳에서 동북쪽으로 비껴 흐르다가 북쪽 팽려호에 합류되었다. 또 동쪽으로 흐르는 중강(中江)은 바다로 유입되었다. 다음에는 연수(沔水)의 물길을 터서 동쪽으로 흐르게 하니 제수(濟水)를 이루어 황하로 유입되었다. 강물이 다시 넘쳐흐르자 형호(滢湖)에 모이게 했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도구(陶丘)의 북쪽을 지나게 하여 다시 동쪽으로 흘러 하택(河澤)에 다다르고, 다시 동북쪽으로 흐르게 하여 문수(汶水)와 합류하게 한 다음 다시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하게 했다.

회수(淮水)를 다스리기 위해 동백산(桐栢山)부터 막힌 물길을 터서 소통시키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사수(泗水)와 기수(沂水)를 합류하게 한 다음 다시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하게 했다.

위수(渭水)를 다스리기 위해 조서산(鳥鼠山)부터 막힌 물길을 트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흘러 예수(澧水)와 합류하게 하고 다시 동북쪽으로 흘러 경수와 합류하게 한 다음 다시 동쪽으로 흘러 칠수와 저수를 합류시킨 후 동쪽으로 흘러 황하로 유입되게 했다.

낙수(洛水)의 물꼬를 트는 일은 웅이산(熊耳山)부터 시작했다. 낙수를 동북쪽으로 흐르게 하여 간수(澗水) 및 전수(灋水)와 합류하게 한 다음, 다시 동쪽으로 흘러 이수(伊水)와 합류시켜 동쪽으로 흘러 황하로 들어가게 했다.

이리하여 9주가 모두 동일하게 되었고, 사방의 구석진 곳까지 어디서나 사람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다. 나라의 모든 산이 개발되어 다스려지게 되었으며, 모든 강물의 발원지부터 물꼬를 터서 흐름을 원활하게 하니 다시는 물길이 막히는 염려가 없게 되었다. 또 모든 호수에 제방을 쌓아 안전하게 물을 가두어 두었다. 그리하여 천하의 사람들이 귀의하고 복종하게 되었다.

다음은 『사기 하본기』에 기술된 우궁구주의 주요 지명을 위치 비정해보자.<sup>13)</sup>

13) 이용원 해역, 『한서 지리지·구역지』, 자유문고, 2007, 24-44쪽(주석 참고, 『서경 우궁』 편에 나오는 송

## ■ 기주(冀州)지역

- 호구산(壺口山)－『한서 지리지』에 하동군 북굴(北屈)현이 있는데, 우공(禹貢)의 호구산이 그 동남쪽에 있다. 지금의 산서성이다.
- 양산(梁山)－양산은 여량산(呂梁山)이다. 송대(宋代)의 석주(石州) 이석현(離石縣) 동쪽에 있다. 지금의 산서성이다.
- 기산(岐山)－송대(宋代)의 분주(汾州) 개휴현(介休縣)에 있다. 지금의 산서성이다.
- 태원(太原)－서한의 진양(晉陽)이다. 지금의 산서성이다.
- 태악산(太岳山)－『한서 지리지』에 하동군 체(隰)현이 있다. 그 동쪽에 괄대산(霍大山)이 있으며, 괄대산은 곧 태악이다. 태원의 서남쪽에 있다. 지금의 산서성 괄현 동남쪽이다.
- 담회(覃懷)－『한서 지리지』에 하내군 회(懷)현이 있다. 송대(宋代)의 회주(懷州)다. 지금의 하남성 무척(武陟)이다.
- 항수(恒水)－『한서 지리지』에 상산군 상곡양현(上曲陽縣)이 있다. 우공의 항수가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구수(滹水)로 들어간다.
- 위수(衛水)－『한서 지리지』에 상산군 영수현(靈壽縣)이 있다. 우공의 위수가 동북쪽에서 발원하여 호지(洹池)로 들어간다.
- 대륙호(大陸湖)－지금의 하북성 거록(巨鹿) 인근에 있다. 『중국역사지도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갈석산(碣石山)－『한서 지리지』에 우북평군 여성현(驪成縣) 서남쪽에 대계석산(大碣石山)이 있다. 송대(宋代)의 평주(平州) 남쪽이다. 지금의 하북성 창려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서쪽과 남쪽의 하수를 경계로 북동쪽의 창려까지 이르는

---

나라 주희의 제자인 채침의 『서경집전』 주석을 저본으로 안사고가 주석을 보탬.) 『한서지리지』와 『중국역사지도집』을 참고해서 현재 중국에서의 위치를 비정했다.

땅으로 주로 지금의 산서성과 하북성 일부에 해당한다.

#### ■ 연주(兗州)지역

- 뇌하(雷夏)—『한서 지리지』에 제음군 성양(成陽)현이 있다. 우공의 뇌택(雷澤)이 서북쪽에 있다. 송대(宋代)의 복주(濮州) 뇌택(雷澤)현 서북쪽에 있다. 지금의 산둥성이다.

위 내용에 근거하면 제수(濟水)와 황하(黃河) 사이에 위치한 땅으로 지금의 산둥성 서부 일대에 해당한다.

#### ■ 청주(靑州)지역

- 우이(嶧夷)—양곡(陽谷)이며, 동해변을 가리킨다.
- 래이(萊夷)—래산(萊山)에 사는 이족이다. 지금의 산둥성 황현(黃縣)이다.
- 유수(濰水)—『한서 지리지』에 낭야군 기현(箕縣)이 있다. 우공의 유수가 북쪽으로 흘러 도창현(都昌縣)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
- 치수(淄水)—『한서 지리지』에 태산군 내무(萊蕪)현이 있다. 원산(原山)에서 치수가 나와 동쪽으로 흘러 박창(博昌)현에 이르러 제수로 들어간다.
- 문수(汶水)—『한서 지리지』에 태산군 내무(萊蕪)현이 있다. 우공의 문수가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제수로 들어간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동쪽 바다와 서쪽 태산(泰山)에 이르는 땅이다. 지금의 산둥성 동부 일대에 해당한다.

#### ■ 서주(徐州)지역

- 몽산(蒙山)—『한서 지리지』에 태산군 몽음(蒙陰)현이 있다. 우공의 몽산이 서남쪽에 있다.
- 우산(羽山)—『한서 지리지』에 동해군 축기(祝基)현이 있다. 우공의 우산이 남



쪽에 있다. 곤(鯤)이 죽임을 당한 곳이다.

- 대야호(大野湖)－『한서 지리지』에 산양군 거야(鉅野)현이 있다. 대야택(大野澤) 북쪽에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동쪽 바다와 태산(泰山)·회수(淮水)에 이르는 땅으로 지금 산둥성과 강소성 일대에 해당한다.

#### ■ 양주(揚州)지역

- 팽려호(彭蠡湖)－『한서 지리지』에 예장군 팽택(彭澤)현이 있다. 우공의 팽려택(彭蠡澤)이 서쪽에 있다. 지금의 강서성 지역에 있는 파양호를 가리킨다.
- 진택(震澤)－『한서 지리지』에 회계군 오(吳)현이 있다. 구구택(具區澤)이 서쪽에 있는데 양주의 큰 높이며, 고문(古文)에는 진택이라 했다. 지금의 강소성과 절강성에 걸쳐 있는 태호(太湖)를 가리킨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회수(淮水) 남쪽과 바다에 이르는 땅으로 지금의 강소성과 절강성, 강서성 일대에 해당한다.

#### ■ 형주(荊州)지역

- 형산(荊山)－『중국역사지도집』의 호북성 남장(南漳)현 양양시 서남쪽에서 볼 수 있다.
- 형양(衡陽)－『중국역사지도집』의 호남성 형산(衡山)현에서 볼 수 있다.
- 구강(九江)－『한서 지리지』에 여강군 심양(尋陽)현이 있다. 우공의 구강이 남쪽에 있는데 모두 동쪽에서 합쳐 큰 강이 된다.
- 운몽(雲夢)－『중국역사지도집』에서 장강(長江) 남쪽에 있는 두 호수를 볼 수 있는데, 운택과 몽택이 그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북쪽의 형산(荊山)과 남쪽의 형산(衡山)에 이르는 땅으로 지금의 호북성과 호남성 일대에 해당한다.

### ■ 예주(豫州)지역

형산(荊山) 북쪽에서 황하 남쪽에 걸친 땅으로 지금의 낙양을 중심으로 하남성 일대에 해당한다.

### ■ 양주(梁州)지역

- 화양(華陽)-화산(華山)의 남쪽에 있다. 지금의 섬서성이다.
- 민파(岷嶓)-민산(岷山)과 파총산(嶓冢山)을 말한다. 『한서 지리지』에 촉군 전저도(湔氏道)현이 있다. 우공의 민산(岷山)이 서쪽 변경밖에 있는데 강수(江水)가 발원하는 곳이다. 지금의 사천이다. 또 『한서 지리지』에는 농서군 서(西)현이 있는데, 우공의 파총산에서 서한수(西漢水)가 발원한다. 파총산이 지금의 섬서성 영강(寧羌)현에 있는데 반총산(潘冢山)이라고도 하고, 한수(漢水)의 발원지라 한다. 지금의 감숙성 남부지역이다.
- 타수(沱水)-『한서 지리지』에 촉군 비(郫)현이 있다. 우공의 강타(江沱)가 서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흘러 대강(大江)으로 들어간다.
- 잠수(潛水)-『한서 지리지』에 파군 탕거(宕渠)현이 있다. 잠수가 서남쪽으로 흘러 강수(江水)로 들어간다.
- 서경산(西傾山)-『한서 지리지』에 농서군 임조(臨洮)현이 있다. 우공의 서경산이 현의 서쪽에 있다. 지금의 칭해성과 감숙성 남부지역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양주지역은 화산(華山) 남쪽에서 흑수(黑水)에 이르는 땅으로 지금의 섬서성 일부와 사천성 일대에 해당한다.

### ■ 용주(雍州)지역

- 흑수(黑水)-지금의 감숙성 감주(甘州)에 있는 장액계산(張掖鷄山)에 수원을 두고 남으로 돈황을 거쳐 남해로 빠졌다고 한다.

- 약수(弱水)－『한서 지리지』에 장액군 산단(刪丹)현이 있다. 상흠(桑欽)은 여기서부터 약수가 되어 서쪽으로 흘러 주천군(酒泉郡)에 이르러 여수(黎水)와 합쳐진다고 했다. 지금의 감숙성 지역이다.
- 경수(涇水)－『한서 지리지』에 안정군 경양(涇陽)현이 있다. 견두산(犍頭山)이 서쪽에 있는데, 우공의 경수가 발원하며 동남쪽으로 흘러 양릉현에 이르러 위수(渭水)로 들어간다. 우주의 대표적 하천이다.
- 형산(荊山)－『한서 지리지』에 좌풍익(左馮翊) 회덕(裒德)현이 있다. 우공의 북조 형산이 남쪽에 있다. 지금의 섬서성이다.
- 기산(岐山)－『한서 지리지』에 우부풍(右扶風) 미양(美陽)현이 있다. 우공의 기산이 서북쪽에 있다. 지금의 섬서성이다.
- 종남산(終南山) · 돈물산(敦物山)－『한서 지리지』에 우부풍(右扶風) 무공(武功)현이 있다. 태일산(太壺山)은 고문(古文)에 종남산이라 했다. 수산(垂山)은 고문에 돈물산(敦物山)이라 했다. 모두 현의 동쪽에 있다. 지금의 섬서성이다.
- 삼위산(三危山)－여러 설이 있지만, 지금의 감숙성 돈황현 남쪽에 비정된다.
- 용문산(龍門山)－지금의 산서성 하진(河津)과 섬서성 한성(漢城) 사이에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흑수(黑水)에서 서하(西河) 서쪽에 이르는 땅으로 지금의 섬서성 일부와 감숙성 일대에 해당한다.

위에서 『사기 하본기』, 『한서 지리지』, 『중국역사지도집』에 나타난 주요 지명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우공구주의 영역을 확정하면 동쪽의 동해안에서 서쪽의 감숙성 · 섬서성 · 사천성 일대, 남쪽의 형산(衡山)에 이르는 호남성 일대와 북쪽의 탁록이나 창려를 넘지 않는 산서성과 하북성 일대에 해당하고 있다. 〈그림3〉은 중국에서 그린 우공구주도다. 여기에는 하(夏)나라에 이어지는

상(商)나라, 주(周)나라,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물론, 진시황이 전국시대의 6국을 통일한 진(秦)제국보다 오히려 넓게 표시되어 있다.



〈그림3〉 중국 백두백과의 우공구주도

중국의 하상주단대공정에서는 하나라의 존속기간을 서기전 2070~1600년으로 정했다. 그렇다면 우(禹)가 9주를 개척한 시기는 서기전 2070년 이전이 되는데, 이때 우가 개척한 영역이 이렇게 넓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고힐강은 2015년에 『국사강화:상고(國史講話:上古)』<sup>14)</sup>라는 책을 출간했다. 거기서 그는 하殷周(夏殷周) 시기의 강역과 세력을 나타낸 지도를 수록했다. 그 지도는 우공구주 영역과 비교할 때 훨씬 작은 강역으로 그려져 있으며, 고힐강과 같은 상황은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우가 개척했다는 9주의 영역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한다.

고대 오제(五帝)시기 순임금 때 우가 홍수 방지를 위한 치수 사업을 벌여 그 넓은 9주를 개척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왕조 시기의 실제 영역과 후대 상주(商周)의 영역이 우공구주의 개척보다 현저히 축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서 지리지』에서 특히 옹주(雍州)지역의 약수(弱水)는 장액군(張掖郡) 산단(刪丹)현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흘러서 주천군(酒泉郡)에 이르러 여수(黎水)와 합쳐진다고 했다. 이 지역은 감숙성 지역이다. 감숙성 지역이 중국의 강역이 된 것은 서한(西

14) 顧頡剛, 『國史講話:上古』, 上海世紀出版股份, 2015, 1-211쪽.

漢)의 한무제(漢武帝) 때다. 『한서 무제기』를 보면 원수 2년(서기전 121)에 “가을 흉노의 혼아왕이 휴도왕을 죽이고, 그 무리 4만여 명을 함께 거느리고 투항하니 5개 속국을 설치하여 그곳에 살게 했다, 그 땅을 무위군(武威郡)과 주천군(酒泉郡)으로 삼았다”<sup>15)</sup>라고 했다. 이 주천군과 무위군은 감숙성 지역으로 이때 최초로 서쪽 강역을 확대한 것이다.

원정 6년(서기전 111)에 “무위군(武威郡)과 주천군(酒泉郡)을 나누어 장액군(張掖郡)과 돈황군(敦煌郡)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이주하여 그곳에 살게 했다”<sup>16)</sup>라고 한 점으로 보아, 지금의 감숙성 지역으로의 강역 확대는 한무제(漢武帝)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왕조의 시조인 우임금이 개척했다는 우공구주 강역과 한무제 시기에 확장된 전한의 그것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우(禹)가 9주를 개척한 시기는 순(舜) 임금 때로 하왕조의 개국 연도(서기전 2070)보다 이른 시점이다. “우(禹) 시기는 신석기 말에서 청동기 초기였음을 고려할 때, 많은 학자들은 우의 치수 공사가 당시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상식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이다”<sup>17)</sup>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리두 초기에 출토된 생산 도구로는 마석기류인 산(鏟)·분(鏟)·도(刀)·낫·작(鑿) 등과 뼈로 만든 추(錐)·도(刀) 등이 있으며, 동추(銅錐)와 동도(銅刀)도 있다. 이리두 만기에 발굴된 유적지에는 정방형의 궁궐터가 있고, 청동기로는 도(刀)·작(爵)·월(鉞) 등이 있다. 이 시기에 발굴된 이러한 도구와 기술로는 치수 사업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게다가 이들 유물은 치수 사업보다 훨씬 후대에 생산되었을 것이다.

황하와 그 지류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을 축조하고, 수로를 연결하고,

15) 秋，匈奴昆邪王殺休屠王，并將其眾合四萬餘人來降，置五屬國以處之。以其地為武威、酒泉郡

16) 乃分武威、酒泉地置張掖、敦煌郡，徙民以實之

17) 유정희, 앞책, 141쪽.

호수(저수지)를 조성하고, 산길을 내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력과 자재,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토목공사다. 더욱이 황하는 5,464km에 달하는 장대한 강이다. 지류도 수없이 많다. 여기에다 회수(淮水)와 장강(長江)까지 포함하면 실로 광대한 범위에 이르고 있다. 우의 치수 사업에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 2) 하나라 실제 강역

하(夏)의 세력권은 현재 고고학적 성과와 옛 전설, 문헌 사료를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하나라는 하남·하북·산서·산둥 일대를 통치했다. 문헌 사료에 나타난 하대의 도시로는 양성(陽城)·안읍(安邑)·짐관(斟灌)·짐심(斟鄩) 등이 있다. 이들 지명에 대한 위치 비정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하남성과 산서성 일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문헌사료에 의한 강역을 살펴보자. 부사년의 『이하동서설』에는 고대문헌을 인용해 하왕조 영역을 비정한 내용이 나온다. 그것에 따르면 『춘추좌전』 희공 31년에 “위(衛)나라가 도읍을 제구(帝丘)로 옮겼다. …… 위나라 성공(成公)의 꿈에 시조 강숙(康叔)이 나타나 말했다. ‘상(相)이 내 제수(祭需)를 빼앗아갔다’고 했다. ‘상(相)은 하후제 계(啓)의 손자이며, 제 중강(中康)의 아들로 제구에 살았다. 『춘추좌전』 희공 32년에 “효산(穀山)에는 이릉(二陵)이 있다. 남릉은 하후(夏后) 고(皐)의 묘가 있는 곳이다”라고 했으며, 또 『한서집주(漢書集注)』에 의하면 “급군고문(汲郡古文) 본에는 하후 상(相)이 짐관(斟灌)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동군의 관이 이곳이다”라고 했다. 『춘추좌전』 정공 4년에 “당숙에게 …… 하허(夏墟)를 강역으로 봉하여 하의 정치를 펼치게 하고”라고 하여 진(晉)나라가 하의 본래 강역이었음을 보여준다.

『국어 주어(周語) 上』에 의하면 “유왕(幽王) 2년에 서주에서 경수(涇水)·위수

(渭水)·낙수(洛水)의 세 강 유역에 모두 지진이 일어났다. 주나라 대부 백양보(伯陽父)는 …… 예전에 이수(伊水)와 낙수가 마르자 하나라가 망했고, 하수(河水)가 마르자 상나라가 망했다”라고 했다. 생각건대 이수와 낙수가 하(夏)에 해당함은 서주의 세 하천인 경수·위수·낙수가 주(周)에 해당하고, 하수가 은(殷)에 해당함과 같으니 이에 근거하면 하의 지리 위치는 이수와 낙수가 본연의 강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옛날 하(夏)가 흥기할 때 축융(祝融)이 숭산(崇山)에 강림했다”라고 했다. 위소(韋昭)의 주석에 의하면 “숭(崇)이란 숭고산(崇高山)이다. 하나라는 양성(陽城)에 자리 잡았으며, 숭고산에서 가까운 곳이다”라고 했다.

그러면 고고학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리두 유적지의 세력 분포는 섬서부터 하남 동부까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지는 않다. 이것은 당시 하(夏)가 초기국가로서 가지는 세력권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라의 도읍은 상조(商朝)와 마찬가지로 몇 번에 걸쳐 천도했다. 개국왕인 우(禹)는 안읍(安邑)에 도읍을 정하고, 또 우는 처음 제위를 받기를 거부하며 양성(陽城)에 은거했다. 하조(夏朝)의 2대 왕인 계(啓)는 아버지의 도읍에 머물지 않고 낙수의 북쪽 분지로 천도하게 되는데, 그곳은 하남성 동북쪽, 곧 산서성 접경지대다. 그 후 계의 아들인 태강(太康)이 산동성의 제후 유궁(有窮)의 후예(后)를 피해 달아난 곳이 하의 동성(同姓) 제후국인 짐심·짐관 등이다. 이곳은 지금의 이하(伊河) 북쪽, 즉 하남성 북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된다. 태강의 동생 중강(仲康), 그의 아들 상(相)이 또한 후예의 자리를 대신한 한착(寒挾) 일당에게 쫓겨 달아난 곳이 제구(帝丘)였으니 이 또한 도읍이다.”<sup>18)</sup>

위에 살펴본 하나라의 도읍지로 지명된 숭산(嵩山)·안읍(安邑)·양성(陽城)·낙수(洛水)의 북쪽 분지, 짐심·짐관 등이 소재한 지역은 하남성의 북부지역과 산서성 남부지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8) 위책, 130-131쪽.



〈그림4〉 이리두 유적 분포

하왕조 때의 것으로 일컬어지는 이리두 유적 분포도(〈그림4〉)를 보면 현재의 하남성·섬서성 동부 일부와 산서성 남부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sup>19)</sup> 부사년(傅斯年)<sup>20)</sup>도 『이하동서설(夷夏東西說)』에서 여러 자료에 근거해 하(夏)의 강역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지금의 산서성 남쪽 절반, 곧 분수(汾水) 유역과 지금의 하남성 서부와 중부 지역이다. 이는 이락(伊洛)과 숭고(嵩高) 일대를 포함한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으로는 평한선(平漢線)<sup>21)</sup>을 넘지 않았고, 서로는 섬서(陝西)의 일부분을 차지하여 곧 위수(渭水)의 하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힐강의 『국사강화:상고』에 제시된 하·상·주의 강역과 우공구주를 비교해보아도 우공구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그림5·6·7〉).<sup>22)</sup>

뿐만 아니라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sup>23)</sup>에도 하(夏)의 주요 도시로 일컬어지는 안읍(安邑)·양성(陽成)·짐관(斟灌)·짐심(斟尋)·제구(帝丘)·노구(老丘)·원(原)·평양(平陽) 등의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들 도시가 위치한 것을 보면 하남성 일부와 산서성 일부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8〉).

19) 유정희, 앞책, 1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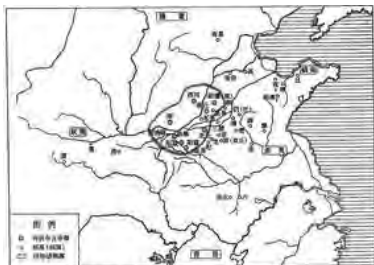
20) 傅斯年, (정재서 역주), 앞책, 150쪽.

21) 위책, 북경(北京)에서 한구(漢口) 사이, 지금의 호북성 무한시(武漢市)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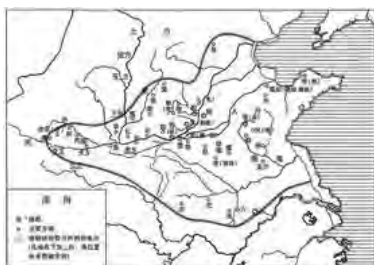
22) 顧頡剛, 앞책, 13쪽, 58쪽, 71쪽.

23)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第1冊, 中國地圖出版社, 1982, 9-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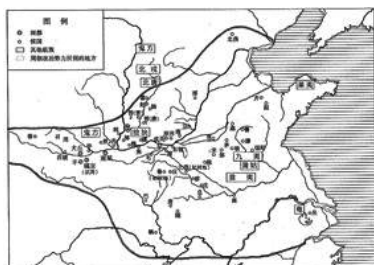




〈그림5〉 고희강의 『국사강화』에 제시된 하대(夏代) 형세도



〈그림6〉 고희강의 『국사강화』에 제시된 상대(商代) 형세도



〈그림7〉 고희강의 『국사강화』에 제시된 서주(西周) 형세도



〈그림8〉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제1책)에 제시된 하대(夏代) 형세도(安邑, 帝丘 부근)

고힐강, 부사년, 담기양이 제시하는 하왕조(夏王朝)의 실제 세력권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하남성 북부지역과 산서성 남부지역에 걸친 범위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황하 중류에서도 하류 구간<sup>24)</sup>에 속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리두 유적지 분포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 4. 결론

우공구주(禹貢九州)는 중국 고대의 지리 개념으로서 중국에서는 한족의 선민족인 하후(夏后) 씨의 우두머리였던 대우(大禹)가 치수 사업을 완성하여 구획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기 하본기』 이외에도 『서경 우공(禹貢)』, 『이아(爾雅) 석지(釋地)』, 『주례 직방(職方)』, 『여씨춘추 유시람(有始覽)』 등에 9주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서로 달라서 9주의 개념과 그 형성 시기를 놓고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한서 지리지』에 주나라가 은나라를 이기자 우가 정한 서주(西周)와 양주(梁州)의 두 주를 옹주와 청주에 합하고, 기주의 땅을 나누어 유주(幽州)와 병주(并州)를 만들었다. 주관(周官; 周禮)에 직방씨(職方氏)를 두어 천하의 땅을 관장하고 9주로 나라를 나누었다<sup>25)</sup>라고 하고 있어 주나라 때 9주를 일부 개편했다. 그러나 개편하지 않은 주(州)의 설명도 좀 다르다. 예를 들어 형주(荊州)에 대해 『서경 우공』은 형주(荊州) 및 형양(荊揚)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아 석지』는 한남(漢南), 『주례 직방』은 정남(正南), 『여씨춘추 유시람』은 남방(南方)이라고 쓰고 있다.

24) 『中國國家地理地圖』, 2010, 中國大百科全書出版, 22쪽.

25) 周皆克殷 改禹徐梁二州 合之於雍青 分冀州之地以爲幽并 故周官有職方氏 掌天下之地 辯九州之國

중국의 의고학과(疑古學派) 고힐강의 『고사변자서(古史辨自序)』<sup>26)</sup>에서는 “우(禹)는 서주(西周) 시기가 되어서야 출현하고, 요순(堯舜)은 춘추 말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출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출현할수록 더욱 앞쪽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복희와 신농이 출현하고 난 뒤에야 요순이 뒷사람이 되었고, 우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의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고대사는 누층적으로 조성된다는 것, 그리고 발생의 순서와 배열되는 계통은 반비례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대사를 구성하는 층위가 차례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시대가 뒤로 갈수록 새로이 만들어지는 신화가 더 앞 시기에 배열되었고, 그것들이 결국 경전 속의 역사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다.”<sup>27)</sup>

이처럼 고사변 학파에서는 중국 상고사는 뒤에 작성된 문헌일수록 그 시기는 더 앞으로 가고, 그 내용이 더 풍부해진다면 유학자들이 조작한 것이 많다고 비판한 것이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사기 하본기』의 9주는 공자의 『서경 우공』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사기』와 『서경』의 구주는 우임금이 실제로 확정한 9주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목(錢穆: 1895-1990)이 『국사대강(國史大綱)』<sup>28)</sup>에서 “우(虞)·하(夏)와 삼묘(三苗)의 전쟁이 벌어졌던 곳은 지금의 하남성 서쪽 경계와 산서성 두 성의 황하 중류 남안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무렵 중국의 강역은 하남성·산서성·섬서성 일부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사기』는 물론 현재 중국에서 설명하는 9주는 북쪽으로 하북성은 물론 만주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지금의 강서성과 복건성을 지나 광둥성까지 그려놓고 있다. 사실보다 크게 확대된 것은 한무제 때 사방으로 강역을 확장하면서 경기 이외의 강역을 나누어 13개 자사부(刺史府)를

26) 顧頡剛, (김병준 옮김), 『고사변자서』, 소명출판, 2007, 96쪽.

27) 위책, 215쪽.

28) 錢穆, 『國史大綱』(上册), 2012, 商務印書館.

설치하면서부터다. 예를 들면 9주 중 옹주(雍州)의 약수(弱水) · 경수(涇水) · 삼위(三危) · 곤륜(崑崙) 등의 지명은 현재 감숙성 주변 지역으로 한무제 때 처음으로 강역을 넓혔던 곳이다.<sup>29)</sup> 이를 계기로 한무제 때의 한나라 강역과 비슷한 규모로 크게 확대되면서 지금의 왜곡된 구주관(九州觀)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중국의 강역관이 크게 확대되어 서쪽은 감숙성의 하서주랑(河西走廊), 남쪽은 영남(嶺南), 동북쪽은 연산산맥(燕山山脈)을 기준으로 유목민족과 경계를 나누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강역관은 중국에서 전설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확대된 경계일 뿐이며, 당시 하나라의 세력권은 황하를 중심으로 한 하남성 북부와 산서성 남부 일대에 국한되어 있었을 것이다.

29) 한기람역사문화연구소, 『신주 사마천 사가: 하본기』, 2020, 156쪽.

## 〈참고문헌〉

『史記』『夏本紀』

『書經』『禹貢』

『吳越春秋』

『漢書』『武帝紀』

『漢書』『地理志』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1982.

李學勤, 『夏史與下代文明』,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2.

錢 穆, 『國史大綱』(修訂本, 上冊), 商務印刷館, 2012

陳恭祿, 『中國通史』, 新世界出版社, 2018.

蔡美彪, 『中國通史簡本』, 人民出版社, 2013.

江村治樹, “夏南龍山・二里頭・殷周都市の特質: 2011年中國古代都市遺跡調查報告,”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58, 2012

顧頡剛, (김병준 역주), 『고사변자서』, 소명출판, 2007.

박일봉 역저, 『사기본기』, 육문사, 2012

傅斯年, (정재서 역주), 『夷夏東西說』, 우리역사연구재단, 2011.

左丘明, (신동준 역주), 『춘추좌전』(상하), 인간사랑, 2017.

\_\_\_\_\_, (신동준 역주), 『국어』, 인간사랑, 2017.

심재훈, “하상주단대공정과 信古 경향 고대사 서술”, 『韓國史學史學報』 16, 2007.

우실하,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소나무, 2014.

袁 珂, (정석원 옮김), 『중국의 고대신화』, 문예출판사, 2012

유정희, 『하왕조, 신화의 장막을 걷고 역사의 무대로』, 아이네아스, 2016.

이용원 해역, 『한서 지리지・구혁지』, 자유문고, 2007.

정원철, “중국 고대 문명 연구의 회고와 전망: 중국 고대 문명 역사공정에 대한 한국 학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호, 동북아역사재단, 2016.

정재서 역주, 『산해경』, 민음사, 2005.

조용준, “중국 고대사 서술 현황: 하상주 연대구축 프로젝트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008.

최동환 옮김, 『한서지리지』, 생각나눔, 2019.

[Abstract]

## Review on the Territory of Xia Dynasty and Wugongguju

Jung, Ahm · Choi, Won-Tae

According to the recent achievements of Chinese history, the Xia Dynasty was a real history. The xia-shang-zhou Chronology Project even identified the date from BC 2070 to BC 1600. In ancient literature, such as Seogyong and Sagi, there is a story that Wu, the ancestor of the Xia Dynasty, pioneered nine states in China and received tributes from immigrants on the periphery. The story of Wugongguju is that Wu ruled the Yellow River basin and the Yangtze River, as well as the Huisui River, and developed and communicated nine mountains including Gyeonsan, Gisan, and Hyeongsan. However, the territory of Wugongguju is larger than the territory of Qin, the first unified empire of China, it is similar to the territory that was expanded during the Hanmuje. The wide-ranging portrayal of the territory of Wugongguju in ancient history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distortion of the area of Wugongguju, which has been handed down from a long time ago, by later ancestors or historians.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Xia Dynasty territory by critically reviewing the geographical names in Wugongguju based on Erlitou archaeological sit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Xia Dynasty sphere of influence was limited to the area where Erlitou culture existed, the northern part of Hanam and the southern part of Shanxi Province, centered on the Yellow River.

**Key Words** : The xia-shang-zhou Chronology Project, Wu, Wugongguju, Erlitou archaeological site. Erlitou culture



『역사와융합』 제 4집(2019. 6)

## ‘昔有桓國(謂帝釋也)’의 가필 가능성 연구

박 정 학(역사학자)

### 차 례

1. 문제제기
2. 판본별 ‘國’자 모습과 해석의 문제점
3. 새로운 해석을 위한 자료
4. ‘桓國’으로 해석 및 ‘謂帝釋也’의 후대 삽입 가능성
5. 마치면서

### 【국문 초록】

1281년을 전후한 시기에 편찬된 일연스님의 『삼국유사』 앞부분에는 옛 책의 기록을 인용(古記云)하여 “오래 전에 환국임금의 아들인 환웅이 있었다(昔有桓國帝釋庶子桓雄)”로 시작하여 환인의 환국-환웅의 신시-단군왕검의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 겨레의 뿌리 역사가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세기 초 일제가 우리 강토를 점령한 후 우리 역사를 자기들보다 늦추기 위해 단군신화라 하여 단군 이전의 모든 역사를 신화로 조작하면서 나라 이름인 환국의 國자를 사람이름인 因자로 고치고, 환국 옆에 ‘임금을 말한다(謂帝釋也)’는 주석을 달아 “오래 전에 하느님(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다(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라고 만들어 신화라는 것을 더욱 믿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과 정부기관에서도 일본이 왜곡해놓은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사교과서에서조차 환인(하느님)의 아들 환웅이라고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판본마다 다른 國 國자를 因자로 보아 ‘桓因’이라 읽은 것은 잘못이고 모두 國자로서 ‘桓國’이라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남구만의 『약천집』과 이종휘의 『수산집』에서 자신들이 본 『삼국유사』에는 ‘昔有桓國帝釋庶子桓雄’라고 적혀있었다는 내용이 타당한 이유를 논증하여 “오래 전에 환국 임금의 아들인 환웅이 있었다”하고 해석함으로써 선사시대 우리 겨레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단군사화, 단군신화, 환국, 환인, 약천집, 수산집

## 1.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인 사료 중의 하나인 『삼국유사』 권1 紀異1 古朝鮮(王儉朝鮮)條에는 ‘古記云 昔有桓國(謂帝釋也)庶子桓雄…’로 시작되는 단군사화가 있다. 이 단군사화는 우리 겨레의 상고시대 역사가 환인의 환국-한웅의 신시-단군왕검의 고조선으로 이어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인류사회 발전단계설에 꼭 맞는 서술이다.

그런데, 國자가 원본에 ‘國’이라 쓰인 것이 아니고 国, 国, 国 등 이체자로 쓰여 있다. 만송문고본의 國자를 國자로 읽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지만, 송석하본의 國자와 파른본의 國자는 因자로 읽을 수도 있다. 더구나 환국의 임금(監君)이 환인이다 보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조선총독부의 ‘단군신화’ 만들기 지침에 따라 이마니시(今西龍)가 이런 점을 이용해 ‘桓國’을 ‘桓因’이

라고 고친 이후<sup>1)</sup> ‘桓國’이나 ‘桓因’이나 하는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정부 주도로 토론회도 개최했으나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인 2013년 고 손보기 교수가 파룬본을 세상에 내놓자 가장 이른 판본이면서 여기에 적힌 國자가 因자의 이체자로 쓰이거나 오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밝혀져 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삼국유사』에는 몇 년 전까지 원문을 ‘桓國’이라고 표기했다가 지금은 ‘桓國’이라 바꾼 후 파룬본에 따른 것이라는 교감의견을 달아놓고, 국역에서는 여전히 ‘國’자가 因자라는 이유에 대한 아무런 주석도 없이 ‘환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sup>2)</sup>

발표자는 이러한 논란의 원인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나 명확한 문제점을 놓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판본별로 다른 이체자의 원 글자가 무엇인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謂帝釋也’라고 하는 주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帝釋’이 불교의 제석천을 다스리는 하느님이므로 나라 이름인 ‘환국’과 ‘제석을 이른다’는 주석이 서로 맞지 않는데도, 이 주석을 저자인 일연이 붙인 것으로 믿고, 후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붙였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 주석이 桓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석에 제석을 이룬다고 했으니 나라가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하고, 뒤에 나오는 서자환웅의 아버지와 연결되려면

1) 『조선사편수사업개요』(시인사 편집부, 1986)에 최남선이 1932년 7월 21일 조선사편수회 제6차 회의에서 ‘후세 진인의 망필에 기인하여 환인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마니시가 國자를 因자로 고쳤는데, ‘고전은 오류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고, 일인 간사도 여기에 수긍하여 ‘조선사 초고에서는 안내문을 붙여 정정하고 있다’고 수긍한 기록이 있다. 1921년 교토대학본과 1932년 고전간행회본에 因자로 고친 흔적이 뚜렷이 보이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2) 지금은 파룬본의 글자모양대로 國자로 표기해놓고 교감187을 통해 “조선 중종 임신본(1512년)에는 ‘國’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임신본보다 이른 조선 태조 3년(1394)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룬본 《삼국유사》에 ‘國’으로 되어 있다. ‘國’은 ‘口’ 안의 ‘大’를 흘려써서 판각할 때 나타나는 글꼴로, 고려대장경에도 동일한 자형이 확인된다(연세대학교 박물관, 2016 《파룬본 삼국유사 교감》, 58쪽). 《제왕운기(帝王韻紀)》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에 인용된 《단군고기(檀君古記)》에도 ‘因’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國’으로 교감한다.”는 교감의견을 달아놓았다.

환국이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환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결국 桓國과 謂帝釋也와 庶子の 관계 정립이 관건이 된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삼국유사』 임신본을 펴낸 가선대부 경주진병마절도사 이계복의 발문에서 '개간하려고 생각하였기에(因欲改刊)' '만약 지금 개정하지 않는다면(若今不改)'이라고 한 내용을 발견했다. '改刊'은 단순히 원판을 복사하여 '그대로 다시 간행'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정'은 '약간 고쳐서 간행'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조선 중기 남구만의 『약천집』에 '삼국유사에 昔有桓國帝釋子桓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했으며, 이종휘의 『수산집』에 '朝鮮之初有桓國帝釋庶子桓雄…桓因者蓋帝釋之名也'라고 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이 두 기록을 만나는 순간, 조선 중기의 이 사람들이 본 『삼국유사』에 현존 판본과 달리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없어진 초간본을 재 발간할 때 제자들 또는 그 후 '개간'을 하는 과정에서 가필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거기다가 성섬제가 '주석을 살펴본 결과 판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sup>3)</sup>고 하니 가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석유환국이나 환인이냐에 대한 검토 후 주석의 가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종합하여 오늘 발표하면서 이 연구가 좀 더 발전되어 환국, 환웅 논란을 잠재우고, '단군사회'가 단군신화가 아닌 우리 겨레의 선사시대로부터 고조선까지의 역사기록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3) 성삼제,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2005, 172~176쪽.

## 2. 판본별 ‘國’자 모습과 해석의 문제점

### (1) 현존 판본별 ‘國’자의 모습

『삼국유사』의 판본은 영인본과 필사본이 있으며, 이를 해석하여 새로운 활자로 찍어낸 활자본이 있다. 이 중 영인본은 원본과 같거나 약간의 가필만 가능하겠지만, 필사본은 필사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나 자기 의지가 작용될 수 있으며, 활자본은 발간한 측의 해석에 따라 원본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른 판본일수록 원본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런 점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만도 없다.

현재 여러 판본의 國자 모양은 <그림1>과 같다.

조선 초기 판본 중 파른본은 손보기가 2013년 연세대에 기증한 것인데, 현존하는 판본 중 가장 오래된 15세기 간행본으로 1, 2권만 있으며, ‘桓國’으로 되어 있다.

석남본은 석남 송석하가 소장했던 것으로 왕력과 제1권만 남아 있는데, 현 소장처는 알 수 없고, 모사한 필사본이 고려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桓國’으로 되어 있다.



<그림1> 현존하는 판본별 國자의 모습

중종 7년(1512년) 경주에서 간행된 임신본(또는 정덕본) 중 만송문고본은 만송 김완섭이 소장하던 완본으로, 규장각본(국보 306-2호)보다 가필과 가획이 적어 원형에 가까운 귀중본이다. 이계복의 발문에 ‘개간하려고 생각하였기에(因欲改刊)’ ‘만약 지금 개정하지 않는다면(若今不改)’라고 했으며, 약 40매의 구판은 복각(覆刻; 원판을 그대로 복사하여 새김)했으나 나머지 개각판(약간 가필이나 오자를 수정하여 새김)은 여러 고을에 나누어 간행했으므로 刻字의 모양도 다르고 선초본과 일부 글자가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桓國’으로 되어 있다.

덧칠을 해서 변조한 티가 역력히 나는 1921년 교토대학본과 1932년 고전간행회본을 성삼제는 임신본이라면서 ‘우리가 한국, 한인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된’ 첫 단추로 평가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마니시가 1916년 인사동에서 구입하여 소장하였기에 今西本이라고도 하고 그 후 천리대에 기증하여 귀중본으로 보관되고 있는 순암 수택본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 같지만, 오늘 발표의 주제와 다르므로 생략한다.

## (2) 우리 학자들의 ‘桓國’이란 해석과 그 비판

### ① 초기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해석

판본별로 다른 이 글자를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활자로 인쇄되어 나온 책들로서 1차 살펴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삼국유사』 활자본과 역주본은 일본에서 먼저 나왔는데, 일본에서 초기에 나온 활자본에는 ‘桓國’이라고 되어 있다(〈그림2〉).

4) 성삼제 위 책, 159~196쪽. 여기서 성삼제는 “(國자로 된)이 판본이 그 후 일본학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자 한국고대사를 부정하고 신화화 하려는 이마니시에게는 그것이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일본학계에 ‘단군역사 신화화’를 심기 위해서는 원본 변조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이다. 만약 이 본에 ‘桓國’이라고 되어 있었다면 1921년이나 1932년 본에 덧칠/변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고 추정했다.

1902년 일본에서 발행된 『삼국유사』가 있었다는데 우리나라 명문당에서 이 책을 저본으로 1993년에 『원문 삼국유사』를 출판했고, 최태영 선생은 같은 해 동경대학에서 나왔으며 번역자가 같은 『교정 삼국유사』에서도 ‘桓國’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sup>5)</sup>



〈그림2〉

그리고 동경대학에서는 1904년에 사학과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문과대학사지총서의 하나로 『삼국유사』를 발간했는데, 교정자가 동일한 이 책 역시 ‘桓國’으로 되어 있다. 이 책에는 왜 그렇게 해석했는가 하는 고증과 주석이 달려 있으며, 당시 그 분야 최고 권위자였던 동경대학 교수들의 교정을 거쳐 발행되었으므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은 아주 적을 것으로 봐야 한다.<sup>6)</sup>

이 세 책이 저본을 무슨 판으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桓國’으로 되어 있는 임신본 또는 다른 판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임신본과 다른 글자가 일부 있다는 데서 ‘國’자로 적힌 다른 판본이 있었거나 모든 판본을 보았을 경우 그 글자를 ‘國’자로 읽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다수의 우리나라 학자들은 桓因으로 해석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 이후 나온 많은 단행본들은 ‘桓因’으로 해석하고 있다. 성삼제의 앞 책에 그 책명들 일부가 정리되어 있다.<sup>7)</sup>

5) 위 책, 167쪽.

6) 이상 내용은 성삼제의 위 책, 170~177쪽 내용을 요약하였음.

7) 위 책, 182쪽.

### 昔有桓國으로 표기한 『삼국유사』

- 최남선, 『증보 삼국유사』, 민중서관, 1946.  
 최남선, 『신정 삼국유사』, 삼중당서점, 1946.  
 민족문화추진회, 『한국고전신서1-삼국유사』, 민족문화추진회, 1973.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 『일연과 삼국유사』 3책, 불교사학연구소, 1994.

### 昔有桓因으로 표기한 『삼국유사』

- 이병도 역, 『원문 겸 역주 삼국유사』, 동국문화사, 1956.  
 성은구 역, 『역주 삼국유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81.  
 이병도 역, 『역주 원문 삼국유사』, 명문당, 1987.  
 박석봉 · 고경식 역, 『역해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89.  
 도올 김용옥 교감, 『삼국유사 인독』, 통나무, 1992.  
 김봉두 편역, 『삼국유사』, 교문사, 1993.  
 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4.  
 리가원 · 허경진 역, 『한글세대를 위한 우리 옛글 삼국유사』, 한양출판, 1996.  
 권혁률 역, 『한 권으로 읽는 삼국유사』, 도서출판 녹두, 1997.  
 노중국 역, 『삼국유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9.  
 하정룡 교감, 『역주 삼국유사』, 시공사, 200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유사』 3책, 2003.  
 등등

이외에도 모든 역사교과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삼국유사』 관련 책(사전류 포함)에서는 ‘桓因’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누구도 왜 ‘환인’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 ③ ‘국은 大자를 흘려 쓴 체’라는 억지 해석

이와 관련,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의 태도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배달에서 昔有桓國-桓因 討論會를 열었던 2011년 5월 당시에는 원문을 ‘桓國’이라고 적어놓고 ‘환인’이라 국역을 하면서도 아무런 주석도 없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따지자 마지막에는 ‘誤刻’이라고 해명했으나 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임신본이 목각본이라는 점에서 사전 검토가 치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오각일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그런데, 최근에 수정된 한국사DB에는 파른본을 근거로 ‘桓國’으로 적어놓고 주석에서 ‘口안의 大를 흘려 쓴 것을 오각했다’는 교감의견을 달아놓았다. 그러니 ‘환인’이라 국역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림3〉 참조).

현재 홈페이지 원문의 교감 188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중종 임신본(1512년)에는 ‘國’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임신본보다 이른 조선 태조 3년(1394)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른본 《삼국유사》에 ‘國’으로 되어 있다. ‘國’은 ‘口’ 안의 ‘大’를 흘려 쓴 것을 판각할 때 나타나는 글꼴로, 고려대장경에도 동일한 자형이 확인된다(연세대학교 박물관, 2016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 58쪽). 《제왕운기(帝王韻紀)》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에 인용된 《단군고기(檀君古記)》에도 ‘因’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國’으로 교감한다.

원문	2011	古記云昔有桓國(校勘 001)謂帝釋也庖子桓(校勘 002)雄數意天下貪求人世. 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箇遣性理之雄率徒三千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
	현재	古記云, “昔有桓國(校勘 188)謂帝釋也. 庖子桓(校勘 189)雄數意天下貪求人世.
↓		
국역	2011	《고기(古記)》[譯註 001]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 제석(帝釋)을 말 천하(天下)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현재	《고기(古記)》[註 248]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 제석(帝釋)을 말한다. 의 사

〈그림2〉 한국사DB의 원문 및 국역 내용 비교(2011년과 현재)



흘려 쓴 글자를 보고 오각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있는 논리적 해석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학자가 나타났다. 연세대 하일식이 2016년 10월 8일 고고학·역사학 협의회 제1차 학술대회와 2017년 4월 22일 경주 고대사 시민강좌에서 ‘식민주의 사학과 유사역사학’ 강의를 하면서 ‘환국’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을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유사역사학이라고 비판하는 데 사용했다. 강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에서 桓國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신화에 나온 글자를 억지스럽게 오독한 결과다. 파른본에는 이 글자가 선명하게 桓因으로 확인된다. 桓因이라고 적혀있는데, 因자는 因자를 흘려쓸 때 생긴 글꼴이 좀 어색하고 각지게 판각된, 잘못 새겨진(誤刻) 글자일 뿐이다. 임신본에는 桓國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연이 제석을 말한다(謂帝釋也)는 주석을 달아놓았으니 문맥상 나라이름이 아니라 천신의 이름인 桓因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역사를 조작하는 이들은 이를 국명으로 우기며 거대한 제국인 환국이 있었던 것처럼 선전해왔다.<sup>8)</sup>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강단사학을 학문적으로 비판하는 바른 역사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파른본의 因자가 <그림3>에서 보이는 大자를 흘려 쓴 글자체라면서 ‘桓因’으로 확인된다고 단정한 것은 너무 지나친 억지 주장이다.



<그림3> 하일식이 제시한 因자들

8) 하일식, 『고고학·역사학 협의회 제1차 학술대회 자료집』, 2016, 10쪽; 『고대사학회의 고대사 시민강좌 자료집』, 2017.

성삼제도 그의 책에서 교육부에서 팀을 구성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던 중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자문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마니시의 변조설’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그거야 재야에서 하는 소리”라고 했다는 것이다.<sup>9)</sup> 재야든 아니든 그 진실 여부를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학자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 ④ 因, 因가 因의 이체자라는 주장과 그 비판

성삼제는 앞 책에서 “1986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김상현 교수는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고판본에는 桓因라고 되어 있는데, 因자는 因의 이체자이므로 임신본의 桓國이 중요한 오류다. 이 桓國은 桓因의 오기다’고 주장했는데, 하정용·이근식 공저 『삼국유사 교감연구』에서는 분명히 因이 國의 약자라고 했다.”<sup>10)</sup>고 하여 이 주장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因도 因자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 글자는 『삼국유사』에서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고려대장경에 3번 등장한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이 글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어 번역도 나오는데, 因은 cause, reason, by, because(of)라고 되어 있고, 因은 erect, proud, upright, bald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 뜻이 다르므로 因을 因의 이체자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sup>11)</sup>

그뿐 아니라, 만약 임신본의 因자가 오기이고 因, 因가 명확하게 因자의 이체자나 因자 자체가 확실했다면, 또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교토 대학본이나 고전간행회본처럼 표 나게 가필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9) 성삼제, 앞 책, 174쪽.

10) 위 책, 180쪽.

11) 위 책, 181쪽.

그리고 古記의 원문이 桓因이었다면, 그 시대 사람들 대부분은 물론 저자인 일연 스님이 환인이 제석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석을 이른다(謂帝釋也)’라는 주석을 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판본의 囯, 囯, 囯자는 困자가 아니고 國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그 외에도 國자로 보아야 할 증거들은 더 있으므로 囯-환인 논란은 이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 3. 새로운 해석을 위한 자료

#### (1) 인류사회발전단계설과 단군사화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약 500만 년 전이고, 자신들이 살아온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것은 약 5,000년 전이며, 그 사이의 기록이 없는 시기를 선사시대라 부르며(신석기 시대 이전은 신화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선사시대에도 기록만 없을 뿐 사람들이 살아온 사회는 변화되어 왔다. 이처럼 인류 역사를 전개해온 주체는 사람이므로 시대의 명칭도 여기에 맞추어 붙여야 한다.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1960년대에는 씨족사회-부족사회-부족연맹사회-고대국가사회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배운 기억이 뚜렷하다.

그런데, 지금의 모든 역사교과서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선사 시대를 ‘도구의 변천을 중심으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구분하고, 그 뒤를 고조선-삼국의 건국 등 국가의 이름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시대구분 기준의 일관성이 없고, 역사의 주체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도구의 질로 인류가 살아온 시대를 구분함으로써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이다.

인류사회 공동체의 진화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은 1960년대 초부터 씨족사회-

부족국가-부족연맹-고대국가라는 사회발전 도식이 사용되다가, 1970년대 이후 인류사회가 무리사회(band society)-마을사회(tribe society)-고을나라(chiefdom society)-국가사회(state society)로 발전되었다는 엘만 R. 서비스(Elman R. Service)의 신진화론<sup>12)</sup>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그런데, 13세기에 나온 『삼국유사』에서도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선사시대 역사를 ‘환인의 환국-환웅의 신시-단군왕검의 고조선’순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최근 인류사회발전도식과도 맞는 매우 합리적 ·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선사시대 역사 기록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구석기 · 신석기 시대라고 하면 매우 야만적인 사회였음이 강조되고, 따라서 송호정이 2018년 10월 4일 EBS에서 단군조선은 신석기 시대였으므로 ‘신화’라고 주장했듯이 신화라는 굴레를 씌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삼국유사』의 기록이 단군신화론을 깨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윤내현 교수는 이 둘을 연결시켜 <표1>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함으로써 삼국유사 기록의 선진성을 드높였다.<sup>13)</sup>

이 도표에서 발표자는 윤내현 교수의 의견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표기했고, 민족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것은 윤 교수 책의 내용 속에서 뽑아 ‘비고’란에 넣었다.

연대	고고학 시대	인류사회 발전단계	단군사화의 시대		비고
			윤내현	박정학	
10,000년 전 이전	구석기시대	무리사회	桓因시대	신화시대	가족(아동)
10,000년 전 이후	전기 신석기시대	마을사회	桓雄시대	桓國(환인)시대	씨족/부족 (불박이)
6,000년 이후	후기 신석기시대	고을나라	桓雄+공녀시대	神市(환웅)시대 桓雄+공녀시대	종족 형성
4,500 또는 5,000여년 전 이후	청동기시대	국가사회	단군왕검 건국의 고조선 시대	단군왕검 건국의 고조선 시대	민족 형성

<표1> 단군사화의 시대 구분 비교표(윤내현 · 박정학)

12) Elman R. service,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Random House, 1962.

13) 윤내현, 「한민족의 형성과 출현」 『사학지』 제27집, 단국대사학회, 1993 ;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5, 141 쪽.

## (2) 『삼국유사』 외의 기록에 나타난 내용

단군사화의 내용에서 판본별로 다른 ‘桓國’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기술하고 있는 다른 기록들과의 비교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단군사화를 담고 있는 기록은 많지 않지만 살펴본다.

『제왕운기』에는 桓國이라는 단어가 없고 ‘上帝桓因의 庶子 雄’이라고 나온다. 어느 나라의 上帝냐 하는 상제의 나라가 없는 것이다. 『규원사화』나 『부도지』 등에는 단군사화에 해당하는 기록이 없으므로 桓國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단고기』에는 『삼국유사』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온다. 「삼성기전상」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 전에 환국을 건국했고, 그 임금을 환인이라 했으며, 천제환인이라고도 했다’,<sup>14)</sup> 「삼성기전하」에는 ‘옛날에 환국이 있었는데 백성은 부유하고 많았다 처음 환인은 천산에 살았다…고기에 이르기를 파나류산 밑에 환인의 나라가 있는데 천해의 동쪽으로서…통틀어 말하면 환국이요, 갈라서 말하면…12국이다’<sup>15)</sup>고 하였다. 桓國의 임금이 桓因이라고 하여 환국과 환인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단군사화도 역사기록이므로 이런 기록들과도 맥락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3) 『약천집』과 『수산집』, 『동사연표』 내용

이러던 중, 아주 운 좋게도 ‘謂帝釋也’라는 주석과 관련된 획기적인 사료를 만났다. 조선 후기 남구만(1629~1711)의 시문집인 『약천집』에는 ‘이 내용은 『삼한고기』에 나온다’면서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14) ‘吾桓建國最古…謂之桓國…於是桓仁亦以監羣居于天界 是謂天帝桓仁’

15) 『약천집』 제29권 雜著 東史辨證 내용; 檀君昔有桓國衆富且庶焉 初桓仁居于天山…古記云波奈留之山下有桓仁氏之國 天海之東地…其地廣南北五萬里東西二萬餘里 摠言桓國 分言則…合十二國也

구사(舊史) 〈단군기(檀君紀)〉에 이르기를 신인(神人)이 태백산(太白山)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오자, 나라 사람들이 추대하여 군주로 삼으니, 이때가 당요(唐堯) 무진년(기원전 2333)이다. 상(商)나라 무정(武丁) 8년 을미일에 이르러 아사달산(阿斯達山)으로 들어가 신이 되었다. 이 내용은 《삼한고기(三韓古記)》에 나오는데, 이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린 《고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옛날 환국(桓國) 제석(帝釋)의 서자(庶子)인 환웅(桓雄)이 천부인(天符印) 3개를 받아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오니, 이곳을 일러 신시(神市)라 하였는바 이를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하였다.’<sup>16)</sup>

아직 그런 판본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남구만이 본 『삼국유사』에는 주석인 ‘謂帝釋也’가 들어갈 자리에 주석이 아닌 본문으로서 ‘帝釋’만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환국 제석의 서자 환웅이 있어’라고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

조선 후기 이종휘(1731~1797)의 시문집인 『수산집』에도 그 출처가 『삼국유사』라는 말은 없지만, ‘조선의 초기에 환국 제석의 아들인 서자 환웅이 있어’로 시작되는 같은 내용(朝鮮之初有桓國帝釋庶子桓雄)이 실려 있으며, 1915년 어윤적이 펴낸 『동사연표』에도 이를 인용하여 ‘신사에서 말하기를 조선의 초에 환국이 있었는데 제석의 서자인 환웅이 천부삼인을 받고’<sup>17)</sup>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을 인정한 것이다.

아직 그런 판본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훨씬 부드럽고 논리적이며, 다른 사료들과도 맞아떨어지므로 현재는 아무런 의문도 제기되지 않는 ‘桓國帝釋庶子桓雄’이 당시의 『삼국유사』에 실려 있었다는 이 내용은 현존 『삼국유사』의 해당 부분이 가필되었을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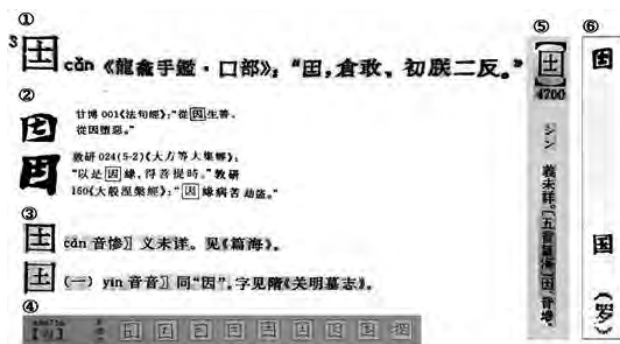
16) 舊史檀君紀云有神人降太白山檀木下。國人立爲君。時唐堯戊辰歲也。至商武丁八年乙未。入阿斯達山爲神。此說出於三韓古記云。而今考三國遺事載古記之說云昔有桓國帝釋。庶子桓雄受天符印三箇….

17) 神事志曰 朝鮮之初有桓國帝釋庶子桓雄受天符三印

## 4. ‘桓國’으로 해석 및 ‘謂帝釋也’의 후대 삼입 가능성

### (1) 桓田은 桓因이 아닌 桓國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판본마다 글자의 모양이 다르고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며, 중국과 대만의 사전에서 田과 田이 因의 이체자로 나오기도 하고(<그림4>), 고려대장경 이체자 사전에서 뜻은 달라도 田이 因자로 쓰이고 있으므로 田이 因의 이체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國자로 쓰였던 사례도 있다.



〈그림4〉 중국 사전의, 田 因의 관계

(①한어대사전 ②동황속자전(불경) ③중화사해 ④대만 이체자사전 ⑤대한화사전 ⑥거란소자(나복성 석독))

이런 상태에서 2017년 세계환단학회 학술대회에서 경주대학 이강식이 ‘桓田의 田이 거란소자에도 나오는 田이며 그 뜻은 田으로서 桓田은 桓田이라는 변증’<sup>18)</sup>이라는 발표에서 ‘田이 因만의 이체자이기도 하지만, 거란소자 등을 통해 田자체가 田, 國이라는 것을 변증’해놓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강식이 변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sup>19)</sup>

18) 『세계환단학회지』4월1호, 세계환단학회, 2017, 155~196쪽.

19) 위 책, 191~192쪽.

첫째, 桓國은 삼국유사의 석남본(國를 田로 봄)과 파른본에 기록되어 있고, 桓國은 이제북본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본의 왕력과 본문의 수정사항을 비교 연구한 결과 國자체가 田이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둘째, 중국 사전과 불경에서는 田이 因의 이체자라고도 하지만,<sup>20)</sup> 『삼국유사』 자체 및 거란소자의 田을 연구한 결과는 田이 곧 國, 國이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그림4〉).

셋째, 중국의 『용감수경』을 비롯한 한자서에는 비슷한 다양한 이체자가 나타나는데 이는 앞으로 더 연구하여야 한다.

넷째, 桓國이 곧 韓國, 韓國임을 변증하였으므로, 앞으로 桓國과 韓國사에 대한 역사 연구는 역사적·역사학적으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因으로서의 國자와 國으로서의 國자도 중국과 불경, 고려, 거란의 문자 교류라는 측면에서 더 연구되어야 한다.

## (2) 桓國과 謂帝釋也와 庶子の 문제

덧칠을 하여 변조한 것이 뚜렷이 보이는 교토대학본과 고전간행회본은 사실상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생략했지만, 여러 판본에 보이는 田田田 자가 國자라는 결론에 이르고 나면 문제는 출발점인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古記云 昔有桓國(謂帝釋也)庶子桓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桓國은 나라의 이름인데, 나라 이름에 ‘제석을 일컫는다(謂帝釋也)’고 하는 주석은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다. 물론 ‘제석천’의 준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여러 판본에 나오는 上帝라든가 환인이라는 단어와의 연결 문제가 남는다.

더불어 庶子 桓雄과의 문제도 발생한다. 桓國이라는 글자가 분명하다면 ‘한국

20) 앞 각주10 및 〈그림4〉 참조.



의 아들(庶子) 환웅'이라는 문장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자'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직책이름으로 보아 한국의 서자벼슬에 있는 환웅이라든가, 이 유럽처럼 『환단고기』에 나오는 子井 女井에서 못 아들이들이 모여 사는 子井에 해당하는 서자촌이라는 지명으로 보아 '서자촌에 사는 환웅'<sup>21)</sup>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이어지는 父知子意의 '아버지'라는 단어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 (3) 주석 '謂帝釋也'의 후대 삼입 가능성

이 문제의 핵심에 '謂帝釋也'라는 주석이 자리 잡고 있다. 桓國, 謂帝釋也, 서자 환웅, 父知子意 등의 관계가 서로 모순 없이 어우러지려면 그 가운데 있는 이 주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는데, 『약천집』과 『수산집』의 내용이 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본다.

조선 후기에 남구만이 본 『삼국유사』에는 '謂帝釋也'라는 주석이 없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임신본의 경우 개간 과정에서 구판 40쪽은 그대로 '복각(覆刻)'했으나 나머지는 '개각판'이었기 때문에 刻字의 모양도 다르고 선초본과 일부 글자가 다르다는 것이 이미 발견되었다는 데서 가필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류사회발전단계설에 따르면 선사시대 사회의 발전과정이 환인의 한국-환웅의 신시-단군왕검의 고조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환인으로 해석할 경우 신시와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에 해당하는 환인의 나라 이름이 없으므로 역사기록으로서의 논리성이 떨어지게 된다.

아직 정확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2011년 5월 27일 사)한배달이 주관한 한국-환인 토론 시 고 박성수 교수가 '일본인 이마니시 류가 일연 스님이 세상을

21) 이유럽, 『대배달민족사』 권1, 고려가, 1987, 199쪽 주 24 참조.

떠나고 제자들이 주석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발언했으며, 성삼제도 앞의 책에서 이와 같은 견해도 있다고 했다.<sup>22)</sup> 여러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밝힌 사람은 없었다.

발표자도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이유로 ‘謂帝釋也’라는 주석은 일연이 붙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일연은 환인을 너무 잘 아는 ‘스님’이었으므로 고기의 원문이 명확하게 환인을 지칭하는 글자로 되어 있었다면 직접 ‘桓因’이라고 썼지 애매한 이체자로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일연 스님은 고기의 원문대로 『약천집』의 주장처럼 ‘桓國帝釋’이라고 표기했을 것이다. 國이 國의 약자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아니므로 桓國에 謂帝釋也를 주석으로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國이 因이라고 알고 있는 후세의 누군가가 國이 因자 등으로 표기된 판본을 보고 ‘桓國帝釋’을 ‘桓因帝釋’으로 읽게 되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桓因(謂帝釋也)라고 가필하였을 것이라는 확신을 굳혔다.

## 5. 마치면서

『삼국유사』 고조선(왕검조선)조의 古記云으로 시작되는 단군사화는 우리 겨레의 뿌리 역사를 담고 있는 유일한 공인 기록이다. 그러다보니 지난 세기 조선총독부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 할 때 그 첫 대상이 되었다. 우리 겨레의 역사가 환국-신시-고조선으로 이어졌다는 선사시대 역사기록이 단군 이전을 신화로 몰고 가려는 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군신화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단군의 고조

22) 사)한배달 한국/한인 토론회 결과(다음 카페) 및 성삼제, 앞 책, 192쪽.

선 이전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라고 하여 신화시대로 만들고, 그 이전에 동경대학에서 이미 ‘昔有桓國’이라고 해석해놓은 단군사회가 문제되므로 원본에 덧칠을 하여 ‘昔有桓因’으로 고친 후, 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널리 받들고 있는 ‘하느님’이라고 해석하여 천손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되 역사가 아니라 ‘신화’임을 더욱 확실하게 하면서 환국이나 환인이나 하는 논쟁을 유발시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런 점에서 발표자는 처음에 謂帝釋也라는 주석도 일본인들의 가필일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자료를 찾았으나 그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역사왜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1902년과 1904년에 동경대학에서 桓國으로 해석한 활자본이 출판되었고,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사실조사를 담당했던 성삼제가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강식이 거란소자에서 国가 國이라는 것을 찾아냄으로써 판본별로 다르게 쓰인 国 国 国 자가 모두 國자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이로써 사)한배달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고심한 환국이나 환인이나의 논란은 이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昔有桓國이 분명해지고 나니 謂帝釋也라는 주석과 이에 이어지는 庶子桓雄, 知子意로 연결되는 문장이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삼국유사』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임신본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개간’을 했다고 하는 이계복의 발문과 임신본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판은 원본대로 복각(覆刻)했으나, 대부분인 개각판(약간 가필이나 오자를 수정하여 새김)은 여러 고을에 나누어 간행했으므로 刻字의 모양도 다르고 선초본과 일부 글자가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데서 주석의 가필 가능성에 대한 마음이 굳어졌다.

그러던 중 참으로 우연하게 『약천집』에서 남구만이 보았다는 『삼국유사』에는 ‘昔有桓雄帝釋庶子桓雄’이라고 되어 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모든 의문이 풀리고 ‘謂帝釋也’라는 주석은 후대의 가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간 접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늘 발표를 했

지만, 아직은 부족한 연구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재야의 생각이다’ ‘식민주의 사학을 비판하는 유사사학자들의 억지스런 오독’이라는 강단 학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정부에서 보다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 [참고 문헌]

1. 『삼국유사』 : 한국사DB, 이병도 역주, 이민수 역주 등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국사편찬위원회.
3. 성삼제,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2005.
4. 이강식, 「한국의 국이 거란소자에도 나오는 국이며 그 뜻은 국으로서 한국은 한국이라는 변증」, 『세계환단학회지』 4권 1호, 2017.  
\* 그림으로 제시한 중국 사전과 거란소자의 해석은 이 논문 내용을 편집한 것임
5. 이유립, 『대배달민족사』 권1, 고려가, 1987.
6. 윤내현, 「한민족의 형성과 출현」 『사학지』 제27집, 단국대사학회, 1993.
7. 역사교과서 : 초등학교 사회 5-1,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등
8. 사)한배달, 「석유환인/한국 밝히기 토론회 결과」(2011.5.27.), 사단법인 한배달 카페, 강의 · 학술행사 자료실.
9. 역사의병대, 「국사교과서, 올해 이것만은 꼭 바뀌라」 16 등, 역사의병대 카페 1986 ; 올해 이 적폐만은 꼭 청산하라 43, 역사의병 외침 등.

【abstract】

## **A Study of Revision to 昔有桓國(謂帝釋也) in Samguk Yusa at quoting the records of the old books**

Park, Jeong Hak

In the history book, [Samguk Yusa] of monk the Il Yeon, compiled by approximately 1281, it began with ‘Long time ago, there was Hwan-woong, the son of the king of Hwan-nation(昔有桓國帝釋庶子桓雄)’ and described the roots of Han people which leads to the Joseon Dynasty of Hwan-dynasty, Hwanung’s Sinsi, and Dangunn Wanggum’s gojosen by quoting the records of the old books (Gokiwoon).

However, after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took over Korea at the beginning of the last century, in order to make our history premature than theirs, Dangun mythology was used to manipulate all the history of Dangun as a myth. As a part of this effort, a letter that means ‘Country’(國), was revised to a letter that is used for a person’s name(因), and ‘it means a king(謂帝釋也)’ was added as an annotation to make it ‘Long time ago, there was Hwanung, the son of the God(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sound more like myths.

Many scholars and government agencies of Korea still get stuck in this theory and have been teaching that Hwanung is the son of God even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s.

Therefore, this paper emphasizes that although the letter of 国 and 因 appear differently across a various edition of the book, it is not correct to read by 因 (person’s name) to make it 桓因(Hwan-in, God) and all should be read by 國

(nation) to make it 桓國(Hwan-dynasty). Furthermore, in the book of Nam, Guman's 'Yakcheonjip' and Lee, Jong-hui's 'Susanjip', the authors insist '昔有桓國帝釋庶子桓雄(Long time ago, there was Hwan-woong, the son of the king of Hwan-nation)' and this paper proves it is correct and wh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 history of our prehistoric era by arguing the valid reason for this historical fact.

**Key Words** : Historical story of Dangun, Dangun myths, Hwan-dynasty, Hwan-in, Yakcheonjip, Susanjip

『역사와융합』 제 4집(2019. 6)

## 나주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 실체에 관한 연구

박 동(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차 례 -

1. 들어가며
2. 사서에 나타난 영산강 세력과 피장자 후보 분석
3.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목씨 세력의 실체 분석
4. 목씨 세력의 열도 이주와 소야씨 정권의 전개 과정
5. 아파트형 고분 유적과 목씨 관련 문헌의 연관성 분석
6.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나주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의 특성을 추출하여 이러한 특성에 부합하는 씨족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 복암리 고분은 ① 영산강 유역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정복세력, ② 장기간(400년)에 걸쳐 최고위급 관리를 배출한 세력, ③ 철기 등 선진 무기를 갖춘 무장세력, ④ 가야 및 왜와 친연성을 갖춘 세력 등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영산강 세력이 대거 등장하는 중국 『남제서』 동성왕조의 여러 세력을 비교 검토한 결과 백제 대성팔족 중 하나인 목씨 세력이 네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나주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목씨 세력은 3세기의 목라근자 이후 7세기까지 꾸준히 최고위급 관리를 배출하는 등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가야정벌과 임나건국, 한성백제 멸망 이후 웅진백제 재건, 임나 통치, 성왕기 백제조정의 고위관료 진출, 열도 천황가를 장악한 소아씨 등을 통해 목씨 씨족은 백제와 가야, 열도에서 수없이 많은 고위관리를 배출하였다. 이들은 철기로 무장한 세력으로서 해양 분야에 특화된 군벌집단이었다. 이들은 마한 진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수시로 군대를 동원하는 등 막강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끝으로, 가야 지역에 임나국을 건설하고, 열도에서는 100년 이상 천황가를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국사기』에 목협만치로 최초로 등장한 목씨 세력은 그 일부가 열도로 이주하였는데, 후손인 소아입록의 성씨가 임씨라는 사실이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북암리 3호분 96석실분에서 출토된 5세기말~6세기초 물고기문양의 금동신발과 매우 유사한 금동신발이 1세기 후 열도의 아스카 시대를 주도한 소아마자의 전성기에 조영된 후지노키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일본의 고대 지배계층의 족보인 『신찬성씨록』에는 백제 출신 임씨가 백제 목귀공의 후손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문헌자료와 물질적 근거뿐만 아니라 현재 나주 회진에는 우리나라 임씨의 양대 가문 중 하나인 나주 임씨들이 본관을 두고 있으며, 현재에도 나주 회진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나주 북암리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가 백제 대성팔족 중 하나인 목씨이고, 나주 임씨는 고고학적 유물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증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검색어] 나주 북암리 아파트형 고분, 목씨(木氏), 소아씨(蘇我氏), 임씨(林氏)

## 1. 들어가며

1996~1998년의 나주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 발굴은 영산강 유역의 고대 사회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은 동 고분이 최초로 발굴될 때 처녀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400여 년 간 동일세력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지속적으로 고분을 축조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3세기부터 7세기까지 40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왕국, 영산강 세력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복암리 3호분은 목관묘(1기), 옹관묘(22기), 석곽 옹관묘(1기), 석실묘(2기), 수혈식석곽묘(3기), 횡구식 석곽묘(1기), 횡혈식 석실묘(11기) 등 시대별로 유행한 모든 형태(7가지)의 무덤 양식을 구비하고 있다. 또, 무덤에서는 물고기 문양의 금동신발, 철제관모, 금귀고리, 각종 마구류, 은장삼엽환두대도, 은제관식, 규두대도, 구슬, 토기 등 799점의 화려한 부장품들이 나와 이곳에 마한-백제 시대의 최고위 지배층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봉분에서 갖가지 형태의 무덤 41기가 쏟아져 나왔는데, 3층의 아파트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맨 아래에는 3세기 대에서 6세기 중·후반대로 추정되는 옹관묘 22기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위에 '96호 돌방무덤 등 11기의 대형 석실묘가 들어서 있다. 그리고 맨 위에는 경사면을 파고 7세기대의 석실묘 등이 위치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상이한 무덤양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집단이 매우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무덤양식은 대를 이어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곳에서는 각 시대의 흐름을 앞서간 듯이 다양한 묘제를 도입하고 있다. 묘제의 양식은 다르지만 흐름이 연속적인 것으로 보아 이 집단이 커다란 부침을 거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옹관묘와 석실묘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 옹관묘 집단이 자연스럽게

석실묘를 채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지역 출신들이 백제에 진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정복당한 집단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400여 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동일한 씨족이 대를 이어가며 묘를 사용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다장묘라는 점이다. 더구나 3m가 넘는 대형옹관 및 금동신발, 장식대도, 은제관식 등 화려한 부장품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복암리 고분 집단은 누대에 걸쳐 최고위 관리들을 배출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나 긴 시간 동안 무덤이 축조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집단은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한 세력임에 틀림없다. 마한과 백제, 가야 지역의 고분군을 전체적으로 비교 검토해보면 이 집단은 백제 대성팔족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세력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복암리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출토 유물로는 각종 무기류와 철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철기시대의 유물인 각종 철제품과 구슬이 발견된 곳은 3호 옹관이다. 특히 4기의 노가 출토되고 단야 공정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 철제 무기나 농·공구를 대량생산한 집단으로 보인다. 철기를 생산하는 도구인 철제 집게가 출토되어 제철 생산을 통해 철을 공급한 것을 알 수 있다.<sup>1)</sup>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철을 공급하고 생산하려면 막대한 노동력과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그리고 나주 회진은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항구로서 광주의 육지와 서해 바다로 나아가는 교류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이들 집단은 해상과 육로에 모두 막강한 세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1) 정재윤, 「삼국시대 나주와 영산강 유역 세력의 동향」, 『역사학연구』 제62집, 2016,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나주 봉황면 철전리 일대는 실어산현(實於山縣)으로 불리웠고, 나중에 철야현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여기서 실어산은 쇠산 즉 철산을 뜻한다. 이에 따라 영산강 세력들은 이곳에서 철광석을 채굴한 후 복암리로 운반하여 각종 철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살펴보면 산 하나 정도가 평지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는 철 생산이 충분했지만 각종 정복활동과 농공구류 수요의 증가로 인해 항상 철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산강 세력들의 정복활동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넷째, 왜계 무덤 양식과 유물, 가야, 신라, 서역 계통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이들이 백제는 물론 가야, 신라, 열도 왜, 더 나아가 서역과도 폭넓게 교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초기 황혈식 석실분은 5세기 말 ~ 6세기 초 일본 규슈의 전방후원형 고분과 유사한 점이 있다.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은 마한 옹관묘 → 왜계 석실분 → 백제 석실분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묘제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2)</sup> 3호분 96석실분은 왜계 석실분인데, 그 안에는 마한의 옹관묘를 썼고, 후에 백제식 석실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규두대도는 열도에서 주로 출토되고 한반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왜계 유물로 추정된다. 아울러 물고기 문양의 금동신발,<sup>3)</sup> 토기, 마구류 등 출토 유물로 보아 영산강 세력이 백제와 긴밀하게 접촉하였음은 물론 가야, 신라, 왜 등 한반도 주변세력과 빈번히 접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역의 유물도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 고분의 피장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드러난 유물만 있을 뿐이지 고분 피장자의 실체는 물론이고, 이러한 거대 고분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2) 임영진, 『장고분(전방후원형고분)』, 『백제의 건축과 토목』,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7. 임영진은 5세기 말부터 유행한 왜계 황혈식 석실분은 망명한 일부 마한세력이 규슈 지역의 정치적 격동기에 휘말려 다시 분향인 영산강 유역으로 귀향함으로써 생긴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낙중, 「영산강유역 초기 황혈식 석실의 등장과 의미」, 『호남고고학보』 29호, 2008. 김낙중은 영산강 유역 석실을 영산강 유형과 웅진계 유형으로 구분한 후 영산강 유형은 북부 구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웅진계 유형은 백제에게 영산강 유역과 왜의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호남 서남부 지역에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영산강유역 고분과 그 변천에 대하여」, 『영호남의 고대묘제』, 창원대학교 박물관, 2001. 이정호는 영산강 유역 전방후원분은 형태만 전방후원분일 뿐 이른바 위세품은 백제나 가야의 것이고, 일반유물은 토착세력의 사용품들이라고 보았다. 필자가 보기에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 무덤양식은 개로왕 시기에 왜에 파견된 영산강 유역 출신 곤지 세력들이 한성백제 멸망 직후 규슈의 군세력을 대동하고 일시적으로 복귀하여 백제 왕권을 다투다 사망한 이후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목함만치와 같이 백제와 왜를 오가며 일하다가 사망한 후 수구초심으로 고향에 복귀한 영산강 유역 출신 고위직 관리들의 무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3) 5세기말~6세기초에 조성된 3호분 '96석실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바닥의 물고기 문양은 우리나라 유일의 유물인데, 6세기말 열도의 후지노키 고분에서 출토된 물고기 문양 금동신발과 문양이 매우 유사하다. 조원창, 「고대 한일 위세품에 보이는 물고기 문양의 계통과 전파」, 『지방사와 지방문화』 17권 1호, 2014. 시기적으로 보아 후지노키 고분이 3호분 '96석실분의 영향을 받거나 같은 세력이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갖는지에 대해 능동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세력은 결국 백제에 흡수되어 은제장식을 머리에 꽂은 패망세력이라는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백제 연구자들은 복암리에서 출토된 목간 등에 주목하면서 이 지역 세력이 결국 백제에 병합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복암리 고분의 유물들이 갖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하기 전에 백제에 멸망당하거나 흡수된 세력이라는 일방적 해석들로 인해 제대로 된 역사 탐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마한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국내 문헌이 절대 부족한 것에 기인한 바 크다. 국내의 고대 사서인 『삼국사기』에는 웅관묘 세력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 25사에는 영산강 세력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부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 『고사기』, 『신찬성씨록』 등을 비롯한 각종 일본 사서에는 중국의 기록보다 더욱 풍부하고 앞선 기록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이들 기록들을 교차 검토하여 나주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 피장자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사서에 나타난 영산강 세력과 피장자 후보 분석

국내의 고대 사서인 『삼국사기』는 마한 지역의 여러 나라 중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백제(百濟)국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삭제해버렸다. 김부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독립된 국가 등의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관된 편집 원칙에 의거하여 폐기해버린 것이다. 다른 나라에 합병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다.<sup>4)</sup> 마한 지역의 역사는

4)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독립된 나라 이외에는 그 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는 백제가 연방국가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삼국사기』 백제 온조왕기에서 백제의 시조와 관련하여 온조, 비류, 구태 중 “어느 주장이 옳은지 알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김부식이 의도적으로 마한의 역사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122년에 태조대왕이 마한, 예

결국 백제 1국의 역사에 흡수되어 버렸는데, 문제는 오늘날까지 백제의 시조가 누구인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25사의 기록과 『일본서기』 등 일본의 사서 등을 통해 영산강 세력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 것은 복암리 고분이 4백여 년 간 꾸준히 조성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 바 크다.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왕조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 실체를 이미 드러내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나주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 피장자들을 문헌 속에서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분의 특성을 만족하는 세력을 추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세력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① 영산강 유역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정복세력, ② 누대(400년)에 걸쳐 최고위급 관리를 배출한 세력(영향력의 장기 지속), ③ 철기 등 선진적 무기를 보유한 무장세력, ④ 가야 및 왜와 친연성을 갖춘 세력 등이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세력을 찾기 위해 필자는 우선적으로 백제 왕족을 제외한 대성팔족 등 꾸준히 세력을 유지한 강력한 정치집단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세력이 아니라 꾸준히 영향력을 지속한 세력이어야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3세기와 7세기의 어느 단면을 자를 때 거기에는 이 세력

---

맥과 함께 요동을 침략하였다...마한이 백제 온조왕 27년(AD 9년)에 멸망하였는데 지금 고구려왕과 함께 병력을 보낸 것은 아마 멸망한 후에 다시 일어난 것인가?"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도 바로 그가 마한과 백제 간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삼국사기』에서는 온조왕을 시조로 보고 있는 반면에 최근의 연구에서는 중국 25사의 기록에 근거하여 구태 백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구태의 출자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학계에서조차 백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역사재단 ·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초기 백제사의 제문제』, 2018.

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물론 사서의 기록이 풍부한 시기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영산강 유역의 정치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 시점의 중국 사서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중국 『남제서』의 동이열전 백제조에 기록된 동성왕 관련 기사이다.

(가) 영삭장군 면중왕 저근은 정치를 두루 잘 보좌하였고 무공 또한 뛰어났으니 이제 가행관군장군 도장군 도한왕이라 하였고, 건위장군 팔중후 여고는 젊을 때부터 임금을 도와 충성과 공로가 진작 드러났으므로 이제 가행영삭장군 아착왕이라 하였고, 건위장군 여력은 천성이 충성되고 정성스러워 문무가 함께 두드러졌으므로 이제 가행용양장군 매로왕이라 하였으며, 광무장군 여고는 정치에 공로가 있고 국정을 빛내고 드날렸으므로 이제 가행건위장군 불사후라 하였습니다.

(나) 지난 경오년에는 험윤(獫狁)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깊숙히 쳐들어 왔습니다. 신이 사법명 등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역습케 하여 밤에 번개처럼 기습 공격하니, 흉리가 당황하여 마치 바닷물이 들끓듯 붕괴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쫓아가 베니 시체가 들을 붉게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예기가 꺾이어 고래처럼 사납던 것이 그 흉포함을 감추었습니다. 지금 천하가 조용해진 것은 실상 [사법]명 등의 꺾이오니 그 공훈을 찾아 마땅히 표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법명을 가행정로장군 매라왕으로, 찬수류를 가행안국장군 벽중왕으로, 해례곤을 가행무위장군 불중후로 삼고, 목간나는 과거에 군공이 있는 데다 또 성문과 선박을 때려 부수었으므로 행광위장군 면중후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가)의 기사는 동성왕이 중앙집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유력세력들을 왕과 후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나)의 기사는

요서백제를 침공한 북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공을 세운 장수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다룬 내용이다. 이들 기사에서 나타난 직책에는 지역명, 특히 영산강 유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영산강 유역의 주요 세력들이 모두 망라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동성왕이 남제에 작위를 요청한 호남지역 왕·후 명단<sup>6)</sup>

이름	직책	해당지역
저근(姐瑾)	면중왕(面中王) → 도한왕(都漢王)	면중=광주, 도한=고흥
여고(餘古)	팔중후(八中侯) → 아착왕(阿錯王)	팔중=나주 반남, 아착=무안, 신안 압해
여력(餘歷)	건위장군 → 매로왕(邁盧王)	매로=전북 옥구
여고(餘固)	광무장군 → 불사후(弗斯侯)	불사=전북 전주
사법명(沙法名)	매라왕(邁羅王)	매라=매로=전북 옥구
찬수류(贊首流)	벽중왕(辟中王)	벽중=전북 김제
해례곤(解禮昆)	불중후(弗中侯)	불중=불사=전북 전주
목간나(木干那)	면중후(面中候)	면중=광주

동성왕 재위 시기는 한성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성을 점령당하고 왕족들이 대부분 살해당해 사실상 멸망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다. 백제를 재건국해 나가는 시기에 영산강 세력들이 왕과 후로 임명되거나 북위와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이다. 이러한 범 영산강 세력들의 후원에 힘입어 백제는 다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영산강 세력과 백제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어떻게 해서 영산강 세력들이 대거 왕·후로 임명되고 북위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임영진<sup>7)</sup>은 마한이 6세기 중엽(530년경)까지 백

6) 『남제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해당지역은 이도학, 『목간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최종 비정함.

7) 임영진,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백제학회, 『백제학보』11권, 백제학회, 2014.



제와 별개의 세력으로 존립했다는 마한독자설을 주장한다. 그는 “신촌리 금동관의 경우 국가 권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지배-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제공된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관계 속에서 평화 공존과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행위의 일환으로 제공되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나주 복암리 3호분의 5호·16호 석실에서 출토된 백제관식은 마한 세력이 6세기 중엽 경 전쟁보다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 방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sup>8)</sup> 이는 근초고왕 시기에 영산강 유역이 백제에 병합되었다는 주장이 고고학적 유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한독자설은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한과 백제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던 제도적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양 세력은 어떤 형식으로든 접촉해서 관계를 정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성왕 시기에 이미 많은 왕·후들과 장수들이 백제와 협력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근초고왕의 마한정복론<sup>9)</sup>은 영산강 유역에서 백제의 정복을 나타내는 어떠한 고고학적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고, 문헌상으로도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일본서기』 신공황후기 49년조를 120년 인하여서 근초고왕의 정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건강부회에 불과하고 문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일

8) 임영진, 「영산강유역 석실봉토분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3-1, 2000. 지금까지 출토된 고고학적 유물로 보아 영산강 세력이 6세기 초·중반까지 존속했다는 데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강봉룡, 「5~6세기 영산강유역 '웅관고분사회'의 해체」, 『백제의 지방통치』, 학연문화사, 1996; 최성락, 「전남지역 고대문화의 성격」, 『국사관논총』 제13집, 2000; 이정호, 최성락 엮음, 「영산강유역의 웅관고분」, 『전남의 고대문화』, 학문회사, 2003. 이처럼 고고학적으로 마한의 존재가 6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사학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사적으로 영산강 세력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倭)라는 설(이덕일·이희근,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김영사, 1999)이 그나마 해양세력으로서의 영산강 세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왜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각종 왜 관련 기록에 대한 구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광개토왕비문』에는 한성 이남지역의 정치세력을 왜로 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왜에 인질로 가는 전지태자의 경우 실제로 영토의 영유권 문제 때문에 열도로 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사서에 나타나는 왜를 일률적으로 영산강 왜로 부를 수는 없다.

9) 이병도, 「백제의 흥기와 마한의 변천」, 『한국사-고대편』, 진단학회, 1959;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노중국, 「마한의 성립과 변천」, 『마한·백제문화』10, 원광대 마한·백제연구소, 1987.

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들은 강력한 백제를 상정하고 영산강 세력이 언제 이에 병합되었는가 하는 선형적 가정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 유물이 보여주는 실상과 부합하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고고학적 유물상으로는 4세기를 통털어 영산강 유역이 절대 강세를 보인다. 더구나 한성백제가 멸망하고 문주왕이 일부 귀족들과 피신하듯이 내려온 475년 이후 백제는 이름뿐인 존재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산강 세력이 백제를 떠맡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보인다.<sup>10)</sup>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마한과 백제가 연방제라는 시스템 속에서 평화적으로 상호 공존하고 있었다고 본다. 마한이나 백제는 모두 고조선과 부여의 연방제를 계승했다.<sup>11)</sup> 여기서 연방제는 한 국가에 중앙과 지방이 주권을 나누어 갖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방 내에서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연방에 속할 경우 다른 나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외교나 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치권을 인정한다. ② 항복한 세력도 모두 받아 들인다. 『진서』 마한조에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은] 활 · 방패 · 창 · 큰 방패를 잘 쓰며, 비록 남과 다투거나 전쟁을 할 때에도 굴복한 상대를 서로 귀하게 여긴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항복한 세력을 귀하게 받아 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마한이 채택한 연방제가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

10) 문주왕이 웅진으로 내려온 이후 한성백제의 구귀족인 해구가 곤지를 죽이는 등 실권을 잡는 듯이 보였으나 삼근왕 시기에 반란자가 되어 사라지고 만다. 곤지의 아들인 동성왕이 즉위한 것은 이러한 백제 정정의 불안이 어느 정도 수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신채호,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 1998. 신채호에 따르면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경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이라는 삼조선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였다. 적은 인구로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신조선만 직접 통치하고, 불조선과 말조선은 신조선의 후국으로서 지역 스스로가 수장을 선택하고, 신조선에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부여와 삼한에도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는데, 『후한서』에는 마한 54국, 진한 12국, 변한 12국 등 78개의 나라 중 마한이 가장 강대하여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 진왕으로 삼아 목지국에 도읍하여 전체 삼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연방제 국가 형태를 묘사한 것이다. 특히 3세기 중반의 『삼국지』에는 변한 12개국이 진왕에 속하는 등 월지국의 진왕이 강력한 정복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3세기 후반(282년)에는 영산강 유역의 29개 신미제국이 서진과 직접 외교활동에 나서는 등 독자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영산강 세력이 마한 연방 내에서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는 중요한 인센티브 기제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연방 내부에서는 국경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군대 이동의 경우에만 다소간의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온조 세력이 사냥을 핑계로 초기 마한을 정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④ 연방에 흡수되거나 정복되면 국호를 변경하도록 한다. 중주국이 개입하여 국호를 변경하게 하도록 한다. 가야의 경우 김해 금관가야가 부레구야(不例狗邪)로 바뀌는 등 12개국의 국호가 모두 변경되었다. ⑤ 한성 유역이나 금강 유역, 영산강 유역, 낙동강 유역 등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국에 군대가 없다. ⑥ 담로국과는 조공관계, 혼인관계 등을 통해 엄격한 위계가 설정되어 호칭도 다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진왕(辰王)은 월지국(月支國)에서 통치한다. 신지(臣智)에게는 간혹 우대하는 호칭인 신운견지보(臣雲遣支報), 안야축지(安邪跣支), 분신리아(濱臣離兒), 부레구야진지렴(不例狗邪秦支廉)의 칭호를 더하기도 한다. 그들의 관직에는 위솔선(魏率善) · 읍군(邑君) · 귀의후(歸義侯) · 중랑장(中郎將) · 도위(都尉) · 백장(伯長)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한 54국은 평등한 나라들이 부족국가 형태로 모인 것이 아니라 내부에 위계가 설정되어 있고, 마한, 진한, 변한 78개국은 대부분 행정구역 명칭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연방제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적 특성은 각 세력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교류와 이동을 보장하지만 연방 내에서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정복전쟁을 통해 많은 담로를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연방제 하에서 475년 한성백제가 멸망하고 웅진에 새로운 백제를 재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가 재정이 텅 빈 상태이고, 왕실을 운영할 관료나 전문집단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문주왕이 목염만치의 호위를 받아 웅진에 거의 맨 몸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국가 방위를 담당할 병력도 절대 부족했다. 문주왕은 신라에서 1만 명의 지원군을 데리고 왔지만 이들은 한성백제가 멸망한 것을 보고 신라로 돌아갔다. 이 상태에서 웅진백제가 어떻게 재건될 수 있었을까?

『삼국사기』에는 목협만치와 조미걸취가 문주왕을 호위하고 남쪽으로 갔다고만 나온다. 물론 해씨나 진씨 등 한성백제의 고위 관료들도 따라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권력기반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무너진 백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영산강 세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동성왕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열도에서 건너와 백제왕으로 즉위하였다. 그의 정치적 기반은 영산강 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는 범 영산강 세력과 하나가 되기 위해 왕·후제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북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백제의 부흥을 이루어 나갈 준비를 갖추어 나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당시 왕·후로 임명된 8명에 대해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 피장자들의 특성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저근, 찬수류 등은 중국 25사나 『일본서기』 등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으므로 ②의 특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피장자 후보군에서 탈락시켰다. 다음으로, 여고(餘古), 여력, 여고(餘固) 등 부여씨 3인을 살펴보면 이들은 비유왕, 개로왕과 같은 성씨이다. 비유왕의 이름은 여비이고, 개로왕은 여경이다. 따라서 부여씨 3인은 영산강 세력은 맞지만 백제왕과 성이 같은 왕족이므로 이들도 피장자 후보군에서 탈락시켰다. 다음으로, 해례곤의 경우 백제 대성팔족의 하나인 해씨이다. 그런데 해씨는 한성백제 시기에 한성 지역에 거점을 둔 세력이고, 영산강 지역에는 그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역시 후보군에서 제외하였다.

사법명은 백제의 해, 진, 목, 사, 연, 백, 국, 협씨 등 대성팔족 중 하나인 사(沙)씨이다. 사씨는 398년 아신왕 시기에 진무가 병관좌평으로 임명될 때 좌장으로 사두가 임명되면서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한다. 사씨는 동성왕 시기의 매타왕 사법명과 내법좌평 사약사, 성왕 시기의 상좌평 사택기루, 의자왕 시기 대좌평 사택지적, 당나라의 포로가 된 사택천복, 당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웅진도독부를 맡은 사택손등, 열도에서 사망한 대좌평 사택소명 등이 있으며, 성왕 시기에 사비천도를 주도하였고, 익산 미륵사지석탑 금제사리봉안기에는 사택적덕

의 딸이 무왕의 왕후인 것으로 나온다. 『일본서기』에도 사지비궤 등이 등장하는 등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②, ④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주요 근거지가 영산강이 아니라 금강하구 지역 또는 전북 북부 지역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사실이다. 사법명이 전북 옥구로 비정되는 매라왕으로 임명된 점, 사비 천도를 주도한 점, 그리고 무왕의 익산 천도를 지원하여 미륵사지를 건립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사씨의 근거지는 영산강 지역으로 볼 수 없다. 사씨는 전북 북부 지역이 근거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목간나의 경우 사법명과 마찬가지로 백제 대성팔족 중 하나인 목씨이다. 목씨는 『삼국사기』에 475년 개로왕이 죽고 나자 목협만치가 문주왕을 호위하여 남쪽으로 떠났다는 내용으로 처음 등장한다. 김부식도 『삼국사기』에 주석을 달아가며 목협씨가 복성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온다. 처음보는 성씨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목씨는 『일본서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씨이다. 『일본서기』에는 목씨 세력의 영향력이 7세기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중요한 것은 목간나가 면중후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목씨는 영산강 세력인 것으로 판단된다. 목씨가 ①, ②, ③, ④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여 나주 북암리 아파트형 고분의 잠정적인 피장자 후보로 채택되었다.

### 3.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목씨 세력의 실제 분석

『삼국사기』나 중국 25사에는 목씨와 관련된 기록이 단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지만 『일본서기』에는 목씨와 관련된 기록이 넘쳐난다. 여기서는 『일본서기』에 나타난 목씨 세력들의 위상과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주 북암리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한다. 아래의 기사들은 신공황후기와 응신천황기에 나타난 목씨와 관련된 『일본서기』의 기록들이다.

(가) (신공) 49년 봄 3월에 황전별, 녹아별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구저 등과 함께 군사를 정돈하여 바다를 건너가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때 누군가가 “군사의 수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사백개로(沙白蓋盧)를 보내 군사를 증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곧 목라근자(木羅斤資), 사사노궤(沙沙奴跪)[이 두사람의 성(姓)은 알 수 없다. 다만 목라근자는 백제의 장군이다.]에게 명령하여 정병을 이끌고 사백개로와 함께 가도록 하였다. 그 후 모두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비자발(比自伐), 남가라(南加羅), 룡국(喙國),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 7국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古奚津)에 이르러 남만(南蠻) 침미다례(枕彌多禮)를 도륙하고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肖古)와 왕자 귀수(貴須)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比利), 벽중(辟中), 포미지(布彌支), 반고(半古) 4읍(四邑)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나) (신공) 62년에 신라가 조공해오지 않았다. 그 해에 습진언을 파견하여 신라를 치도록 하였다. 『백제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임오년에 신라가 귀국을 받들지 않으므로 귀국이 사지비궤(沙至比跪)를 보내어 이를 치도록 하였다. 신라인은 미녀 두 명을 단장시켜서 나루에서 사지비궤를 맞이하여 유혹하였다. 사지비궤는 그 미녀를 받고는 도리어 가라국을 쳤다. 가라국의 왕 기본한기와 아들 백구저, 아수지, 국사리, 이라마주, 이문지 등은 그 인민을 데리고 백제로 도망해 왔다. 백제는 이들을 두터이 대우하였다. 가라국 왕의 누이인 기전지가 대왜(大倭)에 가서 ‘천황은 사지비궤를 보내어 신라를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지비궤는 신라의 미녀를 받고 신라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멸망시켜 형제, 인민 모두가 떠도는 신세가 되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와서 아웁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매우 노하여 목라근자를 보내 병사를 이끌고 가서 가라에 모여 그 나라의 사직을 복구시키도록 하였다.

(다) (응신 4년) 이 해에 백제 진사왕(辰斯王)이 즉위하여 귀국(貴國) 천황에게 무례하였다. 그래서 기각숙네(紀角宿禰), 우전시대숙네(羽田矢代宿禰), 석천숙네(石川宿禰), 목토숙네(木菟宿禰)를 파견하여 그 무례함을 꾸짖었다. 이에 백제국은 진사왕을 죽여 사죄하였다. 기각숙네 등은 아화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왔다.

(라) (응신 16년) 8월에 평군목토숙네(平群木菟宿禰), 적호전숙네(的戶田宿禰)를 가라(加羅)에 보냈다. 정병을 주며 “습진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분명히 신라가 방해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신라를 치고 길을 열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목토숙네 등이 정예병을 이끌고 나아가 신라의 국경에 이르렀다. 신라왕은 놀라 사죄하였다. 궁월의 인부를 거느리고 습진언과 함께 돌아왔다.

(마) (응신) 25년에 백제의 직지왕이 죽었다. 이에 아들 구이신(久爾辛)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왕이 어려 대왜(大倭)의 목만치(木滿致)가 국정을 잡았다. 아울러 왕모(王母)와 밀통하여 무례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천황은 이를 듣고 소환하였다[『백제기』에서는 “목만치(木滿致)는 목라근자가 신라를 정벌할 때 그 나라 부인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다. 아버지의 공적으로 임나에서 전횡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국(貴國)과 왕래하였다. 천조(天朝)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정사를 장악하고 권세를 세상에 떨쳤다. 그러나 천조가 그 포악함을 듣고서 소환하였다.”고 한다.

(가)의 신공 49년조 기사는 영산강 세력들이 백제 근초고왕에게 정복당했다고

주장되어 왔던 문제의 기사이다. 목라근자가 당시 가야 정벌을 주도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나)의 기사는 가야를 정벌한 이후 전북 옥구 지역 출신으로 추정되는 사지비궤가 왕에게 반기를 들고 신라가 아니라 가야를 공격함에 따라 목라근자를 보내어 사직을 재건했다는 내용이다. (다)는 한성백제 진사왕이 광개토왕과의 전투에서 소극적으로 임함에 따라 당시 웅진백제 왕이었던 응신이 진사왕을 제거하고 아신왕을 옹립한다는 내용이다. (라)의 기사는 목토숙네가 가야에 파견되어 열도로 이주하고자 한 120현민을 도왜시킨다는 내용이다. (마)의 기사는 목라근자가 가야 정벌시 그 지역에서 부인을 맞이하여 낳은 목만치가 전횡을 일삼다가 응신에 의해 열도로 소환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일본서기』 신공황후기와 응신천황기는 백제삼서 중 『백제기』를 주로 인용하고 있다.<sup>12)</sup> 그런데 『백제기』가 언급될 때마다 목씨 세력이 등장함에 따라 『백제기』는 목씨 세력들이 기록하여 제출한 사서인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여기서 백제는 『일본서기』가 편찬된 8세기 초를 기준으로 한 백제를 가리킨다.

먼저, (가)의 기사를 보다 상세하게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공황후 49년은 『일본서기』 기년상 249년에 해당하는데, 신공황후는 중국 25사에 등장하는 비미호와 동일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신공황후 39년 조에 그 같은 내용이 나온다.

“39년 이 해의 간지는 기미이다[위지(魏志)에서는 명제 경초 3년 6월에 왜 여왕이 대부 난두미 등을 보내 군에 이르러 천자에게 가서 조현할 것을 청하자, 대방군 태수 등하가 관리를 보내 데리고 가게 하여 경도에 이르게 하였다고 한다.]”

12) 『일본서기』를 편찬하는 데는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본기』 등 백제삼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신공황후기는 『백제기』를 집중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백제기』가 시기상 신공황후기와 가장 가깝고, 신공황후를 정복군주로 포장하는 데 걸맞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3) 백승중, 「『일본서기』 목씨·기씨 기사의 기초적 검토: 신공~현종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4, 2015.



위의 39년조 기사는 신공황후기 전체 편년의 주춧돌이다. 즉 이를 근간으로 삼아 『백제기』와 중국 25사의 기사들을 섞어 신공황후기를 편집한 것이다.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에 따르면 이 시기에 위에 사신을 보낸 왜왕은 비미호이다. 이는 명제 경초 3년, 서기 239년의 일로 『일본서기』의 신공황후 섭정 39년(239)년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신공황후기는 비미호를 비정하여 편년을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의 기사에 따르면 신공황후는 왜국대란이 종료된 179년에 즉위하여 247년에 사망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신공황후 원년은 179년인데 『삼국지』 오환동이전을 인용하여 신공 원년을 201년으로 22년 인하였다. 그래서 신공이 269년에 사망하고 270년에 응신천황이 신공을 계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지』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신공황후가 사망한 것은 247년이고, 응신이 즉위한 것은 390년이므로 143년간의 왕통공백이 존재한다.<sup>14)</sup> 『일본서기』는 신공황후와 응신을 모자관계로 설정하고 있지만 시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공황후기는 이러한 왕통공백을 은폐하고, 신공황후를 정복군주로 만들려는 의도로 『백제기』와 중국 25사 등을 끌어다 짜깁기한 사서이다. 이에 따라 응신 초기는 2주갑(120년) 이하하면 대체로 중국 25사나 『삼국사기』 등과 기년이 맞아 떨어지지만 신공황후기는 기년의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은 249년 기사를 2주갑 인하여 369년으로 설정

14) 김성호,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 지문사, 1982; 김상, 『삼국사기 사서비교를 통한 삼한사의 재조명』, 북스힐, 2004; 김상, 『삼국사기 사서비교를 통한 삼한사의 재조명2』, 북스힐, 2011. 응신왕의 웅진백제 왕 즉위년은 390년이다. 응신이 즉위한 직후 한성백제 진사왕은 기존의 반고구려 정책을 180도로 바꾸어 390년 10월부터 사냥터를 누비고 다니면서 고구려의 공격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진사왕조는 왕비족 진(眞)씨 응신의 백제왕 즉위에 불만을 품은 진사왕의 응신과의 권력투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결국 진사왕이 패배하여 제거되고 만다. 그러나 응신도 396년 광개토왕의 잔국토벌로 그 기반을 상실하고 열도로 망명하는 신세가 된다. 이는 마한-백제 연방이 순망치한의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정벌의 주체를 근초고왕으로 바꾼 후 영산강 세력이 근초고왕 대에 정벌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이 기사를 2주갑 인하한다는 것 뿐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366년과 368년에 근초고왕은 신라와 화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73년에도 여전히 화친을 유지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369년에는 고구려와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있다. 깃발을 황색으로 통일한 해가 바로 369년이다. 이는 근초고왕이 신라와의 전쟁이 불가피한 가야 정벌 전쟁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래의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물왕 18년(373년) 기사를 보면 근초고왕이 신라와 화친하고 있었는데, 민심을 수습하는 데에도 실패한 것으로 나온다.

“18년(373) 백제 독산성주가 3백 명을 거느리고 투항해 왔다. 왕이 그들을 받아들여 6부에 나누어 살게 했다. 백제 왕이 문서를 보내 말하였다. ‘두 나라가 화친을 맺어 형제가 되기를 약속했는데, 지금 대왕께서 우리의 도망한 백성을 받아들이니 화친한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이는 대왕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청컨대 그들을 돌려 보내십시오.’ [내물왕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일정한 마음이 없소. 그러므로 생각나면 오고 싫어지면 가버리는 것은 진실로 그 령기 때문이요, 대왕께서는 백성이 편치 않음은 걱정하지 않고 도리어 과인을 나무라는 것이 어찌 이리 심하단 말이요.’ 백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삼국사기』에 따르면 근초고왕은 369년에 고구려와 전쟁을 하고 있었고 신라와는 화친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 정벌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근초고왕의 가야 정벌설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삼국사기』의 기사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필자는 자국의 정사를 전면 부정하고 기년조차 불분명한 『일본서기』의 신공황후기를 신봉하는 이유

를 찾아볼 수 없다.

3세기 초의 한반도 남부의 상황과 당시의 정치·군사적 역학 관계, 그리고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일본서기』 신공 49년조의 가야 7국 정벌 기사는 『삼국사기』가 기록한 212년 포상팔국 전쟁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가야가 정벌된 것은 『삼국사기』 기년상 212년이다. 212년을 기점으로 가야가 『삼국사기』에서 사라진다. 3세기 초에 가야국을 정벌하고 신라를 멸망 직전까지 내몰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보유한 세력은 마한 진왕과 보라국(=발라국) 세력뿐이었다. 둘째, 212년 전쟁은 보라-갈화 전쟁으로 명명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라국(=발라국) 세력이 주도한 전쟁이다. 『삼국유사』의 일연은 보라국을 발라, 즉 나주로 비정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백제 장수 목라근자도 영산강 출신 장군으로 추정된다. 셋째, 당시 포상팔국 전쟁과 맞먹을 만한 대규모 전쟁이 『삼국사기』나 『일본서기』에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

신공 49년조의 기사를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먼저 가야 정복전쟁을 지휘한 장수들의 성씨가 목라근자, 사사노궤, 사백개로 등으로 백제장군들이라는 사실이다. 전체 전투를 지휘한 장수는 목라근자이다. 목씨와 사씨는 한성백제가 멸망할 즈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대성팔족의 성씨들이다. 목라근자는 『일본서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이고, 주로 3세기~5세기를 다룬 『백제기』에 기록된 내용이 인용된 것으로 보아 목씨의 시조격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신공 49년조 기사와 『삼국사기』 기사를 일치시켜 보면 212년에 보라국(발라국)과 포상국가 연합군은 신라를 공격하고, 울산 태화강까지 북진하여 거기서 강화를 맺은 것으로 해석된다. 보라국을 필두로 한 전쟁은 원래 209년 안라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12년 전쟁은 『삼국유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라-갈화 전쟁이라는 물계자의 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선이 김해에서 울산으로 북

상하였다.<sup>15)</sup>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포상팔국 전쟁 직후인 212년 이후 가야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sup>16)</sup>

따라서 212년 보라-갈화 전쟁에서 신라는 갈화성(울산성)의 방어에 성공한 것을 승전으로 기록한 것이고, 보라국은 김해와 부산 지역을 장악하는 것으로 전쟁을 마무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그 이남 지역인 남가라(김해)는 보라국(발라국)의 수중에 떨어졌다. 가야를 평정한 이후 목라근자는 김해와 부산지역 등을 중심으로 임나국을 성립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마)의 기사에서 보면 목라근자의 아들인 목만치가 임나에서 전횡을 저질렀다는 기사가 나온다. 동 기사에 나오는 왕모와 밀통, 무례, 전횡, 포악함 등의 사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씨 세력이 임나를 성립시키고 지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야 평정 이후 목라근자가 이끄는 군대는 고해진(강진)에 이르러 남쪽에 있는 남만(南蠻) 침미다례(제주도)를 공격한다. 고해진(강진)은 제주로 가는 길목으로 그곳에서 바라볼 때 남쪽에는 바다와 제주도뿐이다. 김성호(1982)는 침미는 일본음으로 도미로서 한라산 두무(頭無)이고, 다례는 달(達)로 산(山)을 의미해 한라산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제주도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므로 남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조에는 “그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작

15) 포상팔국 전쟁은 209년은 함안의 안라, 그리고 212년은 김해 금관가야를 목표로 한 전쟁이다. 『삼국사기』에는 209년 전쟁이 안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나오는데,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김태식, 『함안 안라국의 성장과변천』, 『한국사연구』 86, 1994. 천관우와 김태식 등은 포상팔국 전쟁의 대상이 모두 김해의 금관가야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한 결과로 파악된다. 특히 김태식은 토기 문화권의 측면에서 함안 지역은 마산 서쪽지방과 유사한 반면 김해 지역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포상 8국의 공격대상이 안라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김태식, 1994: 55~57). 이러한 주장은 보라국(-발라국)의 존재를 이유없이 무시하는 해석으로서 취신할 수 없다.

16) 김해의 금관가야는 212년 신라에 왕자를 볼모로 보내는 기록을 끝으로 『삼국사기』에서 사라진다.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세력에게 복속된 존재에 대해 별도로 기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3세기 중엽의 『삼국지』 한전의 기록에서 마한 월지국 진왕에게 알현하는 소국들 중 안야(安邪), 부례구야(不例狗邪) 등 변한 연맹에 속한 나라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 중 안야는 아라가야, 부례구야는 부여가야로서 바로 김해에 있었던 가야국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라국과 김해 가야국이 삼한 체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정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 말도 한[족]과 같지 않다. [그들은] 모두 선비족처럼 머리를 삭발하였으며, 옷은 오직 가죽으로 해 입고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 그들의 옷은 상의만 입고 하의는 없기 때문에 거의 나체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침 영산강 세력이 수군 전선을 이끌고 가야를 평정했으므로 여세를 몰아 제주도까지 내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수의 연구자들은 침미다례를 치고 나니 비리, 벽중, 포미지, 반고 등 전남지역 4읍이 항복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가야 정벌 전쟁이 나주의 발라국 세력이 주도한 전쟁이기 때문에 비리, 벽중, 포미, 지반, 고사 등 5읍은 각각 전주, 김제, 정읍, 부안, 고부 등으로 비정된다고 본다.<sup>17)</sup> 즉 전북 남부 지역이 영산강 세력에게 투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발라국의 정복전쟁으로 전남과 제주 지역, 경남 지역이 모두 발라국의 담로국으로 변모하자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된 전북 남부 지역이 모두 투항한 것이다.

(나)의 기사는 사지비귀의 왕명 거역과 관련된 기사이다. 임나 지역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씨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회유하는 신라의 유혹에 넘어가 이제 갓 임나국이 성립된 가라국을 공격하여 사직을 무너뜨렸다. 기사의 시기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나해왕이 서남 쪽으로 장기간 순행한 227년으로 추정된다. 신라는 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재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기사도 『백제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는 신공황후가 될 수 없다. 마한 진왕이 목라근자

17)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1949. 말송보화는 비리·벽중·포미지·반고 등 4읍으로 보아 비리는 전주, 벽중은 김제, 포미지는 충남 공주, 반고는 전남 나주로 비정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신공황후가 전남·북, 충남 공주까지 진출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이병도의 경우에도 4읍으로 보고 전남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정하였다. 이에 대해 천관우, 「마한제국의 위치 비정」, 『동양학』9, 1979. 천관우는 4읍으로 파악한 것을 반박하고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 등 5읍으로 보고, 그 위치를 전북지역으로 비정한 바 있다. 김성호,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 지문사, 1982. 김성호는 비리·벽중·포미지·반고 등 4읍을 비리는 전주, 벽중은 임실, 포미지는 순창, 반고는 구례 등 섬진강 유역 전북 지역으로 비정하였다. 이도학, “영산강유역 마한제국의 추이와 백제.” 『백제문화』, 제49집, 2013. 이도학은 5읍으로 보아 비리는 보안, 벽중은 김제, 포미는 정읍, 지반은 부안, 고사는 고부로 비정했다.

를 재파견하여 임나국 사직을 복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와 (나)의 목라근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목라근자는 수군을 주력으로 대규모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던 마한권 또는 백제권의 정복세력이었다. ② 그는 나중에 백제로 통합된 지역의 장수로 가야를 평정하고 그 인근 지역에 임나국을 성립시켰다. ③ 사지비궤 세력이 이를 공격하여 무너뜨리자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임나 사직을 재건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의 기사는 광개토왕의 한반도 정복전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응신과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진사왕을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진사왕은 초기에 반고구려 노선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고구려를 공략하다가 응신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 고구려와의 전쟁을 포기하다시피 한다. 이는 『삼국사기』에 관미성이 고구려에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사냥을 다닌 것으로 나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응신은 군을 동원하여 진사왕을 폐위시키고 죽이는데, 이때 군을 이끌고 출동한 세력 중에 기각숙네와 목토숙네가 등장한다. 기각숙네는 일본 『고사기』에는 목각숙네로 기록되어 있다.<sup>18)</sup> 목씨 세력은 당시 웅진백제 왕이었던 응신의 지시에 따라 진사왕을 폐위시키는 것으로 보아 왕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토숙네는 인덕천황과 이름을 서로 바꿀 정도로 위세가 높은 권신의 자제로 등장한다. 진(眞)씨인 응신이 웅진백제 왕에 등극하여 그 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목씨 세력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인덕) 원년 봄 정월 정축삭 기묘에 대조료존이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이전에 천황이 태어난 날 부엉이가 산실에 들어왔다. 다음날 아침 예전천황이 대

18) 열도로 건너간 목씨는 일본의 고대 호족 중 하나인 키(紀)씨로도 불리웠다. 목(木)의 일본어 훈독이 '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각숙네는 목각숙네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신 무내숙네를 불러 ‘이것이 무슨 정조인가.’라고 물었다....이에 천황이 ‘지금 짐의 아들과 대신의 아들이 같은 날에 함께 태어났다. 모두 길조이다. 이것은 하늘의 표식이다. 그 새의 이름을 따서 서로 바꾸어 자식의 이름에 붙여 후세의 증표로 삼자.’고 말하였다. 그래서 굴뚝새의 이름을 따서 태자의 이름을 대초로 황자라 하였으며, 부영이의 이름을 따서 대신의 아들을 목토숙네라 하였다. 이는 평균신의 시조이다.”

목토숙네는 만신(萬臣)의 아버지로 불리운 무내숙네의 아들로 나온다. 무내숙네는 『일본서기』에서 최초의 대신 또는 동량지신으로 등장하는데, 『고사기』에 따르면 그 자식이 갈성씨, 파다씨, 허세씨, 평균씨, 기(목)씨, 소아씨 등의 선조가 되는 사람들이다. 열도 왜 조정의 유력 세력들은 무내숙네를 공동 시조로 거대한 씨족 집단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9)</sup>

(라)의 기사는 (다)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응신이 396년 광개토왕의 잔국토별로 패망하고 열도로 망명한 이후의 기사이다. 396년 광개토왕은 백잔(한성백제)의 배후에 존재하던 잔국(웅진백제)을 철저히 토벌하고 40개 이상의 성을 깨뜨려 버린다. 이때 응신은 일가를 모두 데리고 열도로 도망한 것이다. 그 결과 생존이 막막해진 금강 유역 피난민들이 신라의 접경 지역과 임나 지역으로 몰려 들었는데, 그 인원은 『일본서기』에 120현민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에 새겨진 『대당평백제비』에는 백제 패망시 호구는 250현 24만호로 나온다. 이를 기준으로 1호당 5~6명을 적용하면 대략 1현당 약 5천여 명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20현민은 약 60만 명에 달한다. 다소 과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엄청난 숫자의 난민이 열도로 이주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때 120현민을 호위하고 도왜시킨 인물이 바로 목토숙네이다. 사실

19) 이재석, 「무내숙네 전승의 형성과 대신제」, 『한성사학』 30권, 한성사학회, 2015.

상 120현민의 도왜를 계기로 열도에 고대국가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0)</sup> 이를 계기로 목씨 세력은 열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마)의 기사는 목라근자의 아들인 목만치가 구이신왕의 왕모와 밀통하였다고 주장하고, 다시 『백제기』를 인용하여 임나에서 전횡을 했다고 나온다. 그런데 이 기사는 신뢰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우선 응신 25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응신의 재위는 390년 즉위부터 403년 사망시까지 13~4년이다. 더구나 목씨 씨족이 스스로 작성한 사서에 이러한 내용이 나올 리가 없다. 따라서 가필된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21)</sup> 더구나 인덕천황 41년조를 보면 구이신왕대에 왕모와 밀통한 것은 백제 왕족인 주군(酒君)인 것으로 나온다. 인덕천황 41년조는 일본 서기 기년으로 353년이지만 실제로는 420년이다. 『일본서기』 편저자들이 편년을 실제 시기와 점차 맞추어 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기년을 복원해서 찾아야 기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기각숙네(=목각숙네)<sup>22)</sup>가 웅진백제와 국군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온다.

“41년 봄 3월에 기각숙네를 백제에 파견하여 처음으로 국군의 경계를 나누고,  
각 지역에서 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였다. 그때 백제의 왕족 주군이 무

20) 김성호, 앞의 책, 1982.

21) 이근우, 『『일본서기』·『신공기』 가라 7국 정벌 기사에 대한 기초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 이근우는 『백제기』 내용과 비교해서 『일본서기』 본문에 목만치를 현저히 폄하하고 있고, 이는 『일본서기』 편찬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목현만치에 대한 평가가 8세기 초반에도 현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백승충, 『『일본서기』 목씨·기씨 기사의 기초적 검토: 신공~현종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4, 2015. 백승충은 모든 분주에 『백제기』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라근자와 달리 목만치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술되어 의아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아버지의 공으로 임나를 오로지 했다는지, 백제에서의 폭정과 왕모와의 사통을 이유로 소환했다는 것도 목만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석, 『무내숙네 전승의 형성과 대신제』, 『한성사학』 30권, 한성사학회, 2015. 이재석도 일본서기가 의도적인 반소아씨(목씨)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2) 기각숙네(목각숙네)는 나중에 일본에서 기(紀)씨의 전승상의 조상이 된다. 이들 씨씨는 일찍부터 수군을 보유한 군사씨족으로 파악되고 있다. 목씨 씨족은 수군을 주력으로 하는 군벌 씨족이었던 것이다. 그 후손인 기씨들의 일본 내 본거지에서도 한반도계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례하였다. 이 때문에 기각숙네가 백제의 왕을 책망하였다. 그때 백제의 왕이 두려워하여 쇠사슬로 주군을 묶어서 습진언에게 팔려서 바쳤다. 이에 주군이 와서 석천금직수허려사의 집으로 도망가 숨었다.”

(마)의 기사에서 목만치는 목라근자가 신라를 정벌할 때 그 지역에서 부인을 얻어 낳은 자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목만치는 3세기의 인물이 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목협만치가 475년 한성백제 멸망시 문주왕을 호위하고 웅진으로 내려온다는 내용이 나온다. 목만치는 목협만치와 동일인물로 보인다. 목만치는 이중천황 시기에 열도 조정에서 복무하다가 한성백제가 붕괴를 앞둔 위급상황에 처하자 임나로 들어가서 군대를 이끌고 한성으로 복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목만치는 목씨의 중시조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만치는 목라근자의 친자식이 아니라 자손인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시조격인 목라근자와 중시조격인 목만치를 모두 모욕하는 내용이어서 소아(蘇我)씨 정권을 전복하고 『일본서기』를 편찬한 천지천황 계열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기사로 판단된다.

아래의 기사는 흠명천황기에 기록된 기사인데 백제 성왕의 조정 대신 구성이 상좌평 사택기루, 중좌평 목리마나, 하좌평 목윤귀 등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사씨와 목씨가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 영산강 세력이 백제 중앙으로 진출하고 기존의 웅관묘를 폐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성왕 시기에 목간나가 면중후로 책봉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했다면, 성왕 시기에는 목씨들이 대거 중앙관료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3)</sup> 은제 장식을 머리에 꽂

23) 동성왕이 498년 무진주로 진출한 것을 두고 이 해에 영산강 세력이 백제가 흡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공납과 조세 문제에 대한 불만을 직접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동성왕은 중앙집권제를 본격화하고자 했지만 영산강 세력은 담로제를 지속하고자 했다.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동성왕이 영산강 유역에 행차했다. 물론 동성왕의 군대는 백제와 영산강 세력이 동일한 연방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탐라를 핑계대로 무진주까지 행차한 것은 백제 중앙정부의 재정적 취약성에 무관심한 영산강 세력에 대해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서 동성왕이 실각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동성왕이 행차한 것은 음력 8월인데 영산강 유역의 추수기는 음력 9월이다. 따라서 추수기를 활용하여 영산강 세력을 제압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은 이들은 바로 성왕 시기에 조정 관료로 진출한 목리마나, 목윤귀 등이 그 주인공일 것이다. 목씨는 백제 조정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임나를 장악하였으며, 열도 왜 조정에서도 엄청난 권력을 거머쥔 것으로 나타난다.

“(흙명 4년) 12월에 백제의 성명왕이 다시 이전의 조서를 군신에게 두루 보이며 ‘천황의 조칙이 이와 같다.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물었다. 상좌평 사택기루, 중좌평 목리마나, 하좌평 목윤귀, 덕솔 비리막고, 덕솔 동성도천, 덕솔 목리미순, 덕솔 국수다, 나솔 연비선나 등이 의논하여 ‘... 임나를 세우라는 조칙은 속히 받들어야 합니다. 지금 각 국의 한기들을 소집하여 같이 모의하여 표를 올려 뜻을 전하십시오. 또한 하내직, 이나사, 마도 등이 계속 안라에 머물러 있으면 아마도 임나를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울러 표를 올려 본거지로 옮기도록 부탁드립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성명왕이 ‘군신들이 의논한 것이 실로 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목씨 세력은 수차례의 정복전쟁에 참여했다. 가야 7국 정벌 전쟁 또는 포상팔국 전쟁을 필두로 임나국 재건(목라근자), 400년 광개토왕의 임나 공격 방어(목토숙네), 신라와 대결 후 120현민의 열도 이주(목토숙네), 한성백제 멸망시 문주왕 호위 및 웅진백제 재건(목협만치), 2차례에 걸친 북위와의 전쟁 승리(목간나) 등 3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대규모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목씨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백제 왕실의 핵심 사안들을 처리하는 등 최고위 관리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열도와 가야를 핵심 근거지로 삼아 활동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① 근거지가 영산강 유역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

만 많은 전쟁을 치른 강력한 정복세력이라는 점, ② 장기간에 걸쳐 왕에 버금가는 최고위급 관리를 배출한 세력이라는 점, ③ 수군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대륙, 열도를 제 집 드나들 듯 하던 무장세력이라는 점, ④ 가야와 왜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세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영산강 회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고 영향력이 400년간 지속되었는지 여부도 아직 확실치가 않다. 그런데 가야에서의 각종 전쟁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고, 열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보아 ③과 ④의 특성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목씨 씨족의 영산강 유역과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열도에서 이들이 어떻게 활동했으며 이들과 관련된 각종 문헌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 4. 목씨 세력의 열도 이주와 소아씨 정권의 전개 과정

『삼국사기』에서 목협만치는 문주왕을 호위하고 한성 이남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웅진의 구 왕궁터를 개보수하여 백제의 제2 건국을 도모하지만 문주왕마저 암살되자 목협만치는 열도로 다시 건너온다. 목협만치는 이중천황하에서 관료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웅신천황 시기에 일가가 열도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목협만치가 이미 소아씨로 개명한 상태에서 한성으로 복상했다는 사실이다.<sup>24)</sup> 이를 통해 목씨 세력이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감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주가 데려온 신라군 1만과 별도로 가야의 임나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한성으로 올라간 것이다. 『일본서기』의 이중천황기에는 소아만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24) 소아씨는 6세기에서 7세기 중엽까지 1백여년 동안 왜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정치세력을 형성한 씨족이다. 목협만치로 등장하여 문주왕을 호위한 소아만지(蘇我滿智)는 목라근자가 아니라 소아석하숙네의 아들로 나온다. 소아석하숙네는 건내숙네의 자식으로서 소아씨의 조상이다.

“2년 봄 정월 병오삭 기유(4일)에 서치별황자를 저군으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반여에 도읍을 조영하였다. 이때 평군목토숙네(平群木菟宿禰), 소하만지숙네(蘇賀滿智宿禰), 물부이거불대련(物部伊苕弗大連), 원(圓)[원은 츠부라(豆夫羅)라고 읽는다.] 대사주가 함께 국사를 집행하였다.”

소아만지숙네(=목협만치)는 목토숙네, 물부이거불대련 등과 함께 이중천황기부터 국사를 집행하고 있었다. 목협만치의 집안은 열도에 건너가서 정착한 지명을 본따 소아(蘇我)로 성씨를 바꾸었다. 목협만치의 아버지는 『일본서기』에 석천숙네로 나오는데, 『고사기』 효원단의 소아석하숙네(蘇賀石河宿禰)와 동일인이다. 소아석하숙네는 건내숙네(=무내숙네)의 자식으로 나오는데, 일본 소아씨의 조상이다. 목씨는 3세기의 목라근자를 원시조로 하고, 5세기 말 소아석하숙네(석천숙네)와 그 아들 목협만치(=소아만지)를 중시조로 하는 두 집단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sup>25)</sup> 물론 이들은 성씨가 바뀌었지만 혈연적으로는 하나였다.<sup>26)</sup>

그런데 성덕태자와 관련된 일본의 고대 사료인 『상국성덕범왕제설』에는 소아씨가 원래 임씨였다고 나온다. 『일본서기』 황국천황기에는 소아입룩이 임신(林臣)이고 다른 이름은 안작(鞍作)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목씨

25) 목만치가 열도로 건너가 소아만치가 되었다는 연구는 일본에서 먼저 이루어졌는데, 門脇禎二, 「蘇我氏の出自에 대하여」, 『日本속의 朝鮮文化』 12, 1971; 鈴木靖民, 「木滿致와 蘇我氏」, 『日本속의 朝鮮文化』 50, 1981. 門脇禎二, 鈴木靖民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후 국내의 연구로는 김은숙, 「『일본서기』 ‘임나’ 기사의 기초적 검토」, 『한국사시민강좌』 vol. 11, 일조각, 1992; 이재석, 「소아씨 세력 성장의 토대: 대신 취임의 기반」, 『백제문화』 29, 2000; 김현구, 「백제의 목만치와 소아만지」, 『일본역사연구』 25, 2007; 박재용, 「고대 일본의 소아씨와 백제계 씨족」, 『한국고대사연구』 86, 2017; 이근우, 「일본 고대 소아씨의 성격에 대하여」, 『역사와 경계』 104, 2017. 등이 있다.

26) 목씨 세력은 변신술과 적응력이 출중한 세력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씨족사회의 특성에 맞게 성씨를 세력화를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삼았다. 한반도 내에서 임(林)씨로 성씨를 개성하는가 하면, 열도에 건너가서는 소아씨만이 아니라 기씨, 평군씨, 갈성씨 등 다양한 성씨로 변신하여 왜 왕실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각지에 진출하여 세력을 형성하다가 죽을 때에는 회진에 복귀하여 묻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고대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묘제를 수용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다양한 성씨의 수용과 다양한 묘제 도입은 목씨 세력의 핵심적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다.

가 소아씨로 곧바로 바뀐 것이 아니라 먼저 기존의 목(木)씨에 나무목을 하나 더 붙여 임(林)씨로 바꾼 다음 소아씨로 개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백제에서는 목씨가 임씨로 한 번 개성했던 반면, 열도에서는 목(木)씨 → 임(林)씨 → 소아(蘇我)씨로 바뀌었던 것이다. 열도에서는 소아씨를 성씨로 삼고 있었는데, 소아입록이 천지계열의 자객들에게 살해당하면서 소아입록의 성씨가 임(林)씨라는 점이 밝혀진다. 소아입록(蘇我入鹿)의 정식 이름은 소아대랑임신안작(蘇我大郎林臣鞍作)이다.

소아씨는 6세기~7세기 중엽까지 왜왕권의 최대 정치세력이었다. 소아만지숙네는 『공경보임』의 선화천황조에 나오는 소아도목숙네의 각주에 ‘소아도목은 만지숙례의 증손이고, 한자(韓子)의 손자이며, 고려(高麗)의 아들’이라고 나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 소아씨의 계보가 소아석하(蘇賀石河)–소아만지(蘇我滿智)–소아한자(蘇我韓子)–소아고려(蘇我高麗)–소아도목(蘇我稻目)–소아마자(蘇我馬子)–소아하이(蘇我蝦夷)–소아입록(蘇我入鹿)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열도 왕실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아만지는 475년에 웅락천황의 명으로 백제에 돌아가 웅진천도를 지휘한 목협만치로 추정된다. 이후 소아만지는 웅진 천도 후 국가 재건을 위한 정비에 깊숙이 관여하다가 열도로 복귀한다. 목씨(소아씨)는 백제 지역은 물론 임나 지역, 열도 지역 모두에 엄청난 씨족연합체, 군사력 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도로 복귀하여 왕실의 중책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아만지는 웅락천황 시기에 삼장을 검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sup>27)</sup> 소아한자는 웅락천황 9년에 기소궁숙네, 대반담련, 소록화숙네 등과 함께 대장으로서 신라 정벌에 나섰는데, 대반숙례와 반목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소아고려는 고구려 출신 부인을 맞이하여

27) 807년에 편찬된 『고어습유(古語拾遺)』에 따르면 삼장(齊藏, 內藏, 大藏)은 왜 왕권의 재정과 관련한 창고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가리킨다(『至於長谷朝倉朝...令蘇我滿智宿禰 檢校三藏[齊藏·內藏·大藏]』).

낡은 자식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관직을 수행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아도목은 열도에서 소아씨가 대신으로 발돋움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다. 소아도목은 선화천황기와 흙명천황기에 대신을 역임했는데, 흙명천황기에 왕실의 실권을 장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물부대련과 경합하는 대신으로서 딸을 흙명천황의 왕비로 삼음으로써 왜 왕실의 외척이 된다. 흙명천황기의 특징은 대부분의 지시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백제 성왕이라는 사실이다. 흙명천황은 존재감이 없어서 흙명천황기는 성왕 독백기 또는 성왕의 1인 2역설이 제기될 정도이다. 흙명천황기의 핵심 이슈는 성왕이 제기한 임나재건, 그리고 불교 도입 문제이다.

먼저, 성왕은 끊임없이 임나 재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임나재건회의 개최를 부르짖는데, 회의 결과 임나재건을 위해 왜가 내놓은 병력은 1천여 명이 전부이다. 사실상 왜 왕실은 임나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명목상 내관가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백제 왕실과 목씨 세력이 임나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열도와는 아무 상관조차 없었던 것이다. 임나재건회의의 참여자는 백제왕, 안라왕, 가라왕, 일본부의 신 등이다. 왕들이 모이는 회의에 사신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열도가 임나에 대해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8)</sup>

28) 말송보화(스에마쓰 야스카즈, 1949)는 『임나흥망사』에서 3세기 경에 이미 식민지를 건설할 정도로 일본의 고대 사회가 발전하였다는 논리를 제기하여 일제의 한반도 남부 식민지배설을 뒷받침해왔다. 그는 『일본서기』에 근거하여 임나일본부가 대화조정의 한반도 출선기관이며, 임나를 행정 외교기능을 갖는 군사기지로 간주했다. 특히 신공 49년조의 가야 정복 기사를 신공의 군사행위로 간주하고 나주까지를 왜가 정벌했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주장은 아직도 철회된 것이 아니다. 신공 49년조는 단순히 주체를 근초고왕으로 바꾼다고 해석이 바뀔 수 없다. 단순히 2주갑 인하여 근초고왕이 가야 7국을 정벌하고 영산강 유역까지 정벌했다는 해석은 너무나 실체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공황후의 정복전쟁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도 2주갑 인하여 신공이 320년 경 신라를 복속시키고, 369년에 왜군을 보내 초고왕과 함께 7국과 4읍을 점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계기로 임나가 성립했고 임나가 멸망한 562년까지 약 200년 간 일본이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본서기』에 대한 너무나 안이한 해석으로 인해 임나일본부설이 오히려 해소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일본서기』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임나일본부는 임나재건회의에 참석하는 사신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나를 식민지배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 더구나 임나 재건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왜가 아니라 백제 성왕이다.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득세하면서 광개토왕비의 왜를 열도의 왜로 동일시하고 한반도 남부에서 자신들의 식민지를 경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허구일 뿐이다.

성왕이 끊임없이 제기한 임나 재건회의에는 백제의 목씨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우선 중좌평 목리마나, 하좌평 목윤귀, 덕솔 목리미순, 덕솔 목리금돈, 목리시덕 문차 등이 바로 그들이다. 목씨 세력은 임나국을 장악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임나재건회의는 53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남가라(경남 김해), 탁순(경남 창원), 녹국(경남 거제) 등이 신라에 정벌됨으로써 이를 회복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이다.<sup>29)</sup> 왜 왕실에서는 갖은 핑계를 대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성왕은 임나재건을 부르짖다가 전사하고, 그 이후 흠명천황 23년인 562년에 임나 10국 전체가 신라에 멸망한다. 212년 목라근자의 정벌로 성립하여 350년간 지속되던 임나가 신라에 병합되어 버린 것이다. 임나의 역사는 『일본서기』의 흠명천황기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임나의 성립은 백제 장군 목라근자로 인한 것이며, 임나국을 통치한 것도 목만치와 그 후손들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나 3국이 신라에 병합되고, 멸망하기까지 그 재건을 위해 힘쓴 것은 백제 성왕이었다. 임나일본부는 성왕이 즐기차게 소집한 임나재건회의에 파견된 왜의 사신이었으며, 임나 재건에 왜가 파견한 병력은 구원군 1천명, 말 1백필, 배 40척이 전부였다. 성왕은 1만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이를 보면 임나는 백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왜와는 관련성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흠명천황기의 왜 왕실에서 소아도목은 조정에서 묵묵히 재정을 챙기고 있다. 왜 왕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둔창 문제인 것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모든 둔창 설치 문제를 소아도목이 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특히 둔창 중에

29) 212년 『삼국사기』에서 사라진 가야는 481년 3월에 “고구려와 말갈이 쳐들어왔으나 신라·백제·가야 연합군이 이를 격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재등장한다. 따라서 남가라는 다른 가야국들보다 최소 50년 전에 임나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30) 둔창(屯倉)은 대왕가의 영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6세기에 들어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둔창은 왜 왕권이 전국적인 지배체제를 갖추는 데 있어 정치경제적 기초를 제공한 기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행주, 「일본고대국가와 백제계 도래인: 특히, 백제계 문필(史姓)씨족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2집, 2015. 소아도목은 이러한 정치군사적 지배의 거점이자 경제적 기반을 장악하여 소아씨의 권력기반을 닦았다고 말할 수 있다.

서도 백제둔창, 한인대신헌둔창, 고려인소신헌둔창 등 도래인 관련 둔창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도래인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흠명 14년) 가을 7월 신유삭 갑자(4일)에 장구궁에 행차하였다. 소아대신도 목숙네는 칙을 받들어 왕진이를 보내 선박세를 부과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흠명 16년) 가을 7월 기술삭 임오(4일)에 소아대신도목숙네와 수적반궁신 등을 보내어 길비의 다섯 개 군에 백제 둔창을 두도록 하였다.

“(흠명 17년) 가을 7월 갑술삭 기묘(6일)에 소아대신도목숙네 등을 비전의 아도군에 보내어 둔창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겨울 10월 소아대신도목숙네 등을 왜국의 고시군에 보내어 한인대신헌둔창[여기서 한인이란 백제를 이른다], 고려인소신헌둔창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국에 해부둔창을 두도록 하였다.”

소아도목은 흠명천황기에서 성왕이 노리사치계를 보내 불법을 전하자 이에 적극 찬성하고 나선다. 그런데 물부대련미여, 중신련겸자 등은 이에 반대하여 열도 내에서 숭불세력 대 배불세력 간 권력투쟁이 벌어진다.<sup>31)</sup> 초기에는 숭불정책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성사를 보지 못한다. 이에 흠명천황은 소아도목숙네에게 시험삼아 예배하라고 명하였는데, 돌림병이 돌자 이를 핑계로 배불세력이 들고 일어나 불상을 강에 던져 버리고 가람에 불을 놓는 등 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소아도목 시기에는 극단적인 갈등 양상으로까지 비화하지는 않았다. 이는 소아도목이 매우 신중한 실무형 대신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열도를 부족국가에서 고대국가로 발돋움시킨 아스카 시대를 열어 나간 소아마자는 민달천황 원년에 소아도목의 뒤를 이어 대신의 자리에 올랐다. 소아마자는 초기에 소아도목이 수행했던 둔창 일을 계속하고, 동시에 불교를 도입하는 데

31) 열도 내에서 불교 도입을 둘러싼 소아가와 물부가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이덕일, 『오국사기 Ⅰ, Ⅱ, Ⅲ』, 김영사, 2002 참조.



보다 더 적극성을 보인다. 그는 환속한 승려 고려혜편을 스승으로 모시는가 하면, 일본 최초의 비구니를 출가시킨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소아마자는 홀로 불법에 귀의하여 세 비구니를 받들어 숭경하였다. 소아마자는 자신의 집에 불전을 세워 불법의 기초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용명천황 원년에 흠명천황의 아들인 혈수부황자가 천황이 되고자 취옥희황후를 범하려고 하였다. 이를 충신인 삼륜군역이 막아서자 그를 마침내 죽이고 만다. 이에 소아마자가 “천하가 머지않아 어지러워질 것이다.”라고 탄식하자 물부수옥대련(物部守屋大連)이 이를 듣고 “너는 소신(小臣)이어서 알 수 없는 바이다.”라고 조롱한다. 용명천황이 병이 들어 불교에 귀의하려고 하자 물부수옥과 중신승해련이 천황의 명을 거역하면서 이를 반대하였다. 이에 승불 세력과 배불 세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천황이 사망하자 소아마자는 흠명천황의 아들로써 소아도목의 딸을 어머니로 둔 승준천황을 옹립하기에 이르른다. 그런데 이때 물부수옥은 사냥을 핑계로 다른 황자들을 제거하고 혈수부황자를 천황으로 옹립하려 했다. 이 음모가 드러나자 소아마자는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승준 즉위 1년전) 6월 갑진삭 경술(17일)에 소아마자숙네 등이 취옥희존을 받들어 좌백련단경수, 토사련반촌, 적신진교에게 ‘너희들은 병사를 갖추어 속히 가서 혈수부황자와 택부황자를 주살하라.’고 명하였다. 이날 밤중에 좌백련단경수 등이 혈수부황자의 궁을 에워쌌다. 이에 위사가 먼저 망루 위에 올라 혈수부황자의 어깨를 내리쳤다. 황자는 망루 아래로 떨어져서 옆 건물로 달려 들어갔다. 위사 등이 횃불을 들고 찾아서 그를 죽였다. 신해(8일)에 택부 황자를 죽였다.... 혈수부황자와 친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혈수부황자를 제거한 이후 소아마자는 여러 황자와 군신에게 권하여 물부수옥대련을 멸할 것을 모의한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물부대련을 토벌하러 간다.

물부대련은 그 자제들과 사병을 이끌고 이에 대응했는데, 결국은 소아마자 세력에게 죽임을 당한다. 소아마자는 승리한다면 절과 탑을 세우고, 삼보를 널리 통하게 하겠다는 맹세를 하고 물부씨 토벌에 나선다.<sup>32)</sup>

“(송준 즉위 1년전) 이에 적견수적수가 화살을 쏘아 대련을 나무 아래로 떨어뜨리고, 대련과 그의 아들 등을 죽였다. 이로 인해 대련의 군대는 갑자기 스스로 무너졌다. 군사들은 모두 조의를 입고 광뢰의 구원에서 사냥하듯 흩어졌다. 이 전쟁에서 대련의 자식과 권속들 중 어떤 자는 도망하여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서로 ‘소아대신의 처가 물부수옥대련의 누이이다. 대신이 망령되어 처의 계략을 써서 대련을 죽였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소아마자는 사실상 왜 왕실을 장악한다. 송준의 천황 즉위는 소아마자와 물부대련 간 권력투쟁의 결과였다. 이로써 송불세력 대 배불세력 간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소아마자가 옹립한 송준천황은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소아마자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송준천황 5년 겨울 10월에 천황은 멧돼지를 가리키며 “언젠가 이 멧돼지의 목을 자르는 것처럼, 짐이 싫어하는 사람을 자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많은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이에 총애를 잃은 송준의 비가 이 사실을 소아마자에게 고하자 그는 무리를 불러 천황을 죽인다. 그리고 천황을 암살한 바로 그 날 장례를 치러 버린다. 이는 신하가 천황을 제거한 전무후무한 사례이며, 그 이후 소아마자의 권력은 열도 내에서 따를 자가 없을 정도였다.

32) 소아마자는 근위병의 주축을 이루던 대반씨와 동한씨 등 여러 씨족과 대신들을 동원하여 국가 군사조직을 장악한 물부씨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이후 소아마자의 권력은 대왕의 권력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이근우, “일본 고대 소아씨의 성격에 대하여,” 『역사와 경계』104, 2017.

“(송준 5년) 11월 계묘삭 을사(3일)에 마자숙네는 여러 신하들을 속여 ‘오늘 동국의 조를 올린다’라고 말하고 곧 동한직구로 하여금 천황을 죽이게 하였다...이 날, 천황을 창제강릉에 장사지냈다.”

소아마자는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혈수부황자와 택부황자 그리고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물부씨를 제거한다. 그리고 송준천황을 제거하는 등 왜 왕실을 피로 몰들였다. 혈수부황자나 송준천황은 모두 소아도목이 섬긴 흠명천황의 자제들이었다. 따라서 제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성덕태자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법륜사 인근에 후지노키 고분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지노키 고분의 조성은 6세기말로 추정되는데,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금동관, 금동신발, 대도, 검 등 엄청난 유물이 발굴되었다. 특히 후지노키 고분에서는 5세기 말 ~ 6세기 초로 비정되는 복암리 96호분에서 출토된 물고기 문양의 금동신발과 친연성을 지닌 금동신발이 출토되어 나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sup>33)</sup> 무엇보다 황혈식 석실 자체가 복암리 96호분과 빼닮았다. 현재 후지노키 고분의 피장자는 혈수부황태자와 택부황자, 또는 송준천황 등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분의 조성이 소아마자의 지시와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왜 왕실을 완전히 장악한 소아마자는 흠명과 소아도목의 딸 사이에서 태어나 민달천황의 황후였던 조가 추고천황을 여제로 옹립한다. 사실상 허수아비를 세우고 소아마자가 열도를 통치하게 된 것이다. 추고 원년에 추고천황은 구호풍충이황자, 즉 성덕태자를 황태자로 삼고 모든 국정을 위임해버린다. 이와 관련하여 오야마 세이이치<sup>34)</sup>는 성덕태자가 허구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아마자

33) 조원창, 「고대 한일 위세품에 보이는 물고기 문양의 계통과 전파」, 『지방사와 지방문화』 17권 1호, 2014.

34) 오야마 세이이치 저, 연민수 · 서각수 옮김, 『일본서기와 ‘천황제’의 창출: 후지와라노 후히토의 구상』, 동북아역사재단, 2012.

가 성덕태자를 활용해 권력을 장악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본서기』에서 성덕태자의 존재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성덕태자는 엄청나게 숭고한 존재로 숭앙되었지만 실제 인물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추고천황이나 성덕태자 모두 실체가 안보이고 모든 것은 소아마자가 장악하여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마자는 추고천황 34년까지 열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존재로 군림하면서 아스카문화(飛鳥文化)를 일으켰다.<sup>35)</sup>

소아마자의 절대권력은 씨족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왜 왕실 내에서 군권과 재정 등을 모두 장악한 것에 기인한 바 크다. 무내숙네의 자식으로 등장하는 소아씨, 평균씨, 기씨는 모두 목씨와 직접 연관된 성씨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성씨도 무내숙네를 공동 시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갈성씨는 열도로 이주한 사씨들이 자신들이 이주한 지역명을 따서 붙인 성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의 목씨와 사씨가 무내숙네라는 공동 시조를 중심으로 사실상 합가를 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울러 소아씨는 동한씨를 휘하에 둠으로써 세력기반을 강화했다.<sup>36)</sup>

목씨와 사씨의 연합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야정벌시 백제 장군들로서 목라근자와 사사노궤, 사백개로 등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 그런데 가야 사직과 관련하여 신라를 치라고 마한 진왕이 사지비궤를 보냈는데 신라가 아니라 가야를 치고 만다.<sup>37)</sup> 이에 다시 목라근자가 출동하여 사직을 복구한다는

35) 일본 황실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복수의 왕가가 존재하고, 그들이 교대로 대왕(오키미)이 되었다. 오야마 세이이치 저, 연민수 · 서각수 옮김, 『일본서기와 ‘천황제’의 창출: 후지와라노 후히토의 구상』, 동북아역사재단, 2012. 소아마자(蘇我馬子)는 사실상 복수의 왕권을 창출한 인물이다. 『일본서기』의 편저자들은 만세일계의 원칙으로 마치 열도 전체에 하나의 왕조만 존립한 것처럼 기록하였지만, 열도에는 고대에 30여개 국이 넘는 나라들이 존재했다.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아니라 부족국가 단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문, 야요이, 고분시대를 거치면서 갑자기 근대국가 아스카 시대가 열린다. 일본의 고대국가가 중국, 한반도 등의 국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사료는 대부분 백제삼서에 의존했다.

36) 연민수, 「고대일본의 한반도계 씨족과 역할」, 『임나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37) 『일본서기』에는 사지비궤를 파견한 것이 신공황후로 나오지만 사지비궤는 백제 장군이므로 『백제기』를 활용하여 신공을 정복군주로 윤색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씨와 사씨가 같은 곳에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백제 성왕의 조정에서는 상좌평이 사씨, 중좌평과 하좌평이 목씨로 나온다. 그리고 5세기 말 경에 웅락천황이 갈성씨를 멸망시킨 이후 소아마자는 갈성지역을 공식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추고천황 32년) 겨울 10월 계묘삭(1일)에 대신이 아담련과 아배신마려 두 사람을 파견하여 천황에게 ‘갈성현은 신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그 현의 이름을 따서 성명을 만들었습니다. 영구히 이 현을 사여하여 저의 봉현으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천황이 ‘짐은 소아씨에서 나왔다. 대신 또한 짐의 숙부이다. 그래서 대신의 말은 밤에 말한 것은 밤이 새기 전에, 낮에 말한 것은 날이 저물기 전에 무슨 일이든지 들어주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짐의 치세 동안에 이 현을 잃어버리면 후대의 천황들이....’라고 말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소아마자는 모든 것을 장악했지만 갈성현만은 얻지 못했다. 그것은 웅락이 갈성현을 본거지로 했던 사씨 세력을 거세한 바 있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소아마자는 왜 왕실에서 전대미문의 권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수서』 동이전에는 개황 20년(600)에 왜왕이 사신을 보내왔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6세기말과 7세기초에 걸쳐 절대권력을 가진 남성 왜왕이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후궁에는 여자가 600~700인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추고천황이 아니라 소아마자를 왜왕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수서』 동이전). 소아마자의 궁전, 아스카사, 야마토 최대의 전방후원본인 미세마루야마고분, 석무대(이시부타이)고분 등은 모두 소아씨가 사실상 천황과 별도의 왜왕으로 군림했음을 보여주는 유적들이다. 석무대는 소아마자의 무덤으로 390개의 돌로 만든 2,300톤 규모로 만들어졌다. 겉모양은 화순의 바둑판식 고인돌과 유사한 형

대인데, 무덤 아랫부분에 거대한 석실이 있다.<sup>38)</sup>

추고천황 사망 후 9월에 장례가 끝났는데도 후계가 정해지지 못하였는데, 이때 소아하이가 소아마자를 이어 대신이 되었다. 그는 전춘황자를 서명천황으로 추대하여 다시 최고 권좌에 오른다. 소아하이는 다른 유력 호족들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소아씨 피를 물려받은 산배대형황자를 피하고 서명천황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소아하이와 그 아들 소아입록은 권세를 과시하다가 많은 정적들을 만들었다. 아래의 기사들은 소아씨가 점차 왜 왕실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황국천황) 원년 봄 정월 정사삭 신미(15일)에 황후가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이전과 같이 소아신하이를 대신으로 삼았다. 대신의 아들 입록[다른 이름은 안작(鞍作)]은 스스로 국정을 장악하였는데, 그 위세가 아버지 이상이였다.”

“(황국 원년) 이 해에 소아대신 하이는 스스로 선조의 사당을 갈성의 고궁에 세워 팔일(八佾)의 춤을 추었다. 마침내 노래를 지어 불렀다....그리고 모든 나라 안의 백성과 180부곡을 징발하여 미리 쌍묘를 금례에 만들었다. 하나는 대릉이라 부르고 대신의 묘로 삼았고, 다른 하나는 소릉이라고 부르고 입록의 묘로 삼았다.”

“(황국 2년) 임자(6일)에 소아대신하이가 병으로 조정에 나오지 못하였다. 마음대로 자관을 아들 입록에게 주어 대신의 자리에 준하게 하였다. 또 입록의 동생을 물부대신이라 불렀다. 대신의 조모는 물부궁삭대련의 누이였다. 따라서 외갓집의 재력에 의지하여 위세를 세상에 떨친 것이다.”

“무오(12일)에 소아입록은 독단으로 상궁의 왕자들을 폐하고 고인대형을 천황

38) 아스가 주변의 고분에는 소아도목, 소아마자, 소아하이, 소아입록 등 소아씨 4대가 묻힌 것으로 보이며, 특이한 것은 흙명천황이 이곳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야마 세이이치(위의 책)는 우메야마고분, 즉 흙명천황릉은 기로를 거쳐 멀리 바다 저편으로 통하는 기점으로서 한반도에서 오는 외교 사절을 맞이하기 위해 정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흙명천황 시기에 목씨 세력은 백제 성왕 조정에서 맹 활약했고, 임나회의의 주축이었으며, 열도에서 소아도목이 대신으로 활약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에 세우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때 동요가 있었는데, ‘바위위에서 작은 원숭이가 쌀을 굶고 있다. 적어도 이 구운 쌀이라도 먹고 가라. 산양과 같은 (백발의) 아저씨여.’라고 하였다[소아신입록은 상궁의 왕들이 위명을 천하에 떨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혼자 참람되게 왕이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소아입록은 황위 계승에 반발한 산배대형왕 등을 제거하고자 군을 동원하였다. 산배대형왕은 잠시 피했다가 자제, 비첩 등과 함께 한시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어 버린다. 그때서야 소아하이는 “아아, 입록은 극히 어리석어 오로지 난폭한 짓을 행하였다. 너의 생명 또한 위태롭다.”라고 질책한다.

“사람들은 앞의 동요에 응답하기를 ‘바위위’라는 것은 상궁, ‘작은 원숭이’라는 것은 임신(林臣)에 비유된다[임신은 입록이다.] 그리고 ‘쌀을 굶는다.’라는 것은 상궁을 태우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쌀이라도 먹고 있으라. 산양과 같은 백발의 늙은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산배왕의 두발이 얼룩진 것을 산양에 비유한 것이라고 한다. 또 ‘그 궁을 버리고 깊은 산에 숨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왜 왕실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황극 3년 봄에 중신겸자련이 중대형과 모의하여 소위 ‘을사의 변’을 준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겨울 11월에 소아대신하이와 아들 입록은 집을 감도강에 나란히 지었다. 대신의 집은 위쪽의 궁문이라 부르고, 입록의 집은 골짜기[谷]의 궁문이라 이름 붙였다. 자녀들은 왕자라고 불렀다. 또, 집밖에 성책을 만들고 문 옆에는 병기고를 지었으며, 문마다 물을 가득 담은 배 한 척과 목구 수십 개를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했고, 항상 힘이 센 장사에게 무기를 들게 하여 집을 지키게 하였다. 황극천황 4년에 결국 ‘을사의 변’이 발생했다. 소아씨의 막강한 무력을 고려해 나중에 천지천황이 되는

중대형은 소아입록을 단신으로 황궁에 불러서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6월 정유삭 갑진(8일)에 중대형이 비밀리에 창산전마려신에게 ‘삼한이 조를 바치는 날에 당신에게 상표문을 읽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입록을 참살하려는 모략을 알린 것이다. 마려신이 받들어 승낙하였다. 무신(12일)에 천황이 대극전으로 나아갔다. 고인대형이 그 곁에서 모셨다. 중신검자련은 소아입록신이 의심이 많아서 낮이나 밤이나 칼을 차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에게 시켜 방편으로 칼을 풀어 놓도록 하였다. 입록신은 웃으면서 칼을 풀어 놓고 좌석에 들었다. 이윽고 창산전마려신이 앞으로 나아가 삼한의 상표문을 읽었다. 이때에 중대형은 위문부에게 명하여 일제히 12개의 통용문을 모두 폐쇄하여 왕래할 수 없도록 하였다....그리고 해견양려승마려에게 상자숙의 두 개의 칼을 좌백련자마려와 갈성치견양련망전에게 주며 ‘방심하지 말고 불시에 들어가 베어라.’라고 명하였다....중대형은 자마려 등이 입록의 위세에 두려워하여 주저하며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라고 외치면서 갑자기 뛰어나와 검으로 입록의 머리와 어깨를 베었다. 입록은 놀라서 일어났다. 이에 자마려도 칼을 휘둘러 한쪽 다리를 베었다....천황은 심히 놀라 중대형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중대형은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안작은 천종을 멸망시키고 일위를 쇠하게 하려 합니다. 어찌 천손으로서 안작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소아신입록의 다른 이름은 안작이다.]. 천황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궁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좌백련자마려와 치견양련망전은 입록신을 참살하였다. 이 날에 비가 내려 뜰에 물이 가득 고였다. 거적과 문짝으로 안작의 시체를 덮었다. 고인대형은 이 상황을 보고 사궁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한인(韓人)이 안작신을 죽였다[한정(韓政)으로 인하여 주살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마음은 비통하다.’고 말하였다.”



중대형과 중신검자련의 ‘을사의 변’ 쿠데타가 성공하자 소아하이는 주살당하기 전에 천황기(天皇記), 국기(國記) 및 진보를 남김없이 불태웠다. 그때 선사해 척이 재빨리 불타던 국기를 집어내어 중대형에게 바쳤다. 이때의 국기는 나중에 『일본서기』를 편찬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형은 소위 대화개신 이후에 황태자로 책봉되고 나중에 천지천황으로 등극한다.<sup>39)</sup> 그리고 중신검자련은 천지천황에게 후지와라라는 성을 수여받는다. 이를 통해 열도 최고의 귀족 가문인 후지와라 가문이 출현하게 된다. 중신검자련의 차남 후지와라노 후히토는 『일본서기』를 편찬한 인물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아만지의 후손들은 원래 목씨였으나 6세기 중에 한반도의 목씨가 임(林)씨로 개성하자 임씨 성을 가지고 있었고, 열도에서는 소아씨로 대를 이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6세기 중반 임나가 멸망하고, 7세기 중반에는 ‘을사의 변’으로 소아씨까지 실각하면서 목씨 세력은 급격히 쇠퇴한다. 백제 멸망 전후에 사씨는 포로로 잡히거나 부흥운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목씨는 달솔 목소귀자(木素貴子) 이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소아씨 중 상당수는 열도에 묻혔을 것이나 일부는 나주 회진의 본가에 묻힌 이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목만치는 5세기말 한성백제 멸망 후 문주왕 후위 및 웅진백제 재건, 임나 국정 장악, 열도에서 왕실 재정 총괄, 열도 소아씨의 시조 등 막강한 정치군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때, 복암리 3호분 96석실분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

39) 중대형황자는 645년 ‘을사의 변’ 이후 대화개신에 착수한다. 그러나 백제 구원을 위한 백강전투에서 패전하고, 천지천황 사후에 황위를 둘러싼 ‘임신의 난’이 발생하는 등 혼란을 겪는다. 그러다가 지통천황 기인 701년에 가서야 다이호 율령 제정으로 중국을 모방한 고대국가가 완성된다. 율령제는 호적작성이나 통일된 세금제도를 말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율령제와 국가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천황은 종교적 존재로 전락해버린다.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소아씨 정권하에서 천황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권한만 남기고 정치군사, 재정, 외교 등의 모든 권한을 최고실력자가 장악하도록 만든 이원적 지배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천황과 장군의 관계, 천황과 수상의 관계는 소아씨 정권에서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5. 아파트형 고분 유적과 목씨 관련 문헌의 연관성 분석

우리는 나주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고분의 네 가지 특성을 추출하고 이와 관련된 목씨 세력의 문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이들이 영산강 유역 회진의 아파트형 고분의 주인공들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었다. 목씨 세력은 ① 영산강 유역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정복세력, ② 누대(400년)에 걸쳐 최고위급 관리를 배출하는 등 칠조산(七造山) 고분을 조영한 세력(영향력의 장기 지속),<sup>40)</sup> ③ 철기 등 최신 무기를 갖춘 무장세력, ④ 가야 및 왜와 친연성을 갖춘 세력 등이라는 나주 회진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들의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단 이들은 고구려, 가야는 물론이고 북위와도 전쟁을 치른 정복세력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3세기부터 7세기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백제와 가야, 그리고 열도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열도에서는 100여년 간 소아씨 정권을 유지하면서 열도가 불교국가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세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아파트형 고분 사이의 친연성은 존재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의 성씨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40) 나주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은 가족 추가장이 특징인데, 백제, 가야나 왜 등지로 파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본가인 나주 복암리를 장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살아 생전 활동 지역의 무덤양식을 수용하여 조영하였기 때문에 왜계 무덤양식을 비롯한 다양한 무덤양식이 병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신찬성씨록』에서 발췌한 주요 씨족의 성씨<sup>41)</sup>

서열	본관	종별	씨족	성	시조	비고
1	좌경	황벌	식장	진인(眞人)	出自譽田天皇【諡應神】皇子稚淳毛二僕王之後也	
2	좌경	황벌	산도	진인	稚淳毛二僕親王之後也	日本紀合
3...	좌경	황벌	판전주인	진인		
31...	우경	황벌	산도	진인	應神皇子稚淳毛二僕親王之後也	
42	산성국	황벌	삼국	진인	繼體皇子椀子王之後也	日本紀合
43	대화국	황벌	주인	진인	繼體皇子兔王之後也	日本紀合
44	섭진국	황벌	위나	진인	宣化皇子火焰王之後也	日本紀合
66	좌경	황벌	전구	조신(朝臣)	武内宿禰大臣之後也	日本紀漏
67	좌경	황벌	앵정	조신	蘇我石川宿禰四世孫稻目宿禰大臣之後也	日本紀合
68	좌경	황벌	기(紀)	조신	建内宿禰男紀角宿禰之後也	
69	좌경	황벌	각(角)	조신	紀角宿禰之後也	日本紀合
70	좌경	황벌	판본(版本)	조신	紀角宿禰男白城宿禰之後也	
71	좌경	황벌	임(林)	조신	武内宿禰之後也	日本紀合
111	좌경	황벌	갈성	조신	葛城襲津彥命之後也	日本紀續日本紀 官符改姓並合
124	우경	황벌	평군	조신	武内宿禰男平群都久宿禰之後也	日本紀合
244	섭진국	황벌	물부	수(首)	孝昭天皇皇子大帶彥國押人命之後也	
265	하내국	황벌	임(林)	조신	武内宿禰之後也	續日本紀合
628	하내국	신벌	임(林)	숙네(宿禰)	室屋大連公男御物宿禰之後也	
783	좌경	제번(백제)	임(林)	연(連)	百濟國人木貴公之後也	
900	우경	제번(백제)	임(林)	-	百濟國人木貴公之後也	
977	섭진국	제번(백제)	임(林)	사(史)	百濟國人木貴公之後也	
1035	하내국	제번(백제)	임(林)	연(連)	百濟國撰支王【古記云周王。一本云直支王。】之後也	

우리는 목씨 세력이 임씨로 개성(改姓)하였고, 열도에서는 추가로 소아씨로 개성한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소아입록은 『일본서기』에 그 성이 임씨이고, 이름은 안작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신찬성씨록』에서 임씨가 누구의 후손인가를 확인해보았다. 이를 위해 『신찬성씨록』의 관련 기록들을 검토하

41) 『신찬성씨록』에서 발췌하여 일부는 한글로 옮김.

였다. 그 결과는 위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신찬성씨록』은 815년에 편찬되었는데, 열도의 지배계층에 해당하는 1,182개 성씨에 이르는 고대 씨족의 출처를 황별(皇別), 신별(神別), 제번(諸蕃) 등 세 종류로 구분하여, 성씨의 순위를 매겨 기록한 책이다. 랭킹 1위부터 44위까지는 응신천황의 후손인 진씨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임씨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랭킹 71위와 265위의 황별 임씨가 있는데, 이는 무내숙네의 후손으로 나온다. 목씨는 사실 무내숙네를 공동 조상으로 하는 집단들이다. 따라서 이는 목씨와 임씨, 소아씨가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랭킹 628위의 신별 임씨는 실옥대련공남어물숙네의 후손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버지인 대반실옥대련은 웅락천황 즉위시에 물부연목과 함께 대련이 된 인물이다. 웅락 사망후 성천황자의 난을 진압하고, 무열천황까지 5대에 걸쳐 대련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랭킹 1035위인 제번 백제 출신 임씨는 전지왕의 후손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들은 조상이 다른 것으로 나오지만 목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끝으로, 제번 중 백제 출신 임씨를 검토해보면 백제국 목귀공의 후손(百濟國人木貴公之後也)이라고 나온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백제국 목(木)씨들이 임(林)씨로 성을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소아씨들이 스스로 임씨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목씨는 6세기의 어느 시점엔가 임씨로 성씨를 바꾸었고, 열도로 진출한 세력들은 지역명을 따 소아씨로 성씨를 다시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국, 즉 한반도에서 계속 살아온 임씨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청의 2000년 인구조사결과 임씨의 관향별 인구현황 자료를 대조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임(林)씨가 크게 나주 임씨와 평택 임씨로 양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3〉 임(林)씨의 관향별 인구(2000년 통계)<sup>42)</sup>

관향	전국 인구수	관향	전국 인구수	관향	전국 인구수
나주	236,877	평택	210,089	부안	63,589
예천	58,403	조양	31,924	풍천	17,971
울진	15,334	강릉	14,303	경주	13,163
선산	10,042	은진	9,408	장흥	9,355

임(林)씨는 전체 117개의 본관을 갖고 있고, 총 인구는 76만2,767여명으로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많은 수를 가진 성씨이다. 그 중 10만명 이상은 나주 임씨 23만7천명, 평택 임씨 21만명 등으로 크게 나주 임씨와 평택 임씨로 양분된다. 나주 임씨는 예전에 회진이 본향이었으나 지명이 나주로 바뀌면서 나주 임씨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나주, 회진 임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씨는 평택 임씨에서 분관되었다. 따라서 나주 임씨와 평택 임씨가 우리나라 임씨의 대표적이다. 나주 임씨의 시조는 고려 충렬왕 때 장군인 임비(林庇)이다. 현재 나주 다시면 회진리에는 여전히 임씨 집성촌과 대종가가 있고, 전체 주민 200여 가구 중 100여 가구가 나주 임씨들이다.

이상의 사실 대조를 통해 필자는 나주 임씨가 목라근자를 필두로 하는 목씨의 후손들이며, 나주 아파트형 고분 피장자는 목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도 임씨가 많이 살고 있다. 이들은 일제 시대에 한국의 임씨가 창씨개명을 하면 자신들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운다며 창씨개명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성씨 중 창씨개명을 강요당하지 않은 성씨 중 하나가 바로 임씨이다.

42) [자료] 통계청(2013).

## 6. 맺음말

우리는 나주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의 특성을 ① 영산강 유역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정복세력, ② 누대(400년)에 걸쳐 최고위급 관리를 배출하는 등 칠조산(七造山) 고분을 조영한 세력(영향력의 장기 지속), ③ 철기 등 선진 무기를 갖춘 무장세력, ④ 가야 및 왜와 친연성을 갖춘 세력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백제의 대성팔족 중 하나인 목씨 세력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목씨 세력은 네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주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는 목씨 세력으로 파악된다.

첫째, 목씨 세력의 근거지는 영산강 유역 나주 회진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남제서』에 목간나가 면중후에 임명된 것은 목씨 세력이 영산강 세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이다. 또, 목만치의 후손인 소아입록의 성씨가 임씨라는 사실이 『일본서기』에 나와 있으며, 한반도에서 임씨는 나주 회진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암리 3호분 96석실분에서 출토된 5세기 말~6세기초 물고기 문양의 금동신발과 매우 유사한 금동신발이 1세기 후 열도의 아스카 시대를 주도한 소아마자의 전성기에 조영된 후지노키 고분에서 출토되었는데, 이는 소아씨들이 회진에 근거를 둔 세력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현재 나주 회진에 모여 살고 있는 나주 임씨들은 고대 문헌의 사실을 입증해주는 산 증인들이다.

아울러 목씨 세력은 가야 정벌 전쟁, 신라와의 전쟁, 광개토왕의 한반도 정벌 전쟁 대응, 한성백제 멸망시 문주왕 호위, 북위와의 전쟁 등 한반도에서 발생한 거의 대부분의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산강 세력이 대·내외적으로 갈등이 적었거나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속도가 느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영산강 세력은 주로 외부 원정을 통해 정복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다. 특히 영산강 목씨세력은 3세기에서 7세기까지 한반도는 물론 중국 대

륙, 열도, 서역까지를 포함해 가장 뛰어난 국제적 감각을 보유한 세력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목씨는 3세기의 목라근자 이후 7세기까지 꾸준히 최고위급 관리를 배출하는 등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가야정벌과 임나진국(목라근자), 한성백제 멸망 이후 웅진백제 재건(목협만치), 임나 통치(목협만치 등), 성왕기 백제조정 의 고위관료로 진출(중좌평 목리마나, 하좌평 목윤귀, 덕솔 목리미순, 덕솔 목리금돈, 목리시덕문차 등), 열도 천황가를 장악한 소아씨(소아도목, 소아마자 등) 등을 통해 백제와 가야, 열도에서 수없이 많은 고위관리를 배출하였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왕조가 아니면서 목씨만큼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한 씨족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셋째, 목씨 세력은 초기부터 철기로 무장한 세력으로서 해양 분야에 특화된 군벌집단이었다. 이들은 마한 진왕이나 웅진백제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수시로 군대를 동원하였고, 맡은 바 임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냈다. 특히 이들은 수군으로 특화된 군대를 보유하여 중국대륙은 물론 가야, 열도까지를 누비고 다녔다.

끝으로, 가야 및 왜와는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임나국을 건설하고, 열도에서는 100년 이상 천황가를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고분에 가야나 열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주 회진의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주 복암리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는 백제의 대성팔족인 목씨이고, 나주 임씨는 고고학적 유물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증인들이다.

## [참고문헌]

- 『고사기』,  
『고어습유』,  
『광개토왕비문』,  
『공경보임』,  
『남제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대당평백제비』,  
『상국성덕법왕제설』,  
『수서』, 동북아역사재단 주서·수서 외국전 역주,  
『삼국사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삼국유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삼국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동북아역사재단 삼국지·진서 외국전 역주,  
『신찬성씨록』,  
『일본서기』, 동북아역사재단, 『역주 일본서기』,  
『후한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강봉룡, 「5~6세기 영산강유역 ‘웅관고분사회’의 해체」, 『백제의 지방통치』, 학연문화사, 1996.
- 김낙중, 「영산강유역 초기 횡혈식석실의 등장과 의미」, 『호남고고학보』 29호, 2008.
- 김 상, 『삼국사기 사서비교를 통한 삼한사의 재조명』, 북스힐, 2004.
- 김 상, 『삼국사기 사서비교를 통한 삼한사의 재조명2』, 북스힐, 2011.
- 김성호,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 지문사, 1982.
- 김은숙, 「『일본서기』 ‘임나’ 기사의 기초적 검토」, 『한국사시민강좌』 vol. 11, 일조각, 1992.
- 김태식, 「함안 안라국의 성장과 변천」, 『한국사연구』 86, 1994.
- 김현구, 「백제의 목만치와 소아만치」, 『일본역사연구』 25, 2007.
- 나행주, 「일본고대국가와 백제계 도래인: 특히, 백제계 문필(史姓)씨족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2집, 2015.
- 노중국, 「마한의 성립과 변천」, 『마한·백제문화』10, 원광대 마한·백제연구소, 1987.
-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초기 백제사의 제문제』, 2018.



- 박재용, 「고대 일본의 소아씨와 백제계 씨족」, 『한국고대사연구』 86, 2017.
- 백승충, 『일본서기』 목씨 · 기씨 기사의 기초적 검토: 신공~현종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4, 2015.
- 신채호,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 1998.
- 연민수, 「고대일본의 한반도계 씨족과 역할」, 『임나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오야마 세이이치 저, 연민수 · 서각수 옮김, 『일본서기와 '천황제'의 창출: 후지와라노 후히토의 구상』, 동북아역사재단, 2012.
- 이근우, 「『일본서기』 '신공기' 가라 7국 정벌 기사에 대한 기초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
- 이근우, 「일본 고대 소아씨의 성격에 대하여」, 『역사와 경계』 104, 2017.
- 이덕일, 『오국사기』 Ⅰ, Ⅱ, Ⅲ, 김영사, 2002.
- 이덕일 · 이희근,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김영사, 1999.
- 이도학, 「목간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 이도학, 「영산강유역 마한제국의 추이와 백제」, 『백제문화』, 제49집, 2013.
- 이병도, 「백제의 흥기와 마한의 변천」, 『한국사-고대편』, 진단학회, 1959.
-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 이재석, 「소아씨 세력 성장의 토대: 대신 취임의 기반」, 『백제문화』 29, 2000.
- 이재석, 「무대속네 전승의 형성과 대신제」, 『한성사학』 30권, 한성사학회, 2015.
- 이정호, 「영산강유역 고분과 그 변천에 대하여」, 『영호남의 고대모제』, 창원대학교 박물관, 2001.
- 이정호, 최성락 엮음, 「영산강유역의 웅관고분」, 『전남의 고대문화』, 학문회사, 2003.
- 임영진, 「영산강유역 석실봉토분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 3-1, 2000.
- 임영진, 「장고분(전방후원형고분)」, 『백제의 건축과 토목』,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7.
- 임영진,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백제학회, 『백제학회』 11권, 백제학회, 2014.
- 정재윤, 「삼국시대 나주와 영산강 유역 세력의 동향」, 『역사학연구』 제62집, 2016.
- 조원창, 「고대 한일 위세품에 보이는 물고기 문양의 계통과 전파」, 『지방사와 지방문화』 17권 1호, 2014.
- 천관우, 「마한제국의 위치 비정」, 『동양학』 9, 1979.
- 천관우, 『고조선사 · 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 최성락, 「전남지역 고대문화의 성격」, 『국사관논총』 제91집, 2000.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성씨 및 본관 보고서』, 2003.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1949.

門脇禎二, 「蘇我氏の出自에 대하여」, 『日本속의 朝鮮文化』 12, 1971.

鈴木靖民, 「木滿致와 蘇我氏」, 『日本속의 朝鮮文化』 50, 1981.

## Abstract

## A Study on the Persons Buried in the Naju Bokam-ri apartment-type tombs

Park, To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ality of clans that meet the characteristics which were extracted by examining Naju Bokam-ri apartment-type tombs. The tombs have four characteristics. First, the people buried in the tombs are open and enterprising conquest forces in the Yeongsan River basin. Second, they have consequently produced top-level officials over 400 years. Third, they were armed forces with advanced weapons, including iron. Finally, the clans were forces with close ties to Gaya and Wai.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examining various forces of the King Dongseong dynasty in the “Namjeseo” of China, it was estimated that the Mok clan, one of the Baekje great eight clans, satisfied all four characteristics.

The force of the Mok clan had a tremendous influence, including the steady production of top-level officials until the 7th century after Mokrageunja of the third century.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as follows: the conquest of the Gaya dynasty and the establishing the Imna Kingdom, and the restoration of Woongjin Baekje after the fall of the Hanseong Baekje, the rule of the Imna, the appointment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Baekje dynasty of the King Seong, and the Soa clan which took control of the Emperor of ancient Japan.

Mokhyeopmanchi who appeared first in the “Samguksagi” was one of the Mok clan to migrate to the ancient Japan. It is recorded in the “The Japanese text Nihonshoki” that the descendent of Mokhyeopmanchi, Soaiprok’s surname was Lim. In addition, the gold-bronze shoes similar to the gold-bronze shoes

of the fish patterns in the late 5th and early 6th centuries excavated from the Bokam-ri tombs, were excavated from Fujinoki tombs, which were built in the heyday of the Sohamaza, who led the Asuka era of the ancient Japan. In “Shin Chan Sung Sirok”, Lim from Baekje appears as a descendant of Baekje Mokgwigong. At present Naju Lim, one of the two families of Lim in Korea still lives in Naju Hoejin as a residential villag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Mok clans were the buried people of Naju apartment-type tombs and Naju Im clan is a witness who proves that they are descendants of archaeological artifacts.

**Key words** : Naju Bokam-ri apartment-type tombs, Mok clan, Soa clan, Lim clan



『역사와융합』 제 4집(2019. 6)

## 이회영의 독립운동 방략과 독립국가 건설 구상

김 병 기(광복회학술연구원)

### 차 례

1. 들어가는 글
2. 우당 사상의 형성과 무장투쟁 노선
3. 아나키즘 수용과 독립국가 건설 구상
4. 우당과 대종교
5. 나오는 글

### 【국문초록】

이회영(1867-1932)은 실천적 독립운동가였다. 무장투쟁 노선을 실행에 옮겨 신민회의 국외독립운동기지 건설 사업에 앞장서면서 신흥무관학교의 토대를 만들었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목재상 경영과 인삼 재배를 실천하기도 하였다.

일찍부터 을사오적 암살 계획에 참여하였고, 고종황제의 해외망명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후 북경에 머물면서 이을규 형제, 유자명, 신채호 등 동지들과 아나키즘을 독립운동의 실천 방략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는 자신이 걸어온 혁명의 길과 아나키즘의 노선이 상통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회영의 아나키즘은 자유와 평등을 토대로 하는 개인적 천품과 당면한 조국의 독립이라는 소망이

어우러진 사상이라 볼 수 있다.

1924년 4월부터 이회영은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재중국무정부주의자연맹, 동방아나키스트연맹 등에 관여하면서 베이징과 상하이지역의 한인아나키스트들을 결속시켰고, 이후 남화한인청년연맹, 항일구국연맹 등의 결성에 참여하면서 일제의 요인 암살과 기관 파괴를 실현하였다.

1932년 11월 만주에서 마지막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만주로 향하던 중 파렌에서 일제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다가 순국하였다.

이회영이 평생에 걸쳐 실현하고자 했던 국권회복은 그의 생전에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광복 후 그가 실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 방략은 아나키스트 동지들에 의해 ‘자유와 평등사회’를 기초로 한 실천 강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이 국권회복과 국조숭모라는 기치아래 실천하였던 대중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신흥무관학교,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동방아나키스트연맹, 남화한인청년연맹, 대중교

## 1. 들어가는 글

우당 이회영(1867~1932, 이하 우당으로 칭함)은 근대 격동기 독립운동사에 큰 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70평생 다양한 사상의 천이(遷移)를 통해 혁명사상을 추구하였으며, 독립투쟁 방면에서도 실천적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지도자였다. 우당은 독립운동가 이전에 구시대를 타파하고 신시대를 열어간 혁명가였다. 인간의 자유와 민족의 독립을 열망했던 그가 일생을 두고 추구했던 것은 자유와 평등사상이었다.

우당의 아나키즘 수용이 의식적으로 아나키스트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와 방책이 아나키스트들의 주장과 상통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면에서 우당은 천성적인 아나키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아나키즘 수용은 자유평등을 토대로 하는 개인적 천품과 당면한 조국의 독립이라는 소망이 어우러진 사상이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당은 ‘우리의 독립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무장투쟁론의 입장에서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신민회에서 벌인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다. 후일 아나키스트의 의열활동을 열렬히 지원한 것도 그것이 무장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당을 비롯한 아나키스트들의 무력수단은 자유와 평등을 파괴하려는 폭력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무력투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서 이 글에서는 우당을 비롯한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을 쟁취한 이후 어떠한 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신국가 건설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에 관해 우당 자신이 남긴 자료는 없으나, 아나키스트 동지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 편란을 모아 정리하였다.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끝으로 무장투쟁과 관련하여 만주지역의 독립운동과 특히 대종교 인물들과의 관계의 일단을 살펴보려 한다. 우당은 일찍부터 기독교에 입교했고 아나키즘을 받아들였지만 대종교와 무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우당은 대종교 중심인물인 나인영(나철)을 비롯하여 이상설, 이시영, 여준, 조완구, 이관직 등 대종교 인물들과 깊은 교류를 갖게 되는데, 정작 이들과의 관계를 소상히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이 글에도 자료의 한계로 제한적이지만 우당과 대종교 관계의 일면을 살피려고 한다. 앞으로 독립운동사에서 우당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당과 그 동지들의 관계, 특히 대종교 인물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논점에 접근해 보려고 한다.



## 2. 우당 사상의 형성과 무장투쟁 노선

우당의 사상을 정리한 이정규는 우당의 일생을 세 시기로 구분하면서, 제1기를 태어나서 30세까지 성장과 수양의 시기로 보았다.<sup>1)</sup> 백사 이항복의 후예인 그의 집안은 흔히 삼한갑족의 명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우당 학문의 출발은 조선의 전통적 학문인 유학에서부터 출발하였지만 전통 학문에 머물지 않고 신학문을 수용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부재 이상설과 교류하면서 서양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치, 사회 분야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다. 이때 뜻을 같이한 동지로서 이상설을 비롯하여 동생인 이시영, 이범세, 서만순, 조한평, 여규형, 여준, 이희중 등이 있었다.<sup>2)</sup> 이들은 영의정 이유원의 양자로 출계한 둘째형 이석영이 내어준 남산 홍엽정에 모여 새로운 서양문물을 공부하며 세상사를 토론하였던 것이다.<sup>3)</sup> 1885년 봄부터는 우당, 이상설 등이 정릉 신흥사에 합숙하면서 매일 과정을 써 붙이고 한문, 수학, 영어, 법학 등 신학문을 공부하였다.<sup>4)</sup>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공부에 열중하던 이상설이나 동생인 이시영이 벼슬길에 나갈 때 우당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일찍부터 벼슬길에 나갔던 동생 이시영은 삼사(三司)의 요직을 거친 후 외부의 교섭국장이 되고, 이후 평안남도관찰사, 증추원 직임의관(勅任議官), 한성재판소장 등을 지냈으며 1908년에는 중2품에 올랐다.<sup>5)</sup> 죽마고우 이상설은 1894년 과거급제 후 승정원을 거쳐 27세에 성균관 관장 등을 역임했고 35세의 젊은 나이에 의정부 참찬(정2품)이 되었

1) 이정규, 『우당 이회영 약전』, 을유문화사, 1985, 31쪽.

2) 이들 동지들의 좌장은 주로 보재 이상설이 맡았다. 보재는 문과에 급제한 후 비서감 비서랑에 제수되었는데, 일찍부터 장차 울국 이이의 뒤를 이을 학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구학문은 물론 신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던 보재는 선교사 할버트에게 배운 영어와 프랑스어의 구사 능력이 수준급이었고, 수학, 물리, 화학, 경제학, 국제법 등에도 정통한 재사였다. (윤병석, 『이상설전』, 일조각, 1984, 14-19쪽 참조).

3) 이종찬, 「그 모든 재산 조국에 바치고 귀천-영석 이석영 할아버지께」, <100년 편지> 2019.3.25.

4) 윤병석, 앞의 책, 15쪽.

5) 신주백, 『청년결백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킴이 이시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30쪽.

다. 이처럼 함께 공부했던 동학들이 벼슬길로 나갈 때 우당은 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을까. 우당은 벼슬길에 들어선 동생 이시영에게도 당시의 부패한 정치와 타락한 이도(吏道)를 세울 자신이 없다면 벼슬에서 물러나 동지들과 함께 나라를 바로잡고 민생을 구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sup>6)</sup> 우당은 일찍이 누구보다 먼저 시대의 새로운 풍조에 눈을 떴다. 그는 벼슬길에 나가는 대신 스러져가는 나라를 바로 잡고 힘없는 백성을 구하는 길을 택했다.

우당의 개혁적 사상은 학문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미 약관 시절부터 스스로 술선하여 불평등한 봉건적 인습과 계급적 구속을 타파하려 했다. 집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종을 속량하여 주고, 아전과 노비에 대한 차별적인 낮춤말을 평등한 높임말로 고치려 하였고, 적서의 차별을 없앴으며, 개가와 재혼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권문세가 출신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풍습으로 볼 때 그와 같은 파격과 혁신은 철저한 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우당이 일찍부터 자유평등 이념에 대한 선천적 기질과 혁명적 소신을 지녔다는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다.<sup>7)</sup>

청상과부가 된 누이동생을 개가시킨 일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다. 우당은 당시의 사회적 풍조를 아랑곳 하지 않고 누이동생을 위해 파격적인 방법을 썼다. 청상과부가 된 누이동생이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장사까지 치른 후 개가시킨 것이다. 본인 스스로도 상처를 한 후 젊은 과부를 다시 정식 부인으로 맞았다.<sup>8)</sup>

1898년 9월 우당은 이상설, 여준과 더불어 남산 홍염정에 오른 일이 있다. 이들은 시국을 한탄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심경을 털어 놓았다. 고종 임금이 자리에 오른 이후 벌어진 두 차례의 양요에서부터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그리고 을미사변의 참극을 떠올리며 계속되는 변란에도 손조

6) 이정규, 앞의 책, 23쪽.

7) 김동환, 「우당 이회영과 대동사상」, 《국학연구》 제22집, 국학연구소, 2018, 209쪽.

8) 권오돈, 「민족계몽의 길잡이-이회영」, 『한국의 인간상』 6, 신구문화사, 1966, 342-343쪽 (김동환, 「우당 이회영과 대동사상」, 210쪽에서 재인용)

차 쓰지 못하는 조정의 무능함을 탄식했다. 그럼에도 나라에는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없고, 조정과 고관대신들은 구습에 젖어 천박한 식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찌 장차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를 걱정하였다. 탄식 속에서도 이회영은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시대를 만나서 우리 2천만 동포는 크게 깨닫고 분연히 일어나, 국민의 지혜를 밝게 하고 정치는 쇄신해야 한다.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고 풍기(風紀)가 선명하여져서, 독립과 자유를 완전하게 하고 세계의 열강과 나란히 서서 경쟁하게 되고 난 뒤에 라야, 보국안민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가까운 동지들이 벼슬길에 나가 있을 때 이회영은 또 다른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장차 나라를 위한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우당의 생각은 항상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었다. 그는 곧 동지인 장유순(張裕淳)과 의논하여 큰돈을 들여 목재상을 경영하고, 인삼밭을 사들여 재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목재상 경영은 사람을 잘못 만나 자금만 잃어버리고 실패하였으며, 개성 풍덕에 산 인삼밭은 재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삼 수확을 앞둔 1901년 11월 도둑을 맞고 말았다. 인삼 도둑은 개성경찰서 일본인 고문이었다. 이 일본인은 도둑질이 탄로 나자 오히려 이회영이 인삼을 무허가로 재배했다고 무고하였다. 이회영은 법정투쟁까지 불사했는데, 이 사건이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고종 임금에게까지 전해졌다. 고종은 이를 통쾌히 여기고 즉석에서 탁지부 주사를 제수했다.<sup>10)</sup> 그러나 처음부터 벼슬자리에 뜻이 없었던 우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에 운동자금을 마련하려던 우당의 첫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많은 독립운동의 계획이

9) 이관직, 『우당 이회영 실기』, 을유문화사, 1985, 120쪽.

10) 김명섭, 『자유를 위해 투쟁한 아나키스트, 이회영』, 역사공간, 2008, 26쪽.

실현 단계에서 자금 문제로 실패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금의 운동자금이 필요하다는 우당의 인식은 실천적 독립 운동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권오돈(權五惇)은 우당의 이러한 인삼발 사건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우국의 심경을 더욱 굳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당은 그의 저항적인 기질과 행동의 인간성을, 전 생애를 걸친 항일투쟁에 바칠 계기를, 인삼발 사건에서 얻게 된 것이다. 만주와 중국 대륙을 주름잡으며 종횡무진 대륙아(大陸兒)로서 활약하게 될 보수(報酬)없는 투쟁의 기초는 바로 인삼발 사건에서 경험한 뼈저린 우국의 정열이었다. 이로써 비를 얻은 용은 비로소 하늘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sup>11)</sup>

1904년 기독교에 입교한 우당은 상동교회 부설 상동청년학원에서 청년교육에 힘을 쏟았다. 상동교회와 그 부설기관인 상동청년학원은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우당을 비롯한 이동녕, 이준, 김병헌, 김구, 김진호, 이용태 등이 이끌었다. 상동과 및 상동청년학원의 실체는 기독교 단체임에는 틀림없으나 국권회복을 위한 구국인사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이 강했다.<sup>12)</sup> 이때 중등교육과정을 수학하던 상동청년학원의 원장은 전덕기 목사, 학감은 우당이 맡았다.<sup>13)</sup>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은 우당에게 큰 충격이었다. 을사늑약의 조짐을 이상설로부터 들은 우당은 고종 임금으로 하여금 조약을 거절할 것을 상주하기로 하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상설은 당시 의정부 참찬으로 대신회의 실무책임자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의를 저지하겠다고 맹세했으나 지킬 수 없었다.

11) 권오돈, 앞의 책, 344쪽.

12)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181쪽.

13) 상동교회, 『상동교회 일백년사』, 1988, 88-89쪽.

일본군이 가로막은 바람에 실무책임자임에도 회의에 참석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설은 전 우의정 조병세를 소두(疏頭)로 700여 명이 조약파기를 주장하는 연명상소를 올렸고, 조병세가 자결한 후에는 민영환을 소두로 반대상소를 올렸다. 민영환 또한 자결하자 이상설은 종로 네거리에서 민중들이 모인 가운데 조약을 파기할 것을 성토했고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며 자결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상소투쟁이 효과를 올리지 못하자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써 의열투쟁을 모색하였다. 을사늑약에 관여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여 을사오적을 처단하자는 것이었다.

우당은 기산도, 나인영 등의 동지들과 을사오적 암살 계획에 관여하였다.<sup>14)</sup> 먼저 기산도,<sup>15)</sup> 김석항 등은 을사오적 암살의거를 모의하고 1906년 2월 군부대신 이근택의 집을 습격하여 그에게 중상을 입히고 체포되었다. 한편 나인영, 오기호 등은 1907년 2월 자신회(自新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을사오적의 저격을 계획하였으나 이 또한 실패하고 말았다. 이들의 을사오적 암살 기도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매국 대신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일반 시민들은 이들의 거사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끝내 분하게 생각했다.<sup>16)</sup>

이러한 을사오적에 대한 암살 계획이 미수에 그치자 우당은 이상설과 함께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국망을 예견한 우당은 이상설, 이동녕, 정순만, 여준 등과 함께 북간도의 중심지였던 용정촌을 독립운동기지로 건설하려 하였다.<sup>17)</sup> 이러한 사정은 이관직의 『우당이회영선생실기』에 다음과 같

14) 이정규, 앞의 책, 29-30쪽.

15) 기산도는 을사늑약 전부터 상동교회를 드나들며 상동청년회에서도 활동하였다. 1905년 10월에는 상동 청년회의 정순만, 이동녕의 지시 하에 친일인사들을 처단하려하였음을 볼 때 우당이 이들 거사에 함께 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오영섭, 『한말순국 의열투쟁』,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45쪽.)

16) 오영섭, 위의 책, 171쪽.

17) 우당의 독립군기지 개척은 신민회가 독립군기지를 계획하던 것보다 선행한 것으로, 1910년 우당 일가가 서간도에 독립군기지를 개척하기 위해 집단 망명을 단행하기까지에는 을사늑약 이후 치밀한 계획에 의

이 기록되어 있다.

“1906년 여름 선생(우당)이 광복운동의 원대한 소지를 행함에는 국내에서만 행하는 것이 불리한 줄 각오하셨다. 선생은 이상설, 유완무, 이동녕, 장유순 등 여러 선생과 심심밀의하시고 광복운동을 만주에 전개기로 하고 만주 택지와 도만 인물을 논할새 북간도 용정촌은 교포가 이주하여 교육하기 최미(最美)하고 노령이 북통(北通)하여 외교가 편리하고 내지(內地)가 일 위수(葦水)를 격하여 왕래가 역호(亦好)하니 택지는 용정촌으로 정하나 도만 인물을 고르기 어렵도다. 요컨대 동지 중에 명예, 지식, 도량, 지절, 인내 등을 겸비한 인물이라야 한만인(韓滿人)의 모본(模本)이 되어서 기초를 선수하고 사업의 성공을 가히 기약할지로다.”<sup>18)</sup>

즉 용정촌을 독립운동기지로 작정하고 적절한 인물을 파견하려하니 걱정이라 하였던 것인데, 이에 자리에 있던 보재 이상설이 의연히 용정행을 자원하였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정리로 친척을 떠나고 조상의 묘를 버려두고서 황막한 변방에 가 외로이 지내며 고생하는 것은 다 어려운 일이지만, 조국과 민족이 중대한지라 지금 평탄한 것과 험한 것을 어찌 가리겠는가? 내가 재주 없는 사람이지만 만주에 나가 운동을 펴 보겠다.”<sup>19)</sup>

함께 자리했던 여러 사람이 다 이상설의 기개를 매우 칭찬했는데, 이상설이 의연히 장도에 오른 것은 이미 우당과 이심전심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우당은

---

해 추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석홍, 『우당 이회영 선생의 독립운동과 역사적 평가』, 『우당 이회영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2017.5.19., 15쪽)

18) 이관직, 앞의 책, 130쪽.

19) 이관직, 위의 책, 130-131쪽.

도성 모퉁이에서 기약 없는 망명길에 오르는 이상설을 전송했다. 우당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이상설은 애써 웃는 얼굴로 작별했다.

이상설은 이동녕과 함께 인천에서 중국 상선을 탔다. 상해를 경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일행은 북간도로 건너가 연길현 용정촌에 터를 잡았다.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천주교 회장 최병익의 집을 매입하여 학교를 열고 서전서숙(瑞甸書塾)이라 이름 하였다. 서전서숙은 망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터전이었다.<sup>20)</sup> 이처럼 이상설의 용정행은 우당과 협의 끝에 이루어진 일이었다.<sup>21)</sup> 서전서숙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신학문 과목과 함께 철두철미한 항일민족 교육이었다. 서숙이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그 실상은 독립군 양성소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그러나 서전서숙은 1년여 만인 1908년 9월경 문을 닫게 된다. 이상설이 그 해 4월 초순 헤이그 특사로 이동녕, 정순만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 뒤로 서전서숙은 재정난과 함께 일제의 통감부 간도파출소가 설치되면서 그들의 압박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하지만 서전서숙의 영향으로 이 일대에 명동학교와 광성학교, 창동학교, 북일학교 등이 잇달아 세워지면서 북간도 일대의 민족교육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서전서숙이 이처럼 1년여 만에 문을 닫게 되었으나 항일독립운동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서전서숙의 교육이 일반적인 신교육기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국외의 독립운동기지 건설이라는 독립운동의 기본 방략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후일 서간도 유하현 삼원포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민족운동의 인재를 양

20) 이상설은 서울을 떠날 때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고국 땅을 밟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서울 저동에 있던 집을 팔았으며, 그 돈을 독립운동 자금에 모두 쏟았다. 서전서숙의 숙장이었던 이상설이 교원의 월급부터 교재비와 학생들의 일체 경비는 이상설이 전부 부담하였다.(윤병석, 『이상설전』, 일조각, 1984, 56쪽)

21) 이덕일, 『이회영과 젊은 그들』, 역사의아침, 2009, 46쪽.

22)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67쪽.

성해 났던 것도 이러한 서전서숙의 교육방향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sup>23)</sup>

살펴본 헤이그특사 파견의 배후에 우당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일본 공사 하야시(林權助)는 궁내 곳곳에 일본의 간자(間者)를 심어두고 고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우당은 만국평화회의의 개최 소식을 듣고 일본 통감부와 친일세력의 감시를 피해 궁중 내관 안호형을 통해 고종 황제에게 회의의 사절을 특파할 것을 주청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상설과 이준, 이위종 등 3인으로 구성되었다. 만국평화회의에서는 일본의 폭거를 폭로하고 조선의 비참한 처지를 알린 효과가 있었지만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울 수는 없었다. 일제는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이회영은 고종이 퇴위한 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그곳에 이상설이 있었다.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인 1907년 8월 국내의 권석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상설은 더 이상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을 방문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와 그곳을 새로운 정착지를 삼고 이승희 등과 한흥동을 건설했던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을 만난 우당은 네 가지 운동방침을 정했다. 1) 지사들을 규합하여 국민 교육을 장려할 것, 2) 만주에서 광복군을 양성할 것, 3) 비밀결사를 조직할 것, 4) 운동 자금을 준비할 것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장투쟁을 위한 광복군을 만주에서 양성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자금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국내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설은 우당에게 ‘국외의 독립운동은 자신이 담당하고, 국내의 독립운동은 우당이 담당하여’ 광복을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23) 윤병석, 앞의 책, 54쪽.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된 이후 한민족은 이에 저항하는 국권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들이 전개한 방략은 독립전쟁론이었다. ‘독립전쟁론’이란 국외에서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했다가 일본 제국주의가 더욱 팽창하여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 장차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이들과 함께 대일전쟁을 감행하여 우리의 독립을 쟁취한다는 방략이다.<sup>24)</sup> 이에 따라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일제가 패망하는 그 시기까지 민족의 군대인 독립군을 양성하고 무장부대를 편성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sup>25)</sup>

이러한 구국계몽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1907년 설립된 비밀결사 신민회이다.<sup>26)</sup> 신민회는 국권회복을 위한 여러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 국외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기지를 건설하여 기회가 오면 독립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였다. 이때 의병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패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 패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의병의 훈련부족과 무기의 열세임을 알게 되었다. 1908년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은 국내에서의 독립투쟁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신민회로서는 무모한 일본군과의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 국외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투쟁의 간부를 양성해야 함을 절감하였다. 우당은 신민회에 깊이 참여함으로써 해외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09년 10월 안중근의사의 의거가 일어나면서 일제는 이 사건과의 관련 혐의로 안창호, 이동휘, 유동열, 이종호, 김봉준 등 신민회 간부들을 구속하였다. 신민회에서는 이들이 풀려난 1910년 3월 긴급회의를 열고 국권회복을 위한 방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신민회에서 독립운동기지로 생각한 곳은 일제의 통치력

24) 윤병석, 『독립군사』, 비식산업사, 1991, 31쪽.

25)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8, 20-21쪽.

26) 신민회를 창립한 세력들은 ㉠ 양기탁, 박은식 등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 집단, ㉡ 우당을 비롯 한 전덕기, 이동녕, 김구 등의 상동교회와 그 부설기관인 상동청년학원을 중심한 집단, ㉢ 이동휘, 이갑, 유동열 등의 무관출신 집단, ㉣ 이승훈, 안태국 등의 평안도 상인 실업인 집단, ㉤ 안창호, 이강 등 미주에서 활동하던 공립협회 집단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 ///쪽)

이 미치지 않는 만주일대에 설치하되 최적지로 백두산 부근을 상정하였다.

신민회는 1910년 3월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1) '독립전쟁 전략'을 최고전략으로 채택하였으며, 2) 국외에 '독립운동기지'와 그 핵심체로서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3) 일제 헌병대에 구속되었던 간부들은 원칙적으로 국외에 망명하여 이 사업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4) 국내에 남는 간부들과 회원들이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종래의 구국계몽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sup>27)</sup>

이러한 계획은 우당을 중심으로 서간도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sup>28)</sup> 1910년 9월 초 우당은 이동녕, 장유순, 이관직 등과 백지장수로 가장하고 서간도를 향하여 떠났다.<sup>29)</sup> 우당은 울진 사람 주진수를 만나<sup>30)</sup> 1910년 11월 환인현 횡도천에 임시연락소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귀국한 이회영은 가족회의를 열고 서간도 이주계획을 논의하였다. 우당가의 6형제는 4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선발대로 떠났다. 목적지는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였다. 일행은 환인현 횡도천에 도착하여 일단 숙소를 정하고, 이듬해 2월 날이 풀리자 삼원포에 당도하였다. 뒤를 이어 안동지방의 혁신유림 김대락, 이상룡, 김동삼 등이 대소 가족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횡도천을 경유, 유하현 삼원포로 집결하였다.

선발대로 만주 봉천성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에 도착한 이회영 일가 등은 뒤이어 속속 도착하는 이주민들과 함께 신한촌을 건설하였다. 그들은 1911년 4월 교민 자치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sup>31)</sup> 사관 양성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창설하

27)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87, 150쪽.

28) 우당은 만주행을 서두르게 되는데, 이는 하루라도 빨리 광복운동의 근거지를 건설하자는 적극적인 열의에서였다고 전한다.(이 정구, 「우당 이회영 선생 약전」, 『우관문존』, 삼화인쇄 출판부, 1974, 31쪽)

29) 이은숙, 『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 서간도시종기』, 인물연구소, 1981, 46쪽.

30) 주진수는 강원도 울진이 고향이었지만 경상북도 일대에 세교가 있는 이가 많았다. 이러한 인연으로 안동의 이상룡을 찾아갔고, 신민회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또한 향리에 만홍학교를 세워 신교육에 힘쓰기도 했다. 주진수 역시 향리의 가산을 모두 처분하고 집단망명에 합류하였다.(한국독립유공자협회,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207-208쪽)

31) 석주 이상룡은 「경학사 취지서」를 발표하여 독립운동의 방략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는데, 한국이 나라를

였다. 신흥강습소는 후에 신흥중학을 거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였다. 이것이 신민회가 창건한 국외 독립운동기지가 되었다. 일찍이 우당이 이상설 등과 함께 모색했던 독립운동기지 건설 계획이 서간도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다.<sup>32)</sup>

신흥강습소는 호명신의 권유에 따라 중국인들의 눈을 피해 좀 더 오지로 들어가서 통화현 합니하 강가에 새로운 터전을 세웠다. 합니하의 새 터전을 마련하는 데는 우당의 둘째 형인 이석영의 역할이 컸다. 거금을 투척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학교 건물도 세웠으며, 학생들이 먹을 양식까지 모두 부담한 것이다.<sup>33)</sup>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학교를 설립하게 되니 소요 경비가 대단하였다. 점차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이관직, 장유순 등은 자원하여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갔으나 국내의 사정도 수년 사이에 인심이 돌변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관직은 후일을 기다리기로 하며 국내에 머물고, 장유순은 만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sup>34)</sup>

우당은 신흥무관학교의 발전을 다 지켜보지 못했다. 그는 신흥무관학교가 합니하로 이주한 후인 1913년 경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 해 봄 수원에 사는 동지 맹보순에게서 일제가 우당을 비롯하여 이시영, 이동녕, 장유순, 김형선 등을 체포 또는 암살할 목적으로 형사대를 파견했으니 급히 피하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일단 몸을 피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상설이 거주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피신처로 꼽았다. 그런데 우당은 생각을 달리 하였다. ‘피신하여 안전만 도모한다는 것은 하등 의미가 없으니, 기왕 위험에 처할

---

잃어 생존의 터전이 없어졌음을 한탄하며, 망국의 책임이 민족 전체의 개개인에게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리스가 터키로부터 독립하였듯이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할 것을 호소하였다. 석주는 여기에서 독립전쟁을 통한 근대국가의 수립이라는 방략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경학사의 사장에는 이상룡이 추대되었고, 우당은 내무, 농무, 재무, 교무의 4개 부서 가운데 내무부장에 임명되어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신흥학교에는 발기인으로만 이름이 올랐을 뿐 아무런 직책도 갖지 않았다. 직책이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인품과 자유정신을 여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33) 이은숙, 앞의 책, 55-56쪽.

34) 이정규, 『우당 이회영 선생 악전』, 『우관문존』, 삼화인쇄, 1974, 35쪽.

바에는 국내로 들어가서 재정 변통을 강구하겠다'며 단신 귀국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에 모두 놀라 말렸으나 우당은 듣지 않았다. 이동녕은 '우당의 온몸은 모두 담 덩어리로구나!'며 감탄할 뿐이었다. 암살단이 밀과 되었다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당은 적극적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우당이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대반전이라 할 수 있다.

우당은 귀국한 이래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당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뒤에서 조종하였고, 또한 고종황제의 망명을 위해 주요 인사들과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궁중에는 시종 이교영을 통하여 고종황제와 통하고, 전판서 민영달에게는 홍증식을 통하여 연락을 취했다. 점차 몇몇 귀족 부호들과 연락이 맺어져서 거액의 운동자금을 조성하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었다.<sup>35)</sup>

1918년 가을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맞이할 즈음이었고, 그 해 연초에 발표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우당은 천도교의 오세창, 기독교의 이승훈, 불교의 한용운, 교육계의 김진호, 사회 방면의 이상재 등과 조석으로 밀의를 거듭하는 한편 궁중과도 연락하여 고종황제의 망명을 은밀히 계획하였다. 마침 영친왕 이은의 혼례가 결정되어 고종황제의 고민이 절정이 달하였을 때였으므로 의외로 고종도 국외 망명을 쾌락하였다는 것이다.

우당은 시종 이교영을 통해 고종의 뜻을 전해 듣자 민영달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상의하였다. 1) 출국 행로는 육로보다 해로(海路)를 통할 것, 2) 망명지는 중국으로 하고, 행궁을 상해보다 북경으로 할 것 등으로 정했다. 민영달은 5만원의 거금을 내놓고 우당에게 준비를 부탁하였다. 우당은 동지 이득년, 홍증식으로 하여금 이 돈을 북경에 체재하고 있는 동생 이시영에게 전달하고 고종황제가 거처할 행궁을 임차, 수리하도록 부탁하였다. 이때가 1918년 말이었다. 그러나

35) 이정규, 위의 책, 36-37쪽.

이 계획은 고종의 갑작스런 붕어로 성공하지 못했다.<sup>36)</sup> 고종 임금의 망명계획이 무산되면서 거액의 운동자금을 조성하려던 우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1919년 2월 우당은 북경으로 건너가서 동생 이시영과 동지 이동녕을 만났다. 그곳에서 우당은 여러 해 쌓인 해외소식을 들었다.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것은 보재 이상설의 서거 소식이었다. 평생의 지기였던 보재의 서거 소식은 우당으로 하여금 큰 실의에 빠지게 했다. 일찍이 보재는 우당에게 ‘국외의 독립운동은 자신이 담당하고, 국내의 독립운동은 우당이 담당하여’ 광복을 달성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우당은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 되면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한창 영향을 끼치던 때로, 국내의 3.1독립선언을 얼마 앞둔 시기였다. 또한 만주에서는 우당의 동지였던 이동녕, 여준 등이 서명한 「대한독립선언서」가 준비되던 때였다.<sup>37)</sup>

우당은 국내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해외 동지들과 만나서 모든 정세를 교환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우당이 상하이에서 만난 옛 지인들은 이미 그때의 동지들이 아니었다. 기호니 서북이니, 평안도니 함경도니 하는 대립과 내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당의 생각은 두 가지로 모아졌다. 1) 시대가 변하고 정세가 변하면 운동의 방법과 방안도 따라서 변하여야 하니 이에 따른 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2) 우리 운동은 약자로서 세계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강자를 상대하는 운동이므로 일치단결로 항쟁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색이나 파벌 등을 일체 지양하고 동심협력하여 항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었다.<sup>38)</sup>

당시 베이징에는 동생 이시영과 이동녕, 이광, 조성환 등이 머물고 있었는데,

36) 이정규, 위의 책, 53-56쪽 참조.

37) 김동환, 앞의 책, 217쪽.

38) 이정규, 위의 책, 58쪽.

이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하기 위해 연해주로부터 상하이로 가던 길이었다. 우당도 이들과 함께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했다. 여기에서 우당은 정부라는 조직보다는 독립운동을 총괄 지휘할 실질적 본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미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마음이 들떠 있는 상황에서 우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당이 임시정부 수립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만들어지면 자연히 권력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당은 독립운동의 지도체인 임시정부 조직이 권력 발생의 진원이 될 것을 매우 우려해 반대한 것이었다.<sup>39)</sup>

우당은 5월 말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임시정부는 박찬익을 베이징으로 보내 임시정부 참여를 설득했다. 이후에도 이시영, 이동녕, 이광 등이 상하이와 베이징을 오가며 우당을 설득했지만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당시 베이징에는 신채호, 박용만, 신숙 등이 임시정부와는 별도로 무장투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박용만 등이 군사통일촉성회를 함께 결성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우당은 거기에 도 참가하지 않았다. 그 역시 또 다른 파벌을 만드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우당의 독립운동은 겉으로 다양하게 변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추구했던 것은 처음부터 무장투쟁론이었다. 우당은 일찍이 1908년 여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을 만나 항일운동의 방략을 신중히 토론하며 다음과 같은 4개 항의 방략을 결정하여 국내외에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는데, 1) 지사들을 규합하여 국민교육을 장려할 것, 2) 만주에 광복군을 양성할 것, 3) 비밀결사를 조직할 것, 4) 재정을 준비할 것 등이었다.<sup>40)</sup> 우당이 일찍이 이상설, 이동녕과 북간도 용정촌에서 서전서숙을 건립한 것도 장차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포석이었으며, 기산도, 나인영 등의 동지들과 을사오적 암살에 관여한 것도 무장투쟁의 한 형태

39) 장석홍, 앞의 책, 20쪽.

40) 윤병석, 앞의 책, 125쪽.

라 할 수 있는 의열투쟁을 실천한 것이라 볼 수 있다.<sup>41)</sup> 이후 서간도에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던 것이며, 만주에서의 활동이 좌절되자 국내로 들어가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모두 위의 이상설과 약속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이다. 우당의 젊은 동지인 아나키스트들이 벌인 일련의 의열투쟁 또한 무장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된 적극적 투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후일 우당의 아나키즘 수용도 사상적 전환이 아니라 무장투쟁의 방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후 우당이 김종진을 신규식과 이시영에게 소개하여 운남무관학교에 유학할 수 있게 한 것도, 후일 그에게 북만주 무장투쟁의 현장으로 갈 것을 권고한 것도 우당의 무장투쟁론 실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42)</sup> 뿐만 아니라 김동진이 북만주에서 김좌진과 시행하려던 민족독립운동과 혁명운동의 계획은 우당과의 교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을사늑약 이후 우당의 행적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두가 국권회복은 외교활동이나 점진적 실력양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제와의 치열한 무장투쟁을 통해서만이 쟁취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우당에게 무장투쟁은 독립운동의 핵심 방략이었던 것이다.

41) 군대를 양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은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만주에 군대를 양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도 막대한 재정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우선 적은 비용으로 적 기관을 파괴하고, 적의 요인을 암살하는 실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열투쟁이었다.

42) 실제로 김종진의 경우 1921년 만주로 망명하면서 한국독립은 항일 무력대결을 제일 수단으로 하여야 하며 이 무력의 조직과 훈련은 만주 교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고민하다가 우당을 만나 토론하면서 운남강무당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이을규, 『시아 김종진 선생전』, 한홍인쇄소, 1963, 14쪽).

### 3. 아나키즘 수용과 독립국가 건설 구상

베이징 시기 우당은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가졌다. 조소앙을 찾아 러시아에 실현되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해 토론하였고, 신채호와 매일 만나 아나키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함께 했다. 특히 우당과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을규, 이정규, 유자명, 정화암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베이징에 머물면서 새로운 사조로서 아나키즘을 이론적으로 수용한 젊은이들이었다. 이때 만난 이들이 우당이 최후까지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되었다.<sup>43)</sup>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걸어온 혁명의 길과 아나키즘의 노선이 상통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본래 벼슬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며 불평등한 신분 제도도 본래 반대하던 사람이다. 독립을 하자는 것도 나 개인을 위한 욕심에서가 아니라 전체 민족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행복한 생활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알맞은 제도와 조직과 구조를 생각해야 했고 그 결과 얻어진 결론이 이것이니, 나의 이 사상은 일관된 것이며 나의 독립운동의 방향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무정부주의와 공통된다 하여 나에게 사상적 전환을 하였다는 의견에는 나는 수긍할 없다. 나는 사심 없이 공정한 민족적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와 같은 주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무정부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무정부주의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44)</sup>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우당이 선택한 아나키즘은 독립운동의 한 방편이었다는

43) 이정규, 앞의 책, 1974, 67쪽.

44) 이정규, 위의 책, 1974, 88-89쪽.



점이다. 우당이 시야 김종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내가 의식적으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거나 무정부주의로 전환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다만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생각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나의 그 사고와 방책이 현대적인 사상적 견지에서 볼 때 무정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상통되니까 그럴 뿐이지 각급시이작비(覺今是而昨非) 식으로 본래는 딴 것이었던 내가 새로이 방향을 바꾸어 무정부주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sup>45)</sup> 말한 데에서도 우당의 아나키즘은 자유평등을 토대로 하는 개인적 천품과 당면한 조국의 독립이라는 소망이 어우러진 사상이라 볼 수 있다.

우당의 아나키즘은 궁극 목적을 하나의 대동세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당은 김종진과의 대화에서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무정부주의의 궁극의 목적은 대동의 세계, 즉 하나의 세계를 이상(理想)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46)</sup>

이후 우당은 1922년 2월 이른바 ‘8단(團) 9회(會)’의 만주지역 무장단체 통합 회의에 관여하였다고 전한다.<sup>47)</sup> 그 결과 결성된 것이 대한통군부요, 그것이 발전된 것이 대한통의부였다. 그러나 대한통의부가 북벌파와 공화파의 대립으로 분열되면서, 독립군의 파벌에 크게 실망한 우당은 베이징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1924년 4월부터 우당은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재중국무정부주의자연맹, 동방아나키스트연맹 등에 관여하면서 베이징과 상하이지역의 한인 아나키스트들을 결속시켰다. 이들은 1930년 4월 국내에서 동지들이 자금을 마련해오자

45) 이을규, 앞의 책, 42쪽.

46) 이을규, 앞의 책, 45쪽. 이와 관련하여 김동환은 우당의 사상 천이를 종래의 유교주의→개혁주의→민족주의→아나키즘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제5단계로 대동세계(민족적 이상주의)까지로 파악하면서 우당의 모든 사상 노정 바탕에는 애국주의와 더불어 대동사상이 깔려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김동환, 「우당 이회영과 대동사상」, 《국학연구》 제22집, 국학연구소, 2018를 참조)

47) 김명섭, 앞의 책, 136쪽.

회의를 통해 만주지역에서 총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동지들이 베이징에서 체포되면서 애초의 계획은 무위로 끝나게 되었고, 직접 행동을 통해 텐진에서 자금을 마련하려던 것도 성공은 했으나 그 소득은 크지 않았다.<sup>48)</sup> 동지들은 모두 상하이와 북만주로 떠났다. 우당도 북만주로 떠나려 하였으나 동지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상하이로 향했다. 상하이에 도착한 것은 1930년 말이었다. 당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동녕, 조성환, 김구, 조완구 등 여러 옛 동지들과 만나 쌓였던 회포를 풀었다. 그러나 우당은 그들과 이미 사상과 노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다.<sup>49)</sup>

이에 앞서 1927년 10월 만주로 향했던 김종진은 먼저 백야 김좌진과 만나 천진에서 독립운동의 대선배인 우당에게 들은 이야기를 김좌진에게 전하고 아나키스트들과 제휴하자고 권했다. 김좌진은 신민부 개편에 동의하여 1929년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하였다. 연맹원은 김종진을 비롯하여 이을규, 이봉해, 엄형순, 이강훈, 김야봉, 이달, 이준근 등이었다. 이는 한족총연합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한족총연합회는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이에 위기를 느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1930년 1월 먼저 김좌진이 저들의 손에 피살되었다. 이어 한족총연합회 간부였던 이준근과 김야운이 암살되었으며, 끝내는 1931년 7월 김종진이 해림역 근처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납치되어 행방불명 되는 비운이 겹쳤다.

이즈음 일본 군부는 만주 전체의 점령 계획을 짜고 9.18사변을 일으켰다.<sup>50)</sup> 일제는 이듬해인 1932년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를 집정(執政)으로 한 ‘만주국’을

48) 이들은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텐진의 일본 조계지에 있는 중일합작의 정실은호(正實銀號)를 강탈하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다. 권총을 휴대한 장기준, 양여주, 송순보 등이 침입하여 단 30분 만에 무사히 목적인 바를 성공하였으나 금액은 그리 크지 못했다고 한다. (이규창, 『운명의 여신』, 2004, 199-200쪽.)

49) 이정규, 앞의 책, 1974, 102-103쪽.

50) 9.18사변은 일명 만주사변으로 불리는데, 만주 주둔 관동군의 일부 장교들이 심양(당시 봉천) 북쪽 유조구의 만철 선로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군의 소행이라고 우기며 만주를 본격적으로 침략한 사건이다. 당시 관동군의 사령관은 훈조 시게루(本庄繁) 대장, 참모장은 미야케 미쓰노리(三宅光治) 소장이었으며 이를 계획한 주도자는 봉천특무기관장인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였다.

수립하였다. 일제는 마적과 공산당을 소탕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북만주 일대에서 대규모 수색작업을 벌였다. 수색작전의 주요한 소탕대상은 기실 독립운동가였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어쩔 수 없이 한족총연합회의 아나키스트들은 8월 중순부터 북만주를 떠나 상하이 방면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피땀 흘려 닦았던 만주에서의 투쟁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상하이에는 1930년 4월 류기석을 중심으로 남화한인청년연맹이 조직되어 있었다. 만주를 탈출한 아나키스트 동지들은 상하이로 속속 모여들었다. 우당을 비롯하여 류자명, 백정기, 정화암, 이강훈, 엄순봉, 오면직, 김동우, 김광주, 나월환, 이용준, 박기성, 원심창, 김광주, 이규창 등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처음 우당을 의장으로 모시려했으나 그가 고사하면서 류자명을 의장 겸 대외책임자로 추대하였다. 1931년 11월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 모인 한, 중, 일 세 나라의 아나키스트들은 ‘항일구국연맹’을 결성하였다. 우당을 비롯해 정화암, 백정기 등 일곱 명의 한국인과 왕야차오(王亞樵), 화준스(華均實) 등 일곱 명의 중국인, 그리고 동방아나키스트연맹에 가담한 바 있는 사노 이지로우와 야다베 부우지 등 일본인 아나키스트들이 참여했다. 항일구국연맹은 산하에 직접 행동대로 ‘흑색공포단’을 조직했다. 이는 일제 요인 암살과 기관 파괴 및 친일분자 암살이 목적인 실행기관이라 할 수 있다.<sup>51)</sup>

1932년 4월 윤봉길의사의 의거는 한인들의 항일의지를 세계에 과시한 쾌거였으나 김구를 비롯한 한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포에 휩싸였다. 우당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앞서 우당과 상의하고 북만으로 떠나 활동하고 있던 김종진의 사망 소식과 함께 일제의 만주 침략전쟁이 발발하자 우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우당은 또 한번의 결단을 하게 된다. 상하이를 떠나 만주를 새로운 활동 무대로 삼기로 한 것이다.

51) 이들이 실행한 의열활동으로는 왕징웨이(汪精衛) 저격사건을 비롯하여 텐진에서 벌인 일청기선 투탄사건과 일본영사관 투탄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김명섭, 앞의 책, 231~232쪽).

우당은 그가 처음 독립군을 양성했던 만주로 가서 또 다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당은 동지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있네. 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 또한 행복 아닌가. 남의 눈에는 불행일 수도 있겠지만 죽을 곳을 찾는 것은 옛날부터 행복으로 여겨왔네. 같은 운동선상의 동지로서 장래가 만 리 같은 귀중한 청년자제들이 죽음을 제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여겨 두려움 없이 몇 번이고 사선을 넘고 사지에 뛰어드는데, 내 나이 이미 60을 넘어 70이 멀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대로 앉아 주기를 기다린다면 청년동지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해물이 될 뿐이니 이것은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바요,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네.”<sup>52)</sup>

이정규는 이를 두고 우당이 스스로 나아가 죽을 자리를 찾았던 것이라 말하고 있다.

우당은 중국 국민당의 거물인 오치휘와 이석증을 만나 장차 만주로 가려 한다는 상황을 전하니 이들이 반가워했다. “만약 한국인들이 만주에서도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의사가 일으킨 것과 같은 의거를 일으키며 광범한 항일전선을 펼 수 있다면 장래에 중국 정부로서도 당연히 만주를 한국인들의 자치구로 인정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만주를 한국인들의 자치구로 인정하겠다는 말에 우당은 더욱 고무되었다. 자금문제에 대해서도 이들은 만주의 장학량에게 연락하여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이회영은 만주로 떠나려 했으나 젊은 아나키스트들이 만류했다. 우당은 끝내 듣지 않았다. “내 늙은 사람으로서 덤수룩한 궁색한 차림을 하고 가족을 찾아간다고 하면 내게 무슨

52) 이정규, 앞의 책, 1974, 110쪽.

의심이 있겠는가. … 내가 먼저 가서 준비 공작을 해 놓거든 제2진 제3진이 뒤따라오도록 하자.”라며 스스로 제1진이 되어 떠나겠다는 것이다.<sup>53)</sup> 1932년 11월 중순, 그렇게 파렌(大連) 행 기선에 몸을 실은 우당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났다.

우당이 노구를 이끌고 그토록 만주로 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김동환의 지적처럼 만주는 우당이 망명한 첫 터전이었고, 마지막 가고자 했던 공간이었다.<sup>54)</sup> 만주가 어떤 곳인가? 고대로부터 만주는 한민족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단군조선 이래로 고구려와 발해에 이르는 10세기 초까지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일대는 한민족의 활동영역에 들어 있던 민족의 고토였던 것이다.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일찍부터 만주를 해외독립운동기지로 정하고 이곳에 모여들었다. 경학사 취지서에도 ‘부여의 옛 땅은 이역(異域)의 땅이 아니며, 고구려의 유족은 발해에 모였으니 다 우리의 동포라’ 하였다.<sup>55)</sup> 계봉우는 만주와 한반도의 주민은 모두 혈통이 같은 숙신족으로, 조만간 숙신족의 발전을 위해 아예 하나로 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뿌리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평하였다.<sup>56)</sup>

1910년 이미 우당은 동지들과 함께 백지장수로 가장하고 이곳을 무장투쟁을 전개할 독립운동기지로 물색해 놓고 선발대로 이주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더욱이 당시 만주에는 사랑하는 딸들이 살고 있었다. 정화암은 우당이 만주행을

53) 이정규는 우당이 만주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 만주에 조속히 연락 근거지를 만들 것.
- ㉡ 주변정세를 세밀히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할 것.
- ㉢ 장기준을 앞세워 지하 조직을 건설할 것.
- ㉣ 일본 관동군 사령관 무토(武藤)의 암살계획을 세울 것.

54) 김동환, 앞의 책, 249쪽.

55) 이상룡, 「경학사 취지서」, 『석주유고』, 208쪽.

56) 계봉우, 「꿈속의 꿈」상, 『북우계봉우자료집』1,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159-160쪽.

강행한 데는 혈육이 그리웠기 때문일 수 있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57)</sup>

만주는 무장투쟁의 본거지였다. 우당이 신흥무관학교를 통해 무장투쟁의 단초를 열었던 곳이며, 만주 독립군의 기반을 닦았던 곳이기도 했다. 우당은 일찍부터 무장투쟁이야말로 독립운동의正道(正道)로 생각했다. 우당이 아나키즘을 스스로 없이 받아들인 것도 아나키즘이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과 독재를 배척하고, 제국주의 타도를 기치로 삼아 인류 평화를 추구하는 점, 한국 독립운동의 정의에도 어긋나지 않는 점, 그리고 제국주의 타도를 위해 강력한 투쟁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제까지 우당 자신이 걸어온 혁명노선, 무장투쟁 노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아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나 지도자들은 독립을 쟁취한 후 어떠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구상을 가지게 된다. 독립운동 단체의 경우 강령이나, 정강 혹은 정책을 통해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sup>58)</sup> 우당도 그의 독립운동의 경륜이나 사상적 원숙함으로 본다면 분명 나라를 찾은 이후의 독립국가 건설 구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당 스스로가 사상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국가 건설 구상을 하였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다만 후인들이 남겨놓은 동지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 두 마디 언급된 단편을 모아 그의 독립국가 건설 구상의 일면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1927년 10월초 김종진과의 토론과정을 통해 노혁명가인 우당이 독립쟁취 이후 건설해야 할 새로운 독립국가상에 대한 구상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57) 김명섭, 앞의 책, 239-240쪽.

58) 한시준, 「백범 김구의 신국가 건설론」,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제3집, 백범학술원, 2005, 197쪽.

이회영은 아나키스트들의 방법론인 자유연합이론이 너무 허황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독립운동자의 견지에서 나는 자유연합이 가장 적절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실에서 모든 운동자들이 자기 사상은 어떻든 간에 실제에서 무정부주의의 자유연합의 이론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미(己未)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기미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단체와 조직이 생겼지만 그들 사이에 단원 자신들의 자유사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인 명령에 맹종하여 행동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러한 단체가 어디 있는가? 남들이 강철의 조직이라 하고 강제와 복종의 기율(紀律)을 생명으로 하는 공산당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적색 러시아같이 자기들의 정치 권력이 확립된 후의 말이지 그들도 혁명당으로서의 혁명과정에서는 운동자들의 자유합의에서 행동하였던 것이다 … 만일 강제로 일을 한다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일은 실패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동서를 막론하고 이른바 해방운동이나 혁명운동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이고 운동자 자신들도 자유의사, 자유결의에 의한 조직적 운동이었으므로 형식적인 형태는 어쨌든지 사실은 다 자유합의의 조직적 운동인 것이다.”<sup>59)</sup>

나아가 우당은 독립을 쟁취한 이후 어떤 사회를 건설해야 하겠는가라는 김종진의 질문에 대해 ‘각 국가와 민족이 모두 평등해야 하고, 민족내부에서도 자유평등의 원칙 아래 국민 상호간에 일체의 불평등, 부자유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당은 특히 독립 후의 정치구조는 ‘권력의 집중을 피하여 지방분권적인 지방자치제를 확립해야 하고, 아울러 지방자치제들의 연합으로 중앙정치 기구를 구

59) 이을규, 앞의 책, 43-44쪽.

성해야 한다.’라고 전망하였다.

나아가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일체 재산의 사회화를 원칙으로 하고 동시에 사회 적 계획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유평등의 원리에 모순이 없도록 관리와 운영이 합리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 또한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우당은 독립을 성취한 이후 한국의 대외관계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국제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외교 · 국방 · 국제무역 · 문화적 국제교류 등의 모든 문제는 중앙 연합기관인 정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sup>60)</sup>

여기에서 우당은 “무정부주의의 궁극의 목적은 대동(大同)의 세계, 즉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는데 있다.”고 말했는데, 일반적으로 대동사회란 공자가 말한 ‘모든 사람들이 고루 잘사는 사회’를 뜻하는 것이다. 우당이 지향한 대동세계가 누구나 자유평등하게 태어나 자유 연합하며 사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당이 건설하고자 했던 새로운 국가란 결국 ‘대동세계’였을 것이다.

우당은 아나키즘이란 서구 사회주의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사상 속에서 그 장점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sup>61)</sup> 이처럼 스스로 아나키스트가 되었던 우당은 자유연합적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제와 권력분산으로 자치와 자율의 실현되는 연합정부로서의 독립국가상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둘째, 우당과 직접 연관이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해방 후 아나키스트 동지들이 조직한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의 선언과 강령에도 그들이 추구한 신국가 건설 구상이 나타나 있다. 연맹의 ‘선언’에는 “자유는 만인의 요구이며 평등은 사회생활의 기본 조건이요 상호부조는 인류 진화의 요인이니 이 요구와 이 조건이 무시

60) 이을규, 위의 책, 40~46쪽 참조.

61) 이정규, 앞의 책, 1974, 92-93쪽.



되고 이 요인이 동요를 당할 때에 사회는 퇴폐 패멸되는 것이다 … 우리 사회의 내부적 원인인 부자유, 불평등, 상호이반 투쟁 등을 근절시키고 상호부조의 진화적 인자(因子) 위에 자유평등의 신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삼천만의 이 민족으로 하여금 자손만대의 번영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론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자유, 상호부조, 자유평등이 해방 후 ана키스트들의 새로운 사회 건설의 핵심 요인이었던 것임을 볼 수 있다.

연맹이 채택한 ‘강령’에도 “1) 오등(吾等)은 독재정치를 배격하고 완전한 자유의 조선건설을 기(期)한다, 2) 오등은 집산주의(집산주의) 경제제도를 거부하고 지방분산주의의 실현을 기한다, 3) 오등은 상호부조에 의한 인류일가(人類一家) 이상(理想)의 구현을 기한다.” 라고 하여 또한 자유, 지방자치, 상호부조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sup>62)</sup>

해방 후 ана키스트들이 결성한 ‘민주사회당’의 ‘정치 5대 목표’와 ‘당책(黨策)’을 통해서도 ана키스트들이 구현하고자했던 신국가 건설 방향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자유평등, 지방자치, 자주, 인류평화 등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sup>63)</sup>

#### 4. 우당과 대중교

우당은 노소 귀천을 불문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동지요 친구로 대접하였기에 많은 인물들이 그의 주변에 모였다. 신흥사에 모여 함께 신학문을 공부하던 동지들, 구국운동을 함께한 상동청년학원과 비밀결사 신민회 동지들,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통해 신흥무관학교의 초석을 마련했던 동지들, 우당과 합

62) 이정규, 「자유사회건설자연맹 선언 및 강령」, 『우관문존』, 국민문화연구소 출판사, 2014, 173-175쪽.

63) 이정규, 「민주사회당의 노선」, 『우관문존』, 국민문화연구소 출판사, 2014, 248-254쪽 참조.

께 베이징과 텐진 골방에서 밤새 구국의 길을 모색하던 아나키스트 젊은 동지들이 그들이었다.

우당의 동지들을 나열하면 그대로 한국독립운동의 인물사가 되며, 우당의 사상적 궤적을 그리면 그대로 한국독립운동의 노선이 된다. 김규식, 김창숙, 안창호, 조소앙, 김구 등은 민족주의를 고수했고, 홍남표, 성주식 등은 공산주의자가 되었으며, 유자명, 이을규, 정현섭, 김종진 등은 아나키스트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우당의 주변에는 대종교와 관련된 인물이 많았는데, 이는 독립운동가 상당수가 대종교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인영(나철)을 비롯하여 이상설, 주시경, 여준, 김창환, 우덕순, 윤태훈, 이관직, 이동녕, 이시영, 장도빈, 조성환 등이 모두 대종교에 깊이 몸담은 인물들이다. 이미 상동교회 전체 관여인물의 46%가 대종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록처럼<sup>64)</sup> 당시는 대종교가 종교를 떠나 국조 숭모라는 역사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당 또한 대종교와 관련되어 입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 1910~1920년대 대종교 서일도 교구(남만주 일대부터 평안도를 관할하던 교구)의 주요 교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sup>65)</sup> 우당과 가장 가까웠던 동지인 이상설은 연해주 지역인 북도교구의 총책임을 맡았고, 신규식, 이동녕은 서도본사의 책임을 맡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백순(白純)은 우당이 머물던 북경과 만주를 왕래하면서 재만 무장투쟁가들과 우당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고, 이광(李光) 또한 대종교 서일도 본사의 중심인물로서 우당이 어렵던 시절 텐진의 프랑스 조계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게 해준 동지들이다. 당시 이광은 하남성 독판 호경익(胡景翼)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텐진 프랑스 조계에 집 두 채를 마련하여 한 채는 우당 일가가 쓰고 다른 한 채는 텐진으로 모여든 아나키스트 동지들

64) 김동환, 「일제강점기 대종교와 기독교의 연계 활동에 대한 담론」, 『국학연구』 제21집, 국학연구소, 2017, 149쪽.

65) 현규환, 『한국유이민사』상, 어문각, 1967, 368-369쪽 ; 김동환, 앞의 책, 2018, 236-242쪽 참조.

의 숙소로 사용케 했던 것이다.<sup>66)</sup>

우당은 장자풍의 개인적인 품모로 인해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를 중심으로 모였다. 천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반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정의라고 생각될 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함이 없이 초지(初志)를 관철하는 행동적 인간, 혁명가였던 것이다. 더욱이 우당은 공은 동지에게, 궂은일은 자신이 도맡아 처리하고자 하는 의협심이 강하고 기지와 침착함을 함께 갖춘 인물이었기에 그를 따르는 젊은 동지들이 진정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우당은 물론 그 동지들의 업적과 삶, 그리고 대중교와의 관련 자료 등도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 5. 나오는 글

우당은 이상적인 혁명가가 아니라 실천적인 독립운동가였다. 독립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제와의 무장투쟁이 최고의 방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제일 먼저 기산도, 나인영 등의 동지들과 을사오적 암살 계획에 관여하였다. 의열투쟁은 또 다른 무장투쟁의 방략이었다. 암살 계획이 미수에 그치자 우당은 죽마고우 이상설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국내에서의 독립투쟁의 한계를 절감하고 일찍부터 해외 독립운동기지에 눈을 돌렸다. 만주 용정촌에 서전서숙을 세운 것이나, 국내에서 헤이그특사 파견의 배후로 깊이 개입했던 일이나, 후일 고종황제의 망명을 통해 거액의 운동자금을 조성하려던 계획 등은 이들이 구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독립투쟁의 방법이었다. 우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을 만나 ‘만주에 광복군을 양성할 것과 이를 위해 운동자금을 준비할 것’ 등 무장투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66) 이규창, 앞의 책, 123-126쪽 참조.

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신민회의 ‘독립전쟁론’에 공감하여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계획에 깊이 개입하고 손수 백지장수로 가장하고 서간도로 건너가 장차 독립운동기지를 물색했던 것이나, 6형제와 4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선발대로 유하현 삼원포에 정착한 사례 등은 행동하는 혁명가로서의 우당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종황제의 망명 계획이 무산되면서 거주지를 국외로 옮겨 베이징에 자리잡은 우당은 무엇보다 죽마고우 이상설의 서거 소식에 큰 실의에 빠졌다. 이때 우당이 만난 사상이 아나키즘이었다. 이을규, 이정규, 유자명, 정화암 등 젊은 아나키스트들이 우당의 주변에 모여 들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걸어온 혁명의 길과 아나키즘 노선이 상통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당이 선택한 아나키즘도 그에게는 독립운동의 한 방편이었다. 우당의 아나키즘은 자유 평등을 토대로 하는 개인적인 천품과 당면한 조국의 독립이라는 소망이 어우러진 사상이라 이해할 수 있다.

우당이 마지막으로 노구를 이끌고 향한 곳은 만주였다. 만주는 무장투쟁의 본거지다. 처음 만주 망명의 단초를 열었던 우당이 최후로 선택한 땅이 다시 만주였다. 이곳에서 우당은 독립운동의 진수인 무장투쟁을 펼쳐 보이며 했던 것이라. 중국 국민당의 거물 오치휘와 이석중이 ‘만주를 한국인들의 자치구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에 한껏 고무된 우당은 장학량을 통해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 냈다. 젊은 아나키스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스스로 제1진이 되어 만주로 떠났던 우당의 모습은 그것으로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우당은 무장투쟁을 독립운동의 정도(正道)로 생각하고, 평생을 자신이 걸어온 혁명노선, 무장투쟁의 노선을 마지막까지 끌어안았다.

우당이 평생에 걸쳐 실현하고자 했던 독립은 그의 생전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독립을 쟁취한 이후 어떠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

은 아나키스트 동지들과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 있다. ‘국가와 민족이 모두 평등해야하고 민족 내부에서도 자유 평등의 원칙 아래 국민 상호간에 일체의 불평등, 부자유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우당의 이러한 사상은 해방 후에도 그의 아나키스트 동지들에 의해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이나 ‘민주사회당’의 실천 강령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당은 평생을 주변의 많은 동지들과 함께 했다. 노소 귀천을 불문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동지요 친구였다. 구국의 길을 함께 모색했던 아나키스트 젊은 동지들과는 마지막까지 동행하였다. 독립운동은 영웅 한 두 사람의 공적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많은 동지와 선후배의 희생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당의 동지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대종교와 관련된 우당의 동지들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보 단계이다. 이는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연구되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이정규, 『우당 이회영 약전』, 을유문화사, 1985.
- 윤병석, 『이상설전』, 일조각, 1984.
- 이종찬, 「그 모든 재산 조국에 바치고 귀천-영석 이석영 할아버지께」, 〈100년 편지〉 2019.3.25
- 신주백, 『청년결백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킴이 이시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 김동환, 「우당 이회영과 대동사상」, 《국학연구》 제22집, 국학연구소, 2018.
- 권오돈, 「민족계몽의 길잡이-이회영」, 『한국의 인간상』 6, 신구문화사, 1966.
- 이관직, 『우당 이회영 실기』, 을유문화사, 1985.
- 김명섭, 『자유를 위해 투쟁한 아나키스트, 이회영』, 역사공간, 2008.
-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 상동교회, 『상동교회 일백년사』, 1988.
- 오영섭, 『한말순국 의열투쟁』,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장석흥, 「우당 이회영 선생의 독립운동과 역사적 평가」, 『우당 이회영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2017.
- 이덕일, 『이회영과 젊은 그들』, 역사이야침, 2009.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 윤병석, 『독립군사』, 지식산업사, 1991.
-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8.
- 이정규, 「우당 이회영 선생 약전」, 『우관문존』, 삼화인쇄 출판부, 1974.
- 이은숙, 『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 서간도시종기』, 인물연구소, 1981.
- 이을규, 『시아 김종진 선생전』, 한흥인쇄소, 1963.
- 이규창, 『운명의 여신』, 클레버, 2004.
- 이상룡, 「경학사 취지서」, 『석주유고』,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 계봉우, 「꿈속의 꿈」상, 『북우계봉우자료집』1,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 한시준, 「백범 김구의 신국가 건설론」,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제3집, 백범학술원, 2005.
- 김동환, 「일제강점기 대중교와 기독교의 연계 활동에 대한 담론」, 『국학연구』 제21집, 국학연구소, 2017.
- 현규환, 『한국유이민사』상, 어문각, 1967.

<Abstract>

## Lee Hoi-Young's Way of Independence Movement and Construction Plan of Independent Nation

Kim, Byung Gi

Lee Hoi-Young(1867-1932) was a practicing model of independent movement. He put into effect the route of armed-struggle by leading the construction of an overseas base for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Shinminhoi(신민회), thereby formed the basis for the Shinheung Army School(신흥무관학교). He also operated a sawmill and cultivated ginseng as practical plans to provide funds for the independent movement.

Earlier on he engaged in the assassination plan of 5 Eulsa-enemies(을사오적) and pushed ahead an overseas exile of Emperor Kojong. Thereafter staying in Beijing, he accepted the anarchism as a practical means of independence movement with his comrades such as Lee Eul-Gyu brothers, Yu Ja-Myung and Shin Chae-Ho, etc.

This was a confirmation that his passed-on revolution way coincided with the anarchistic line. Lee Hoi-Young's anarchism can be seen as a thought that combined his personal nature based on liberty and equality, and his wish for the urgent national independence.

Since April in 1924 Lee Hoi-Young has binded the Korean anarchists in Beijing and Shanghai areas by engaging in the Chosun Anarchists Association in China(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Anarchists Association in China(재중국무정부주의자연맹) and the Oriental Anarchists Association(동방아나키스트연맹), etc.

Thereafter, he participated in binding the Namwha Korean Youths Association in China(남화한인청년연맹), Anti-Japan Nation Salvation(항일구국연맹), and so forth, and carried out assassination of the key Japanese figures and destruction of organizations.

In November 1932, he planned the last phase of anti-Japan armed-struggle and on his way to Manchuria, he was arrested in Darien by the Japanese police and was tortured and died for his country.

Though Lee Hoi-Young's life-long wish of recovering the national power did not come true during his life, his wish to realize a new construction way for an independent nation was appeared after Korea's independence, as the practical doctrines based on 'liberty and equal society' by his anarchist comrades.

The most independence movers practiced the relation with DaeJongkyo(대종교), but I'd like to remain these topics in the future.

**keyword** : Shinheung Army School, the Chosun Anarchists Association in China(재중국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the Oriental Anarchists Association(동방아나키스트연맹), Namwha Korean Youths Association in China(남화한인청년연맹), DaeJongkyo(대종교)





『역사와 융합』 제4집(2019. 6)

【서평】

## 개성상인의 장부에서 배우는 자본주의 미래

허성관, 『개성상인의 탄생—세계 최고(最古)의 복식부기를 만든 사람들』,  
만권당, 2019

이 계 웅(경영학박사)

### 1. 들어가는 글

《개성상인의 탄생》은 회계학과 역사학이 결합된 역사회계학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개성부기(開城簿記)로 알려진 박영진 가 보관의 사개송도치부법(四介松都治簿法)이 현전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복식부기 장부임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개성상인들의 자본주의 정신을 탐색한 저서다. 이 장부들에 개성상인들의 자본주의적 사고와 현대적 경영기법들이 투영되어 있었음을 밝혀서 세계 최고의 복식부기가 탄생한 경제사적 연원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이런 저서가 가능했던 데에는 저자의 독특한 이력이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뉴욕대 및 동아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와 한국 회계학회 회장을 역임한 회계학자이자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역임한 국정경험도 갖고 있으며,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상임의장을 맡았을 정도로 역사에도 해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력들이 개성부기에 대한 회계학적 분석을 넘어서 역사적 의미까지 고찰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박영진 가의 고문서는 조선시대 상인들이 사용하던 전문용어가 이두와 한자 초서체로 기록되어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

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조차 하기 힘든 난해한 문서이다. 이 장부를 분석하고 해독하는 과정만도 녹록치 않은 작업이었을텐데 여기에서 개성상인들의 자본주의적 사고와 한국 자본주의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연원까지 끌어내는 것은 회계학·경영학에 대한 전문지식에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인문학적 통찰력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 2. 개성상인의 탄생

송상(松商)이라 불리는 개성상인은 개성 지역에서 일가를 이루며 전해온 상인 집단이다. 조선시대 내내 정치권력과는 독립적으로 상업을 전수했던 독특한 집단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DNA가 재연된 결과다. 동아시아에 고대 해상 루트를 개척해 22개 담로(擔魯)를 운영한 백제인,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 무역을 장악한 신라인, 해상왕 장보고 세력, 고려시대 국제무역 도시인 개성을 중심으로 대외 무역에 종사한 고려상인들이 다 그런 사례들이다. 조선왕조 건국 후에 개성 사람들은 정계진출을 스스로 거부하고 상업을 특화시켜 송상이라는 상인 전통을 만들고 이어갔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에도 개성상인의 맥은 면면이 이어졌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상인 DNA의 특화된 기질을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전승해 왔는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박영진 가의 사개송도부치법이다.

## 3. 박영진가 장부의 가치

우리나라 복식부기는 고려시대부터 전승해 내려온 것으로 개성상인들이 창안

했다. 복식부기 사용은 그 시대 경제가 일정 규모 이상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 으로부터 상업이 독립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복식부기 기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고, 화폐경제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여기에 복잡한 복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는 산술 지식이 필수적이다. 복식부기의 존재 자체가 곧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경제 체계를 갖춘 사회임을 말해준다.

독일 문호 괴테는 복식부기가 인간 지혜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의 하나라고 극찬했고, 막스베버는 복식부기가 유럽 계몽주의를 탄생시킨 증거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 서양학자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조선처럼 정교한 회계 시스템을 창안하고, 그 토대 위에서 다양하고 많은 회계 기록을 남긴 나라도 찾기 힘들다. 조선왕조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던 다양한 내부 통제 제도는 오늘날보다 효율적이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비영리조직인 서원과 계(契)의 회계 장부도 근대적 합리성이 적용되는 탁월한 회계 원리로 기록되었다.

개성상인인 박영진가 장부는 거래 이중성과 대차평균을 준수한 완전한 복식부기 장부이다. 이 장부는 회계연도별 회계순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현전하는 유일한 장부이며, 기회원가, 초과이익, 순현가, 시장 가격 등 현대 회계의 핵심개념들이 적용되는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를 준수했고, 처리방법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독창적으로 진화했다. 더욱이 박영진가의 장부는 서양 부기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없는 우리 고유의 복식부기로서 우리 민족의 독창성을 나타내는 증거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다.

#### 4. 박영진가 장부는 현대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의 미래

이 책의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우리 전통회계의 기본원리와 그 탁월함 그리고 복식부기가 자본주의에 왜 중요한지에 관해 기술했다. 제4장에서는 박영진가 장부가 개별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가 작동하는 복식부기임을 논증했다. 이어 제5장에서는 박영진가 장부를 통해 개성상인들에게 나타난 현대 자본주의적 사고와 경영기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개성상인들은 이재(理財)에 밝으면서도 신용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다.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대 자본주의적 경영 윤리를 실천했던 상인집단이었다.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는 조직 시스템인 사용인제(使用人制)에서는 전문경영인인 차인(差人), 회계전문가인 서사(書師), 현장관리자인 수사환(首使喚), 말단직원인 사환(使喚) 등 역할에 맞는 전문인을 고용했다. 또한 전국을 지역별로 분할해 행상단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인 송방(松房)을 도입하고, 신용 바탕의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 유통을 하는 시변제(時邊制)를 운영하는 등 선진적 경영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회계 투명성 확보를 신앙의 경지로 승화시키고, 신용중심의 상생경영을 실천한 개성상인의 경영 윤리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이다.

제6장에서 제7장까지는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적 경영과 사고의 연원을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특히, 8장의 <동양 사상, 서양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치다>에서는 저자의 독창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간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학은 당연히 서구 학문이라고 받아들여 왔지만 저자는 동양 고전이 오히려 서양 자본주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으며, 바로 이런 고전이 한국의 자본주의적 사고의 연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5. 동양 유학과 서양 자본주의와의 동행

중국 춘추시대 관자(管子)와 맹자에 나타난 경제사상에는 현대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완성도가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조선 시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합리주의적 사상과 유수원은 신분제 해체, 개인 이윤 추구 동기 인정, 상공업 진흥 등을 주장했는데, 이런 실학적 사고가 현대 자본주의적 사고의 연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17세기 초 명나라에서 활동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동양 사상을 유럽에 소개하면서 서구 경제학의 앞선 인물들이었던 케네, 아담스미스와 유럽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서양의 자본주의 물질이 조선에 밀려 들어올 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동양 고전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이미 내재적으로 자본주의적 사고가 전승, 발아된 상태였고, 서양 자본주의가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자본주의적 사고와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체제와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뜻이다. 단지 일제 강점기에 이런 사상적 맥이 단절되어 관중의 경제학을 필두로 동양 고전에서 발아된 경제학 전통이 단절되었던 것이다.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근대 유럽 계몽주의 사상과 동양 유학 사상이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친화적이라는 사실은 유학의 영향에 있던 아시아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연원이라는 것이다.

## 6.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이 책에선 최근 우리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 따위의 반역사적

이고, 반민족주의적 사고로 우리 선조들의 사상과 업적들을 폄해하고 왜곡하는 매국 지식인들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한마디로 일제강점기 때 근대화가 이룩되었다는 주장인데, 박영진가 장부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미 조선은 자본주의화가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식민지근대화론은 폐기 처분되어야 할 이론으로 전락했다. 박영진가의 사개송도치부법의 발견은 회계장부의 의미를 넘어서 이런 역사적 의미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의 사상과 업적 모두를 부정하는 식민사관이 역사학을 넘어서 경제학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개성상인의 탄생》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 7. 나가는 글

박영진 가의 회계장부는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개성상인의 독창성과 합리성을 알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상인의 탄생》은 서양의 자본주의 사상이 동양 유학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개성상인들이 복식부기를 기본으로 한 투명한 회계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탁월한 경영 방식과 위기에도 굴하지 않는 개척정신과 신용과 품질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경제학과 역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벤처사업가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업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일반 독자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회계분야가 집중된 제4장은 다소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 경영학을 전공했으면서도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필자와 같은 독자에게는 독서의 즐거움과 미래에 나아갈 길에 대한 영감까지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는 회계학자면서도 이두와 초서가 섞인 한문 원전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갖췄고, 여기에 역사학적 통찰력을 갖고 있기에, 박영진 가의 회계장부를 통해 조선은 물론 세계 자본주의 사상의 연원까지 서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학문적 토대 위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 식민사관 비판에 앞장서고 있을 것이다. 학문에 기반한 실천이야말로 학자가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선인의 지혜와 역사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의 보고로 독자들에게 《개성상인의 탄생》을 권하고 싶다.





# 부 록

-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 『역사와 융합』편집위원회 규정
- 『역사와 융합』투고 및 심사 규정
- 연구 윤리 규정
- 『역사와 융합』논문심사신청서
- 『역사와 융합』논문심사서
- 『역사와 융합』게재판정 기준
- 『역사와 융합』논문심사의견서
- 알림



##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바른역사학술원(The Academy of Real Korean History)라 부른다.

### 제2조 (목적)

이 학회의 목적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존 학문의 칸막이를 넘어서 학제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연구 지평을 넓히며, 지식의 대중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하는 데 있다.

###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회 기관지 『역사와 융합』 발간
2. 공동연구 및 학술발표회 개최
3. 국내외 학계와 교류
4. 회원 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증진
4. 일반 연구자 및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연구활동 지원
5. 일반 대중을 위한 도서 출판
6. 그밖에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 제4조 (회원의 구분)

이 학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평생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이 학회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이로 한다.
2. 정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박사 이상의 학위 또는 단독 논문이나 저서

를 2권 이상 출간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단독 논문이나 저서를 1권 이상 출간한 자로 한다.
4. 일반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로 한다.
5.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3. 회원은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학술지를 수령할 수 있다.
4. 회원은 이 학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여러 학술대회와 연구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5. 회원은 이 학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학술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회원은 이 학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
4. 회원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라야 한다.
5. 회원은 이 학회의 행사 및 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자격 제한)**

이 학회의 회원 가운데 일정 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의 구성)

이 학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는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학술이사 2인, 홍보이사 2인, 학술정보이사 2인, 편집이사(편집위원장) 1인, 연구윤리위원장 1인, 해외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이 학회의 임원 자격 및 선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제청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직무)

이 학회의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관장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출납을 관리한다.
5.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등 각종 학술행사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6. 홍보이사는 회원의 확대, 학회 유지 및 활동자금 확보 등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7. 학술정보이사는 이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 등 학술정보 업무를 담당한다.
8.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통솔 아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편집위원회규정에 따른다.
9.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과 학술지

에 게재 및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을 감독하고 심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10. 감사는 이 학회의 운영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1. 자문위원은 이 학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자문한다.

## 제12조 (총회)

이 학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주일 이전에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총회 소집을 알린다.
4.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구성되며,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 기타 사업계획의 승인
  - ④ 그밖에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 (이사회)

이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의안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회장 및 부회장, 기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③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④ 기관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⑤ 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⑥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⑦ 그밖에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4조 (위원회)**

이 학회의 기관지인 『역사와 융합』의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또한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5조 (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며, 회비의 액수 및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회장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연도는 이전년도 총회로부터 이번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 **제16조 (행정)**

이 학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장은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수당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급한다.

#### **제17조 (해산)**

이 학회의 해산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재적 회원 과반 수 출석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질 수 있다.



### **제18조 (회칙개정)**

이 학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과반 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 **제19조 (시행 세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제20조 (시행 일자)**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창립회칙)

## 『역사와 융합』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11조 8항에 의거하여, 바른역사학술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융합』(영문명: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 Convergence)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편집위원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 편집 · 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회장단이 위촉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정회원 중 학문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6인 이상으로 선임한다. 편집위원회는 『역사와 융합』에 투고된 모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하여, 투고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세부사항은 편집규정에 따른다.

### 제3조 (임기 및 선임)

1.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전임 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전임 및 현임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2년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한 번에 모두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 (임무)

1. 편집위원회는 『역사와 융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과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역사와 융합』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임·위촉하고,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 및 2차 심사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이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역사와 융합』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5조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시기를 전후하여 편집기획, 집필 의뢰, 논문심사위원 위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2.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회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편집이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6. 편집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 제6조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가진다.

## 『역사와 융합』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융합』에 투고되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내용)

『역사와 융합』에 실리는 글은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2조에 의거하여 바른역사학술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미발표된 논문 · 비평논문 · 서평 · 번역 · 연구 동향 등을 포함하며,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 비평논문과 서평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발간된 서적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 (발행 회수 및 시기)

『역사와 융합』은 연 2회 간행하며, 간행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 제4조 (투고 자격 및 제한)

『역사와 융합』에 글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에 한하며, 학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로 제한한다.

### 제5조 (원고 제출 및 투고신청)

투고자는 원고를 학회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탑재하고, 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일 형태의 원고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편집이사에게 발송해야 한다.

### 제6조 (투고에 관한 일반사항)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소요 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하고, 구체적인 부담 내역은 편집위

원회에서 정한다.

3. 원고의 영문 제목 및 필자의 영문 이름을 영문개요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원고의 마지막 쪽에 한국어와 영어 각각의 주제어(key words)를 5개 이상 표기해야 한다.
5. 투고 원고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한다.
  - ① 원고 제목 ② 저자 이름 ③ 한국어 초록 ④ 한국어 주제어 ⑤ 참고문헌
  - ⑥ 영어 제목 ⑦ 투고자 영문명 ⑧ 영문 초록(Abstract) ⑨ 영어 주제어

## 제7조 (원고 작성 요령)

### 1. 외래어 표기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6호(1995. 3. 16)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어 표기 후 원어를 병기할 경우 ( )를 사용한다. 『』나 『』와 병용할 경우는 기호 안쪽에 기재한다.

보기) 『아사히신문(朝日新聞)』

### 2. 저자 이름

저자 이름 끝에 \*표를 위첨자한 후 소속, 직위, 전공분야를 각주로 기입한다. (※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필자를 앞에, 공동 필자를 뒤에 기재한다.)

### 3. 본문

- ① 본문의 장절 표기는 1, 1.1, 1.1.1' 순서로 한다.
- ② 본문의 내용 중 직접 인용은 “ ”로, 간접인용이나 강조 부분은 ‘ ’나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다.
- ③ 본문에 인용된 문헌의 출처는 미주가 아닌 각주 달음으로 표기하며, 달음 양식은 다음과 같다.

〈동양 문헌〉 서적의 경우 『서명』, 논문의 경우 논문명.

－ (서적)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보기) 이덕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 만권당, 2014, 24쪽.

－ (논문) 저자, 「논문제목」, 『단행본 또는 학술지명』 권호수, 출판연도, 쪽수.

보기) 김병기, 「의열단원 우산 남정각의 독립운동」, 『용인향토문화연구』 제11집, 2010,

271~300쪽.

〈서양 문헌〉 서적의 경우 서명(이탈릭), 논문의 경우 “논문명”.

– (서적) 저자, 서명(이탈릭),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ex)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2, 101~102쪽.

– (논문) 저자, 논문제목, 단행본 또는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기관, 출판연도, 쪽수.

ex) Evelyn Pluhar, “Animal Rights”, in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 1, Academic Press, 1998, 165쪽.

#### 4. 원고 형식

① 학회지에 투고할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판짜기를 한다.

– 용지 크기 : 사용자정의 – 폭 152, 길이 224

– 용지 방향 : 좁게

– 용지 여백 : 위 10, 아래 10, 왼쪽 10, 오른쪽 10, 머리말 10, 꼬리말 5

② 논문 각 부분의 글자 속성 및 문단 속성은 다음과 같다.

속성		글자 크기	글자모양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제목						
논문 제목		14	신명 태명조	170%	하지 않음	가운데
이름 및 소속		11	신명 태명조	165%	하지 않음	오른쪽
장 제목 : I.		12	신명 태명조	175%	하지 않음	가운데
절 제목 : 1		11	신명조	175%	10.0pt	양쪽 정렬
소 제목 : 1)		10	신명조	175%		
세부 제목 : (1)						
미세 제목 : ①						
본문		10.5	산돌 명조	175%	10.0pt	양쪽 정렬
인용문		9.5	산돌 명조	160%	하지 않음	양쪽 정렬
인용문헌	제목	8.5	산돌 고딕	175%	하지 않음	가운데
	내용	9.5	산돌 명조	160%	하지 않음	양쪽 정렬
표 / 그림	제목	9	산돌 고딕	140%	하지 않음	가운데
	내용	9	산돌 명조	145%	하지 않음	양쪽 정렬
각주		8.5	산돌 명조	140%	하지 않음	양쪽 정렬

제목	속성	글자 크기	글자모양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초록 : 산돌명조, 10pt, 175%	제목	15	산돌 명조	175%	하지 않음	가운데
	이름	10	산돌 명조	160%	하지 않음	오른쪽
	내용	10.5	산돌 명조	175%	10.0pt	양쪽 정렬
공통	자간 : 한글-2%/영문-3%					

### 〈기타〉

-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를 사용해서 표기한다.
- 각주에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줄고나 줄저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
- 신문과 같은 일간지의 기사를 인용할 경우, 『신문명』 연. 월. 일을 표기하되, 마침표(.)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표는 〈표 1〉, 〈표 2〉 등으로 표시한다.  
도면이나 지도, 사진 등도 위의 〈 〉 표시를 따른다.

## 제8조 (심사)

### 1. 심사 내용

투고된 원고는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과 내용의 학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를 받는다. 단, 논문 이외의 글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2.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며, 게재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의 권한을 갖는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의견, 특히 해당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근접한 분야를 전공하는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중 선정될 수 있다.

### 3. 심사위원 제한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4. 심사 절차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일체의 단서를 없앤 상태의 원고를 제공하여야 하

고,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비밀로 한다.

## 5. 심사 기준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학술지 성격에 적합성 정도, 논문의 독창성,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연구주제의 전문성과 중요성, 편집기준의 준수 정도 등 각 항목에 '탁월함', '우수함', '보통임', '결함 있음'의 성적을 <별지 1>과 같은 심사평가서에 표시한다.
- ② 심사위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평가서에 종합적인 심사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 6.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심사결과에 종합하여 <별지 2>의 게재 판정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7. 심사료

투고자는 투고와 함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8. 추가 소요비용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 매수가 120매가 넘을 경우, 추가 비용을 투고자가 부담하나, 최대 17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추가 부담 내역은 분량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 (투고자 연락 책임)

편집위원회는 원고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단, 투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주저자에게만 통보한다. 주저자는 투고 원고의 글쓴이 명단 가운데 맨 앞에 표기된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 (편집)

『역사와 융합』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11조 (별쇄본)

『역사와 융합』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해당호 3부와 별쇄본 10부를 우송한다.



## **제12조 (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회의 및 관례에 따른다.

## **부칙 1 (효력)**

이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갖는다.

# 연구 윤리 규정

## 제 1 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11조 9항에 의거하여, 모든 회원이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연구윤리의 준수와 부정행위 금지

### 제2조 (투고)

#### 1. 논문의 독창성

바른역사학술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융합』에 게재될 목적으로 논문을 투고할 때는 해당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저자는 같은 논문을 국내외 다른 학술지 및 단행본에 중복투고하거나 중복게재해서는 안 된다.

#### 2. 표절 금지

저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연구 내용(아이디어나 가설, 주장, 이론,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제시해서는 안 된다.

#### 3. 위조 및 변조 금지

저자는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 왜곡, 변형, 삭제해서는 안 된다.

#### 4. 저자 표시의 정당성

연구 내용이나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또한 거꾸로 학술적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

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 제3조 (심사)

#### 1.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 사실과 내용의 비공개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사실과 심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3. 위반 사실 통보의 의무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4조 (편집)

#### 1.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각각의 투고 논문에 대해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2. 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판단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3.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사실과 심사 내용 및 수합된 결과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논문게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투고자와 심사자 및 심사에 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4. 연구윤리 문제 발생 시 대응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등이 투고 논문과 관련한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제시할 때에는 신속히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에게 알려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대응한다.

##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의 선임

연구윤리위원은 정회원 가운데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 3. 연구윤리위원의 임기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보 또는 보고받았을 때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 1. 사안의 조사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 및 보고된 사안을 조사한다. 이 경우, 제보자·해당 저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윤리위원 중 해당 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2. 소명의 기회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소된 사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저자에게 제소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저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심의 시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4. 사안의 처리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 위반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내용을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5. 결과의 통보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제보자 및 보고자와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 제7조 (제보자와 해당 저자의 권리 보호)

#### 1. 제보자의 신원 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2. 해당 저자의 권리 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저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저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의 비밀 유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일체의 절차를 비밀로 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 4. 재심의

제보자 또는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제재 조치)

#### 1. 게재 취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역사와 융합』에 게재를 취소한다.

#### 2. 위반 사실 공지

바른역사학술원 홈페이지와 『역사와 융합』에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3. 5년간 투고 금지

해당 저자는 향후 5년간 『역사와 융합』에 투고할 수 없다.

### 4. 기관 통지

해당 저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통지한다.

## 제 4 장 부 칙

### 제9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바른역사학술원					
『역사와 융합』 논문 심사 신청서					
성명 (한글)			성명 (영문)		
소속			전공	직위	
논문명 및 분야					
현주소	(집)				
	(학교)				
전화	(직장)		(주택)		(이동)
E-mail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b>학술대회발표</b> (해당란에 V표 하십시오)		_____ 해당사항없음 _____ (        )년 (        )차 (준계/추계) 학술대회			
1. 위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동화와번역』 제30호에 투고합니다. 2. 본인은 투고한 논문이 『역사와융합』에 수록되었을 경우 같은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전문 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원문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귀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 름 : _____					
2017년        월        일					
바른역사학술원 원장 귀하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서

논문제목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탁월	우수	보통	결함		
학술지 성격 정합 정도	–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학제간 대화와 소통에 힘쓰며, 지식의 대중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한다는 학술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						
논문의 독창성	– 독창적이고 참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논증과정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가? 언어 표현이 명료하고 적절한가?						
연구주제의 전문성과 중요성	–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충분히 학술적이고 전문적이며, 대중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편집기준의 준수 정도	– 논문의 구성 형식이 학술지의 편집 기준에 맞는가?						
게재여부	종 합 평 가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총 평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경우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 장까지 계속 이어 쓰셔도 좋습니다.)							

심사자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심사일 :

년

월

일



## 『역사와 융합』 게재판정 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최종판정 결과	조치
1	수정 없이 게재	수정 없이 게재	수정 없이 게재	게재
2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 검토 후 게재 판정
3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제 3의 심사위원에게 게 재가부 심사 의뢰
4	수정 없이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제3의 심사위원에게 게재 가부 심사 의뢰
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 검토 후 게재판정
6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제 3의 심사위원에게 게 재가부 심사 의뢰
7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8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제 3의 심사위원에게 게 재가부 심사 의뢰
9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0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역사와 융합』심사의견서

글쓴이	밝히지 않음	소속	밝히지 않음
논문제목			

총평 :

수정 사항 :

## 알 림

### ■ 『역사와 융합』 제4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바른역사학술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논문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역사 · 문학 · 문화 관련 연구자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출 판 일 : 2019년 6월 30일

2) 원고 마감 : 2019년 4월 30일

3) 원고 내용 : 역사 · 문학 · 문화 관련 연구

4) 투고 방법 :

가. 보내실 곳 : hgr1379@naver.com

나. 반드시 학술원에서 정한 투고 형식을 지켜주십시오.(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홈페이지

이지 ‘학술이야기 – 한국바른역사이야기’의 자료 참조 <http://historyin.org>)

다. ‘논문 심사 신청서’를 같이 보내주십시오.(홈페이지 자료를 참조)

5) 심 사 료 : 6만원(우리은행 1002-947-402494 이덕일)

6) 원고 분량 : 200자 원고 120매 내외

※ 투고한 논문은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홈페이지 심사 규정 참조)

※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접수 시 반드시 확인 메일을 드립니다.

※ 저희 학술원은 외국어 논문의 투고를 적극 장려합니다.

### ■ 바른역사학술원 홈페이지 <http://historyin.org>



## 역사와 융합 제4호

2019년 6월 25일 인쇄

2019년 6월 30일 발행

**지은이** 바른역사학술원

**발행인** 이덕일

**펴낸곳** 사단법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교4라길 8 2층(마포동 223)  
Tel. 02-711-1379 Fax. 02-704-1390

**인쇄** 모든인쇄문화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50번길 58(삼성동)  
Tel. 042-632-0308 Fax. 042-632-0309

『역사와 융합』은 모든인쇄문화사의 기부로 발간됩니다.

**홈페이지** <http://www.historyin.org>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 Convergence  
Vol.4 June. 2019  
The Academy of Real Korean History

Articles

Review on the Territory of Xia Dynasty and Wugongguju / Jung, Ahm · Choi, Won-Tae

A Study of Revision to 昔有桓國(謂帝釋也) in Samguk Yusa at quoting the records of the old books / Park, Jeong Hak

A Study on the Persons Buried in the Naju Bokam-ri apartment-type tombs / Park, Tong

Lee Hoi-Young's Way of Independence Movement and Construction Plan of Independent Nation / Kim, Byung Gi

